

T&I REVIEW

2025 Vol.15(1)

T&I REVIEW

2025 Vol.15(1)

Publisher

Moonsun Choi (Director, ERITS)

Editor-in-Chief

Jieun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Editorial Board

Akiko Sakamoto (Kansai University, Japan), Eva Ng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AR of China), Kay Fan Andrew Cheung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of China), Ludmila Ster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Weiwei Wang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na), Aili Chang (GSTI, Ewha Womans University), Dohun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nsil Cho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nsim Kwak (Kyonggi University), Gyung hee Choi (Pyeongtaek University), Jieun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imin Lee (Keimyung University), Jinkook J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isun Shin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oonhyung Ch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ungmin Hong (Dongguk University), Jiun Huh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unho Lee (Chungang University), Juriae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Moonsun Choi (GSTI, Ewha Womans University), Nayoung Je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Raean Lee (GSTI, Jeju National University), Seung hye Mah (Dongguk University), Silhee Jin (GSIS, Chung-Ang University), Soonyoung Kim (Dongguk University)

발행인

최문선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장

편집장

이지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편집위원

해외:

아키코 사카모토 (일본 간사이대), 에바 응 (홍콩대), 케이 판 앤드류 청 (홍콩 폴리텍대), 루드밀라 스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웨이웨이 왕 (중국 광둥외대)

국내:

교내: 신지선, 이지은, 이주리에, 장애리, 최문선, 허지운

교외: 곽은심 (경기대) 김도훈 (부산외대) 김순영 (동국대학교) 마승혜 (동국대) 이예안 (제주대)

이준호 (충양대) 이지민 (계명대) 정나영 (국립공주대) 조준형 (경상국립대) 주진국 (충남대)

진실희 (중앙대) 최경희 (평택대) 최은실 (부산외대) 홍정민 (동국대)

Contents (차례)

1. 이주리에 · 이주연 · 이준호 · 허지운	7
통역사의 AI 활용 및 인식	
- 국내 통역사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2. 김훈밀	41
영한동시통역 수업에서 관찰되는 충실성과 유창성의 정량적 변화	
- 두 학기 7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3. 김민서 · 조성은	63
게임 자막과 더빙의 비속어 번역 연구	
- <사이버펑크 2077>을 중심으로 -	
4. 최승혁 · 강병규	89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의 번역 품질 개선 분석	
- 계약서 중한 번역을 실례로 -	
5. 허지운	109
생성형 AI 기반 프로그래밍 지원도구의 통역 실무 응용 및 통역사 역할 확대 가능성 고찰:	
용어 추출 및 기계통역 웹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김민정	139
-----------	-----

국내 의료 환경에서 통역인 역할 연구

김지영	147
-----------	-----

EBS 수능 연계 교재의 학습용 번역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155
------------------------------------	-----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161
---	-----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170
--------------------------	-----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175
--	-----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181
---------------------	-----

참고문헌 작성 양식	184
------------------	-----

Guidelines for Contributors	191
-----------------------------------	-----

Referencing Style	193
-------------------------	-----

통역사의 AI 활용 및 인식*

- 국내 통역사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이주리에**, 이주연***, 이준호****, 허지운**

Juriae Lee, Juyeon Lee, Junho Lee, Jiun Huh (2025). Interpreters' use and perceptions of generative AI: A survey of Korean professional interpreters. Despite rapid advances in AI, research on its use in interpreting is limited; little is known about interpreters' perception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KATI among interpreters in Korea, generative AI has yet to significantly impact the interpreting market, but interpreters are showing interest in it and using it in various ways during preparation. Interpreters who actively utilize AI and prepare for future changes tend to have a more positive outlook on the AI era. At the same time, concerns were expressed about the ethical implications of using AI in interpreting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he profess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enhanced training and institutional support are needed to help interpreters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adapt to ongoing transformations in the AI era. (Ewha Womans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Korea)

Keywords: Generative AI, interpretation, survey, ethics of AI, outlook

주제어: 생성형 AI, 통역, 설문조사, AI 윤리, 전망

* 본 연구는 한국통번역사협회(Korea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KATI)의 협조로 수행될 수 있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논문은 2024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또한,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중앙대학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통번역에 대한 인식, 업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양정애 2023)에 따르면 10개 직업군 중 생성형 AI의 대체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으로 번역가와 통역사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¹⁾ 한편, 통번역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에는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곽아람과 김민정 2023; 이호준 2025; 임주형 2024). 이렇듯 기술 발전과 함께 통번역의 미래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 가운데 AI, 나아가 생성형 AI 시대에 과연 통역사는 기술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등 질문이 생긴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는 빠르게 대중에게 일반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를 보면 챗GPT가 2022년 11월에 공개된 지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고(정호준 2025), 최근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의 인기로 2025년 3월 말 한 시간 동안 챗GPT의 사용자가 100만 명이 추가되었다고 발표되기도 했다(김현정 2025).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생성형 AI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2025년 3월 기준, 한국인의 챗GPT 인지율은 70%, 사용 경험률은 50.9%로, 미국(29.0%)과 일본(14.8%)에 비해 월등히 높다(김은영 2025). 그만큼 국내 통역사의 이용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통역사의 도구 사용에 대한 연구(Lee et al. 2024)에서는 컴퓨터 보조 통역(CAI: computer-assisted interpretation) 도구의 사용이 전체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해외 연구에서도 통역사의 기술 수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Corpas Pastor and Fern 2016; Prandi 2023).

번역의 경우 2016년 11월에 구글이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GNMT: Google neural machine translation)을 공개²⁾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며, 그동안 기계번역은 번역사 외에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친숙한 도구가 되었으며, 번역 방식에 컴퓨터 보조 번역(CAT: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도구가 활용되고

1) 1위는 번역가/통역사, 2위는 데이터분석 전문가, 3위는 자산관리사/보험설계사, 4위는 회계사/세무사, 5위는 이미지/영상편집자, 6위는 고객상담사, 7위는 개발자/프로그래머, 8위는 기자(언론인), 9위는 교수/교강사, 10위는 작가/작사가/작곡가였다.

2) GNMT는 2016년 11월 15일에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터키어 등 8개 언어쌍에만 적용되었고 제로샷 번역(zero-shot translation) 기능을 통해, 학습되지 않은 언어쌍도 번역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손경호 2017).

포스트에디팅도 많이 도입되어 번역사의 기술 활용은 통역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었다. 기술 관련 번역 연구 면에서도 번역 품질뿐 아니라 번역사의 NMT 수용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남신혜 2019; 이상빈 2018; 이주리에 2021b; 이준호 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나아가 2022년에 OpenAI가 GPT-3.5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세계적으로 통번역의 주제는 AI 관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령 2025년 5월 1일 현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챗GPT, 번역’을 검색어로 하면 48건의 연구가 검색되며, 2023년에 17건, 2024년에 29건으로 연구 수도 급증하고 있다. 연구 주제는 주로 생성형 AI의 번역 품질, 평가, 활용 방법, 교육이며, 번역 업계나 교육 현장의 챗GPT 수용(김은영 2025; 송연석 2024; 이구용 2024; 이지원 2024; 지윤주 외 2023)을 다룬 연구도 볼 수 있다.

통역의 경우는 AI와 통역 관련 연구가 비교적 최근 나타나는데, 2024년 하반기에 국제 저명 통역학 학술지인 *Interpreting*에 통역과 기술 주제로 특별호가 편성³⁾되어 자동음성인식(ASR) 및 CAI를 활용한 통역, 컨퍼런스 통역사의 기술 준비도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 등 국제적으로 AI 기술과 통역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를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KCI에 ‘챗GPT, 통역’으로 검색하면 5건이 검색되고 주제는 모두 챗GPT를 활용한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 통역사의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이용 현황이나 수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24년 하반기에 국제번역가연맹(FIT: Federación Internacional de Traductores), 국제회의 통역협회(AIIC: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ètes de Conférence) 등에서 AI 기술과 통번역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입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등⁴⁾ AI가 통번역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국내 통역사에 대해서도 AI 기술의 이용 현황과 인식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생성형 AI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 가는 시대에, 기대와 우려의 공존 안에서 과연 통역사는 AI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AI의 활용에 앞서 통역 실무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역사의 생성형 AI의 사용 여부는 사전 준비의 속도와 통역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리랜서 통역사와 인하우스 통역사를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 실무 현장 경험, 윤리적 우려,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3) *Interpreting* 2024년 26권 2호(<https://www.jbe-platform.com/content/journals/1569982x/26/2>)

4) 4장의 논의 및 결론에서 후술함.

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통역사들이 AI 기술을 도구로써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 우려 사항은 무엇인지, 준비 과정 및 직업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 및 교육 측면에서 고려할 실질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통역과 기술 연구

통역에서 기술 사용은 동시통역 장비, 전화 통역, 수어 통역을 위한 영상 등 주로 통역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술이나 송출 장비였다(Pöchhacker and Liu 2024). 이제는 AI의 발전에 따른 ASR 및 기계번역 등이 다뤄지는 시대가 되었으며⁵⁾,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부스메이트(ABM: artificial boothmate)로 불리는 통역 보조 도구는 그림 1과 같이 연사의 발화에서 고유명사(좌측)와 숫자(우측)를 자동 추출해서 보여준다.



그림 1. 인공지능 부스메이트 (출처: Center for Augmented Interpretation⁶⁾)

5) 판티누올리(Fantinuoli 2023)는 CAI를 통역 업무 흐름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분류한다. 먼저 업무 흐름은 준비 단계, 통역 중 기술 활용(ASR 등), 통역 후 정리(용어 업데이트, 문서 정리 등)로 나뉘는데 나아가 기술을 이용한 통역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의 진보 기준으로는 2000년대 초반 워드나 엑셀 등에 용어를 정리하는 1세대, 전문용어 및 지식관리 툴을 활용하는 2세대, AI의 발전에 따른 ASR 및 기계번역 등이 다뤄지는 3세대로 나누었다.

이러한 음성인식은 동시통역 뿐 아니라 순차통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트테이킹을 대신하고 자동 전사를 시역(Sight Translation)하는 형태로 통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사본 전체가 제공되는 것은 오히려 인지 부하를 가중시키기도 하며(이주리에 2021a, 2022; Lee 2024), 숫자, 고유명사 등 일부만 제공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도 한다(Wang and Wang 2019). 따라서 전체 전사를 하되 숫자만 하이라이트 해 주는 등 순차통역 CAI 도구가 별도로 개발되어 있기도 하다⁷⁾. 물론 동시통역에서도 실시간 자막을 제공했을 때 정확도는 올라가는 반면 유창성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Wang and Wang, 2019; Cheung and Li 2022; Li and Chminel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통역에서 자막 제공은 통역사를 도울 수 있는 기술로 보는데, 그 이유는 자막을 보는 것은 통역사의 선택이며, 자막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놓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Lee 2024). 또한 통역하면서 자막 읽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막이 인지적 도움을 주어 부담을 상쇄하는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인지 부하를 줄여준다고도 한다(Li and Chminel 2024).

통역 보조를 위한 음성인식 기술을 증강현실(AR) 기술과 접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R 장치를 머리에 착용해야 하는데, AR 장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숫자나 고유명사를 눈앞에서 볼 수 있어 통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장치의 착용이 불편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어려워 통역 과정에 방해가 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Gieshoff et al. 2024).

그밖에 통역사의 일정 관리와 배정 등 통역사 관리 시스템도 통역사를 보조하는 기술로 보는데, 플랫폼을 통해 통역사에게 일이 배정되기 때문에 통역의 우버(Uber)화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Fantinuoli 2023).

한편, 기계 통역(MI: machine interpreting) 연구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3세대 기술을 판티누올리(2023)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자연어처리와 생성, 요약 기능, 자동 언어 인식, 기계번역, 기계 통역으로 확장하여 설명한다. 이 중에서 기계 통역은 실시간 번역 자막을 의미하며⁸⁾, CAI로서 인간 통역사

6)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교(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의 CAI(Center for Augmented Interpretation) 홈페이지이며 2021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없고 그동안 개발된 툴의 아카이브만 볼 수 있다. <https://cai.uni-mainz.de/asr-prototype/>

7) 예를 들어 cymo note(<https://www.cymo.io/en/note.html>)는 순차통역 보조 통역 도구로, 음성 전사와 함께 숫자 부분만 하이라이트 해 주는 기능이 있다.

8) MI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먼저 cascading approach는 음성인식-기계번역-음성변환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음성변환 없이 자막으로만 제공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end-to-end approach는 전사하여

를 크게 보조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CAI 연구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MI를 구현한 연구가 있다. 김아영(2020)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계번역 출력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구축한 후,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실제 강의실에서 그 기능을 시연한 결과 ①장비 제어로 인한 잘못된 메시지 제공, ②전송 단위 차이에 따른 낮은 동시성, ③구두 통역과 서면 자막 번역의 차이로 낮은 커버리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았겠지만, 최근 여러 업체에서 내놓고 있는 실시간 자막이 다언어에 대응해야 하는 회의나 강의실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최선 2025)가 보고되고 있어, 그동안 음성인식 기술의 진보로 자막 출력의 성능이 많은 부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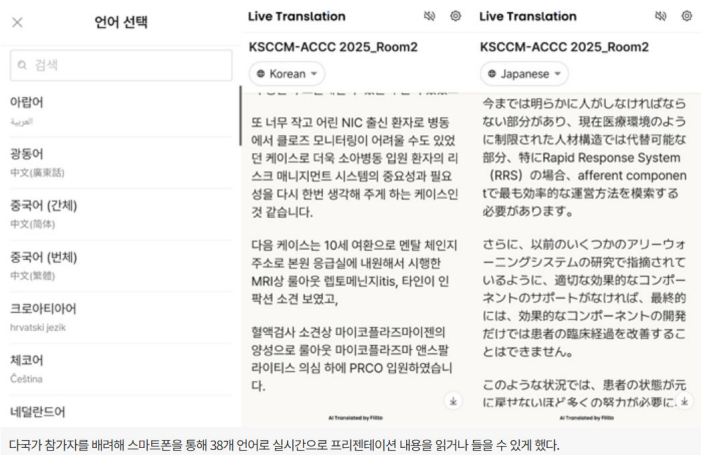


그림 2. 실시간 자막 제공 사례(출처: 최선 2025)

2.2. 통역에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인식 연구

기술에 대한 통역사의 인식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번역 관련 조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학생의 기술 인식 연구이다. 지윤주 외(2023)의 학부 전공자 126명을 대상으로 한 챗GPT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관심있다(42.1%)’, ‘보통(38.1%)’, ‘관심없다(19.3%)’의 순으로 비교적 관심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챗

번역하는 단계 없이 바로 ST를 TT로 바꾸는 방법이지만 아직 데이터 부족으로 구현이 쉽지 않다 (Fantinuoli 2023).

GPT를 번역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으나 의존도,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챗GPT가 번역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응답도 많지 않았으며, AI 번역 사용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사용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학 수업을 듣는 학부생 연구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이지원(2024)에서는 초급 중국어 학습자의 번역 수업에서 챗GPT 사용 경험에 대해 빠르고 편리하고 다양하며 번역에 도움 되지만, 부정확성, 윤리적인 문제, 지나친 의존 문제도 있다고 응답해, 지윤주 외의 번역 전공생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한편, 송연석(2024)은 8명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면접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인간 번역 대 MT의 이분법적 사고가 뿌리 깊고, 교수자들 간 MT 리터러시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번역 품질이 중앙 평준화되는 점을 우려했으며, 연구와 현장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학문적으로는 포스트에디팅(MTPE) 능력과 번역 능력을 구분하지만 교수자들은 그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MT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윤리뿐만 아니라 번역사의 권리 의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요율이 많이 낮아지는 우려로 이어져 KATI(한국통번역사협회)와 같은 권익 보호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연구도 시급해 보인다.

산업 측면의 조사 연구로는 주로 번역을 대상⁹⁾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초점을 둔 유럽 언어 산업 조사(ELIS Research 2024)가 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번역사들의 MT 사용 비율이 번역 회사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응답자의 23%는 2023년에 AI를 처음 사용했으며, 21%는 2024년에 AI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70% 이상의 언어(번역) 회사들은 번역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며 63%의 번역 학습자들이 번역 교육에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프리랜서 번역사는 일반인의 AI 수용이 많아지면서 인간 번역을 대체하는 기계번역의 수요가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번역에 특화된 기계번역을 대신하는 도구로서 AI를 사용할 때 MT 엔진과 언어쌍, 언어모델 등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생성형 AI 번역 품질이 프리미엄 MT와 비슷하거나 약간 아쉽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기술 사용에 대한 통역 관련 인식 연구이다. 배문정(2023)은 통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통역의 인간 통역, AI 통역, 자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9) 프리랜서 언어 전문가 919명, 교육기관 소속 170명, 번역 학습자 352명, 언어 담당 부서 및 언어서비스 사용자 78명, 언어회사 257명.

외국계 금융기관 한국 법인의 한국인 직원 30대부터 50대까지 총 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및 설문조사이다. 인간 통역은 통역대학원 2학년생이 담당했고, AI 통역은 DeepL로 번역한 후 파파고 AI에 음성을 입혀서 제공했다. 자막은 유튜브 동영상의 자동번역 자막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먼저 국제회의 상황에 대한 선호도는 자막(37.5%), 인간통역(35%), AI통역(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가 능숙한 참여자는 자막의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통역 의존도가 높은 사용자는 인간 통역을 선호했다. 인하우스 상황에서는 인간 통역사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82.5%), 이에 대해서는 통역의 정확성보다 인간 통역사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내부 상황에 대한 지식, 감정 전달, 돌발 상황 대처 등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가 선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AI 통번역이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실제 통역 사용자들은 정확도 외의 요소에서 많은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배문정 2023: 608).

통번역에 사용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용어집 사용 등에 대해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챗 GPT가 공개된 지 수 개월에 불과한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져 이후 생성형AI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 연구(Lee et al. 2024)는 2023년 2월 국내 통번역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통번역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럽에서 개발된 인터프리트뱅크(InterpretBank) 등의 전문용어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매우 적었고, 태블릿 등으로 전자 필기와 녹음 앱 활용이 가능함에도 순차통역 시 종이와 펜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프리랜서 통역사는 CAT 도구, 외부 USB 마이크 등 장비 사용에 적극적이었고 실시간 숫자, 고유명사의 자동 추출 기능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CAI 도구가 개발 및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 통역사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해당 도구를 접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 특화된 CAI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실습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다음은 국제회의 통역사 496명을 대상으로 한 통역사의 기술 친화도 관련 설문 및 인터뷰 연구(Fan 2024)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496명의 국제회의 통역사(AIIC 회원 비중 64.5%)에게 기술 준비도 지수(Technology Readiness Index, TRI 2.0)와 기술 사용 현황 및 인식 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 25명에게는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했다. TRI 결과, 평균 3.21로 기술 준비도 수준은 중

간 정도로 나타났다. 원격통역 기술 덕분에 이동하지 않고도 통역이 가능한 모빌리티(평균, 4.00)와 생산성 향상(평균 3.94)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지나친 기술 의존(평균, 3.31)과 산만함(평균, 3.67)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터뷰 결과로는 전반적으로 AI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보적이었으나, ASR과 기계번역이 생산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회의 직전에 받은 연설문을 기계 번역하거나 사전 녹화 영상을 ASR로 전사하는 등의 AI 활용이 통역 준비에 유용하다고 평가했으며,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계번역의 무분별한 수용과 의존,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원격통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했으나, 음질과 통신문제는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AI가 인간보다 정확할 수는 있으나 문화적 맥락의 통역은 인간의 몫임을 강조했다. AIIC와 같은 전문 협회가 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커리큘럼에 기술 활용에 관한 윤리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생들에게 기술 발전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제안했다 그리고 AI 기술이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전략적 사용 방안을 고안해야 하며, 아울러 현직 통역사들 역시 새로운 디지털 도구에 적응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의 이용 경험, 유료 버전 이용률에 대해서는,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상반기(3월 29일~4월 2일)에 국내 20대~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챗GPT 이용 경험 및 인식 조사」(양정애 2023)가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2.8%가 챗GPT를 사용해 봤고, 그중 5%는 유료 버전을 이용 중이었다.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은 14.9%였으며, 분야별 활용성은 자료 수집/검색이 9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바스와 무어킨스(Rivas and Moorkens 2024)가 2023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52명의 전문 번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챗GPT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41%, ‘가끔 사용’은 28%, ‘한두 번 사용해 봄’이 58.7%이며, 유료 사용자는 약 8.7%였다. 사용 용도는 요약, 이메일 초안 작성, 용어 찾기 등이 45%였고, 41%는 표현 수정을 위해 사용했는데 번역으로 사용한 경우는 23%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CAI 도구의 발전과 인지면의 효과, 통역사의 기술 수용 태도, 교육 방향 및 A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통역사 관점에서의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생성형 AI가 최근 2년 사이에 AI 사용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반영한 통역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통역사 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경험, 활용 목적, 인식, 우려, 전망 등을 분석함으로써, 통역 실무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리랜서 및 인하우스 통역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에 대해 2025년 1월 5일~1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구글폼)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IRB 승인(승인번호: 202411-HR-331)을 받았으며, 설문지 항목에 연구용 활용 및 설문지 응답 사례 발송을 위한 연락처 제공 체크를 통해 연구 동의를 얻었다. 설문 대상은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회원 및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중앙대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출신인 대상자¹⁰⁾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구글폼을 통해 설문 요청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110명 중 유효 응답은 109명이었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9개 영역으로 ① 통역 업무 형태 ②AI 도입에 따른 현장의 변화, ③인하우스 조직의 AI 활용 정책, ④생성형 AI 도구의 활용 현황, ⑤음성 자막 프로그램의 사용, ⑥자동통역/자동통역의 현재 경험, ⑦미래 전망과 대응, ⑧AI 자동통역 툴의 전망에 관한 인식, ⑨협회 지원 및 교육 수요 등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하, 설문 결과를 인구통계학적 특성, AI 도입에 따른 업무 현장의 변화, AI 도구 사용 현황, 음성자막 프로그램 사용, 미래 전망과 대응, AI 자동통역 툴의 전망, AI 시대를 대비한 준비와 교육/지원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겠다.

10) KATI 회원 외에 저자진이 소속된 기관의 졸업생에게도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언어권별 응답자의 수를 확보하였다.

3.1. 설문조사 결과

3.1.1. 인구통계학적 특성

(1) 통역 활동 형태 및 경력 등

전체 응답자 109명 중 조사 당시의 업무 형태는 프리랜서 통역사가 69명(63.3%), 인하우스 통역사가 40명(36.7%)이며, 통역사로 활동한 총 경력 연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 속성(경력, 단위: %)

	없음 ¹⁾	1~2 년 미만	2~5 년 미만	5~10 년 미만	10 년 이상
프리랜서 총 경력	10.1	14.7	24.8	18.3	21.1
인하우스 총 경력	23.9	11	32.1	18.3	4.6

표 1은 응답자가 현재 업무 형태와 상관없이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지낸 경력을 의미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한 총 경력은 2~5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주를 이루면서 경력별 연수가 고루 분포된 모습이었고, 인하우스로 활동한 총 경력은 2~5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2) 연령 및 언어

표 2. 응답자 속성(연령, 전공언어, 단위: %)

연령				전공 외국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
2.8	63.3	36.6	7.3	46.8	29.4	18.3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가 뒤를 이었다. 통역 전공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가

11)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현직 인하우스와 프리랜서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활동이 인하우스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이전 경력에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경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1명~2명씩 있었고, 한국어는 3명이었다. 응답자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도 일부 존재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는 2명이었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도 1명 있었다.

(3) 소속 조직 유형 및 규모
표 3. 인하우스 통역사의 조직 유형, 성격, 규모(단위: %)

유형		성격		규모			
기업/기관	기타	정부/공공기관	민간	5명 미만	5명~10명미만	1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90	10	25	75	44.4	16.7	25	13.9

인하우스 응답자 40명의 소속 조직 유형은 ‘기업/기관 내 인하우스 통번역팀’ 소속이 가장 많았다. 기타로는 ‘비즈니스 통역’,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일반 임직원이나 통역 수행 겸임’, ‘기업 내 일반직이나 통번역 업무를 수행함’이 있었다. 기업/기관 소속 36명 중에는 민간 기업 소속이 대다수였다. 이들이 속한 조직의 통역사의 수는 ‘5명 미만’이 가장 많아 소규모 팀이 주를 이루었다.

3.1.2. AI 도입에 따른 업무 현장의 변화

(1) 인하우스 통역사

① 업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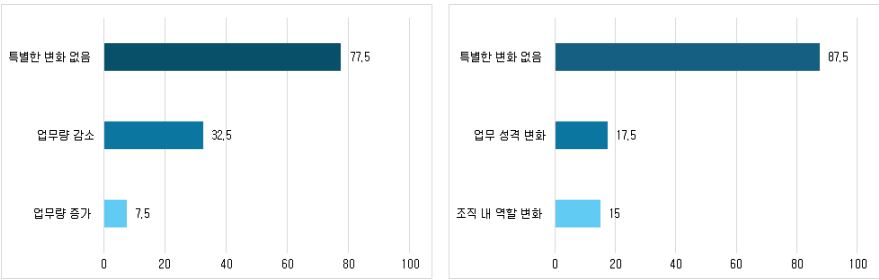


그림 3. 생성형 AI 등장 이후 조직 내 업무량 변화(좌) 및 업무 성격 변화(우), 단위: %

그림 3 좌측의 생성형 AI 등장 이후 조직 내의 업무량 변화(복수 응답)에 대해, ‘특별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 감소’가 조금 있었으며, ‘업무량 증가’는 매우 적었다. 그밖에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영어는 특별한 변화가 없으나 일본어는 업무량이 감소했다’, ‘아직 회사에서 미도입’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3 우측의 생성형 AI 등장 이후 조직 내 업무 성격 변화(복수 응답)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업무 성격 변화’와 ‘조직 내 역할 변화’가 약간 있었다. 기타 ‘줌으로 미팅 시, 동시통역 기능(eventcat) 이용’, ‘크게 중요치 않은 번역물은 DeepL 이용’이 있었다.

② 조직 내 생성형 AI 도구 활용 정책

소속 조직의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에 대한 입장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가 11명(27.5%), ‘해당 정책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가 10명(25%),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가 10명(25%), ‘조직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가 8명(20%), ‘전면 금지하고 있다’가 5명(12.5%)으로 나타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각 기관에서는 신중한 편임을 알 수 있다.

③ 생성형 AI 도구 활용 금지 및 제한 이유

생성형 AI의 사용이 ‘전면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인 경우 그 주된 이유는 전 원 ‘기밀 유출이나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고, 그 외에는 ‘번역 품질에 대한 우려’(4명, 26.7%)와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가 부재하기 때문’(1명, 6.7%)이 있었다.

④ 생성형 AI 도구 활용 허용 및 권장 이유

생성형 AI의 사용을 ‘허용, 권장’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통역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10명(90.9%)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역 준비 시간 단축’이 7명(63.3%)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일반 임직원의 단순 번역 요청 감소시킴’, ‘통역사를 위한 게 아닌, 현업의 업무 용이성을 증대하기 위함’,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제가 속한 인하우스에서는 통역사가 PM 역할/회의 주도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에 AI 통역 도구를 활용해 회의 진행에 좀 더 집중하고 소통이 매끄럽지 않을 때만 통역사로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가 있었다.

(2) 프리랜서 통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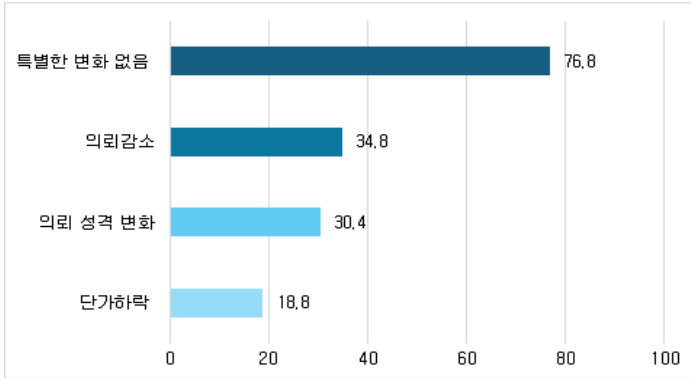


그림 4. 생성형 AI 등장 이후 통역 의뢰의 변화(프리랜서, 단위: %)

생성형 AI 등장 이후 통역 의뢰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그림 4),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은 ‘특별한 변화 없음’으로, 아직 생성형 AI가 프리랜서 통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지하는 통역사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뢰 감소’, ‘의뢰 성격 변화’와 함께 ‘단가 하락’ 등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일부 프리랜서 통역사들이 실제로 일자리 감소 및 단가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며, 프리랜서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업무 내용이나 역량이 변화하고 있음도 시사한다. 특히, 응답 중 통역 업무는 아니지만 ‘(프리랜서 영상번역) 회사 측에서 전체 공지를 통해 (마지막 단계에) 오타 점검을 위한 챗지피티 사용을 권고한 적이 있음’과 같은 구체적인 응답은 생성형 AI가 업무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1.3. AI 도구 사용 현황

다음은 통역사들의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관심도, 사용 현황, 활용 목적, 유용성 평가, 장단점 인식, 그리고 AI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생성형 AI 도구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1점: 전혀 없다 ~ 5점: 매우 많다)에 대한 응답 결과, ‘매우 많다(5점)’(57명, 52.3%)가 가장 많았고, ‘많다(4점)’(36명, 33.0%)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생성형 AI 도구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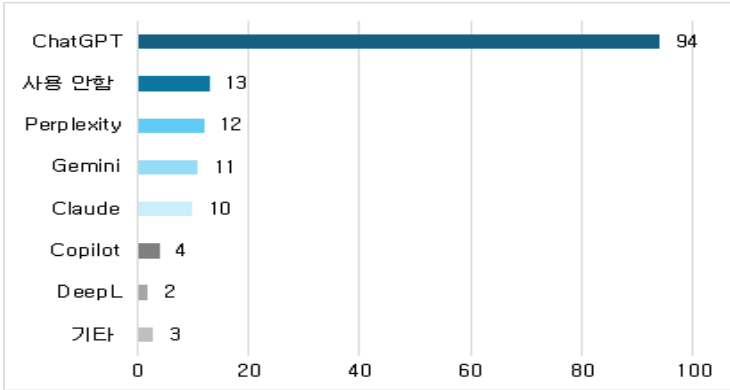


그림 5. 사용 중인 생성형 AI(단위: %)

사용하는 생성형 AI 도구(그림 5)로는 ‘ChatGPT’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Perplexity, Gemini, Claude, Copilot 등 다른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소수 확인되었다. 이는 ChatGPT가 응답 당시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성형 AI 도구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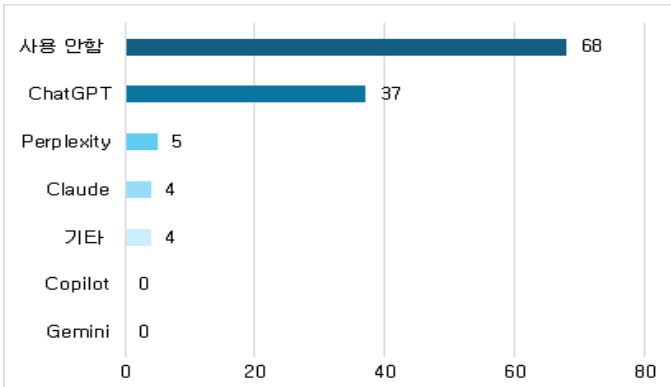


그림 6. 유료 사용 생성형 AI(단위: %)

유료로 사용하는 생성형 AI 도구(그림 6)로는 ChatGPT가 30% 조금 넘고 있었고, 대부분은 유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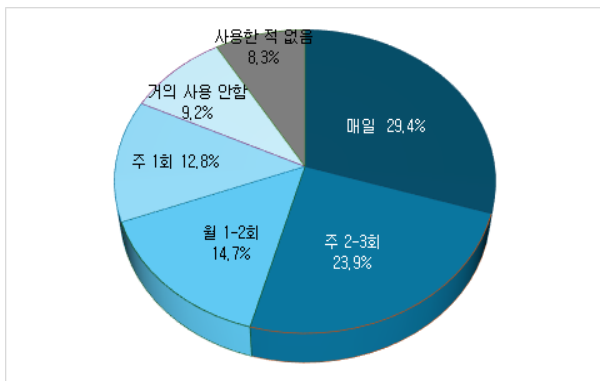


그림 7.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빈도(단위: %)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빈도(그림 7)는 ‘매일 사용’하는 경우가 30% 가까이 되었으며, ‘주2-3회’는 20%가 조금 넘어, 두 비율을 합하면 절반 이상은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생성형 AI 도구의 주된 사용 목적은 ‘통역 참고 자료 검색’(70명, 64.2%)과 ‘통역 자료 번역’(58명, 53.2%)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용어 정리’(31명, 28.4%), ‘통역 자료 생성’(27명, 24.8%) 등이 있었으며, 기타 ‘통역 배경지식 공부’, ‘번역 윤문’, ‘흐름이 길고 난해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자료의 register를 바꾸고 싶을 때’, ‘이메일 본문 수정’, ‘동의어, 개념 검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생성형 AI 도구가 통역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질문한 결과, ‘그렇다(4점)’가 46명 (42.2%)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5점)’가 36명(33.0%)으로 그 뒤를 이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생성형 AI 도구 등장 이후 통역 준비 방법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5점)’(38명, 34.95), ‘그렇다(4점)’(31명, 28.4%)의 순이었고,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으로 통역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는지는 ‘그렇다(4점)’(39명, 35.85), ‘매우 그렇다(5점)’(37명, 33.9%)의 순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이 통역사에게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통역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보통(3점)’(42명, 38.5%)이 가장 많았고, ‘그렇다(4점)’는 22.9%(25명), ‘매

우 그렇다(5점)’는 18.3%(20명)로 실력 향상에 대한 도움은 중간 정도의 평가가 많았다.

생성형 AI 도구 사용의 장점(복수 응답)은 ‘통역 준비 속도 향상’(84명, 77.1%), ‘번역 참고’(72명, 66.1%), ‘다양한 자료 생성’(60명, 55%), ‘전문 용어 정리’(43명, 39.4%) 등이 주로 꼽혔다. 한편, ‘부정확한 정보’(87명, 79.8%), ‘번역의 한계’(56명, 51.4%), ‘정보 보안’(51명, 46.8%), ‘과도한 의존’(45명, 41.3%) 등이 주요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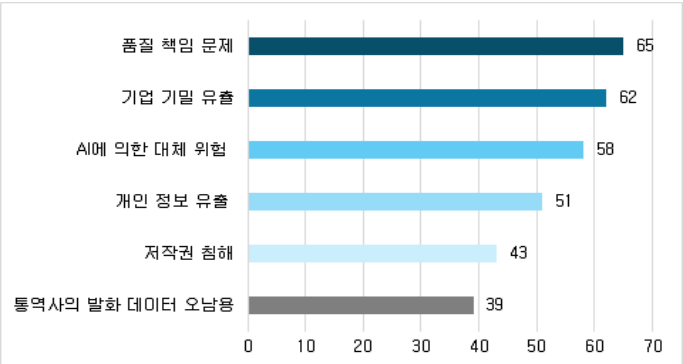


그림 8. 생성형 AI에 관해 우려되는 점(단위: %)

생성형 AI 도구 사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복수 응답)은 ‘품질 책임 문제’, ‘기업 기밀 유출’, ‘AI에 의한 대체 위험’,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통역사의 발화 데이터 오남용’ 순으로 다양한 우려 사항이 골고루 제기되었다(그림 8).

결론적으로, 통역사들은 생성형 AI 도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 기술의 한계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AI 통역 도구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이러한 장단점, 기대와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3.1.4. 음성자막 프로그램 사용

최근 통역 현장에서는 인간 통역사와 함께 스크린에는 통역 및 연사의 발화가 자막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통역사들의 경험과 반응을 살펴보겠다.

먼저, 통역 음성이 자막화(voice to text)되어 제공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81명(74.3%)은 ‘없다’, 28명(25.7%)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아직 통역 음성 자막화 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있다’라고 응답한 28명은 자막 품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그림 9)를 물어보았다(1점: 매우 좋지 않았다 ~ 5점: 매우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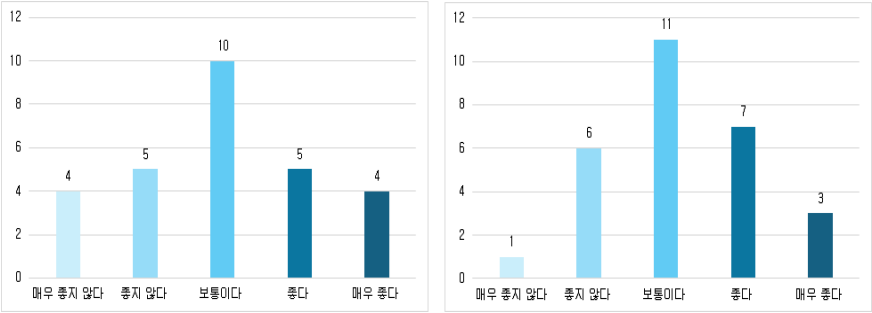


그림 9. 음성자막의 속도(좌)와 정확성(우)에 대한 평가(단위: 명)

속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매우 긍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인 평가는 적었다. 정확성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속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통역 음성이 자동으로 인식/기록될 때 의뢰인으로부터 사전 고지를 받고 계십니까?(기본적으로 voice to text를 의미하나 녹음 기록도 포함)’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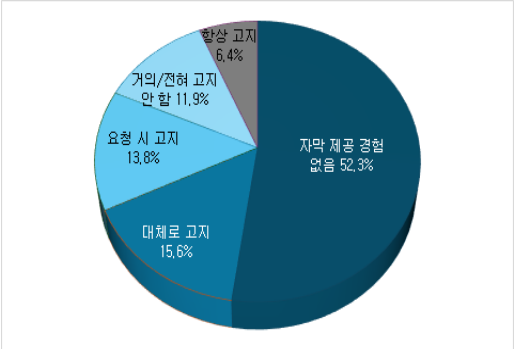


그림 10. 자막 제공에 대한 사전 고지

응답 결과 ‘대체로 고지’, ‘요청 시 고지’, ‘거의/전혀 고지 안 함’ 순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고지’는 7명(6.4%)에 불과했다. 이는 통역 음성기의 자동 기록 시 사전 고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의미하며,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어서 ‘AI가 통역사의 통역 발화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경우 예상되는 윤리적 문제(기본적으로 voice to text를 의미하나 녹음 기록도 포함)’에 대해 ‘무단 녹음’(91명, 83.5%), ‘인식 오류로 인한 발언 왜곡 가능성’(80명, 73.4%), ‘음성 정보 유출’(77명, 70.6%) 순으로 나타나, 통역사들은 AI 음성 기록과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통역 음성 자막화 기술은 아직 국내 국제회의에서 제공되는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며, 속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AI 음성 기록 활용 시 사전 고지, 정보 보안, 발언 왜곡 방지 등 통역사 입장에서 윤리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 질문 항목은 AI 자동 통역(기계 번역 자막) 사용 경험, 현장에서의 인식, 그리고 기계 번역 자막 제공에 대한 통역사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AI 자동 통역(기계 번역 자막)을 인간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 현장에서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69명(63.3%)은 ‘없다’, 40명(36.7%)은 ‘있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통역하는 현장에서 인간 통역과 AI 자동 통역(기계 번역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92명(84.4%)은 ‘없다’, 17명(15.6%)은 ‘있다’라고 응답해 통역하는 현장에서의 자동통역 제공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있다’라고 응답한 17명을 대상으로 AI 자동 통역(기계 번역 자막)이 제공될 때 자막 제공 속도와 정확성에 대해 리커트척도(1점: 매우 좋지 않았다 ~ 5점: 매우 좋았다)로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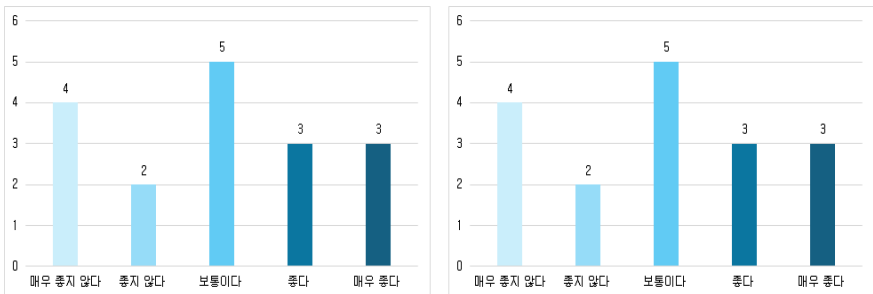


그림 11. AI 자동 통역(자막)의 속도(좌)와 정확성(우)에 대한 평가(단위: 명)

그림 11과 같이 속도와 정확성에 대한 평가 모두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매우 좋지 않았다(1점)’가 ‘보통(3점)’ 다음으로 높아 자동통역 자막 품질의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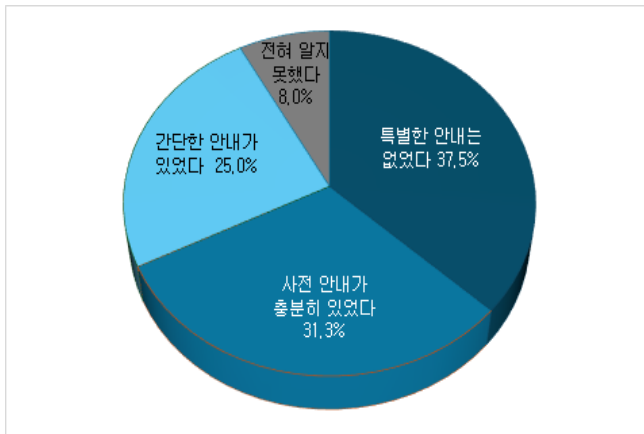


그림 12. 기계번역 자막 제공의 사전 고지

통역사에게 기계 번역 자막이 별도로 제공된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그림 12)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가 충분히 있었다’와 ‘간단한 안내가 있었다’가 절반 이상이긴 했으나, ‘특별한 안내는 없었다’가 6명(37.5%),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응답도 1명(6.2%) 확인되어 40% 이상이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만약 기계 번역 자막 제공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다면 통역 일을 계속 맡을지를 질문한 결과, ‘통역을 하되 추가 요금을 청구하겠다’가 51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통역 일을 계속 맡겠다’가 39명(35.8%), ‘통역 일을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19명(17.4%)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I 자동 통역은 아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인간 통역과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AI 자동 통역의 속도와 정확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중립적이었으며, 기계번역 자막 제공 시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계번역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 추가 요금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 통역사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통역사 입장에서 인간 통역과 자동통역 자막의 동시 제공은 통역사에 대한 신뢰성, 인지 부하, 기계번역 품질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3.1.5. 미래 전망과 대응

다음은 생성형 AI 통역 도구가 통역사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AI의 대체 가능성, AI 시대에 통역사에게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생성형 AI 도구가 통역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질문한 결과, ‘그렇다(4점)’가 39명(35.8%), ‘보통(3점)’이 30명(27.5%), ‘매우 그렇다(5점)’가 24명(22%) 순으로 나타나 많은 통역사가 생성형 AI 도구가 자신의 역할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향후 5년 내에 AI가 통역사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은 결과, ‘부분 대체’가 52명(47.7%), ‘상당 부분 대체’가 34명(31.2%), ‘미미한 대체’는 20명(18.3%), ‘대체 불가’는 2명(1.8%)이었으며 ‘완전 대체’는 1명(0.9%)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통역사는 AI가 향후 5년 내에 자신들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하우스와 프리랜서로 나누어 살펴보면(그림 13),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AI의 대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었는데, 특히 인하우스 통역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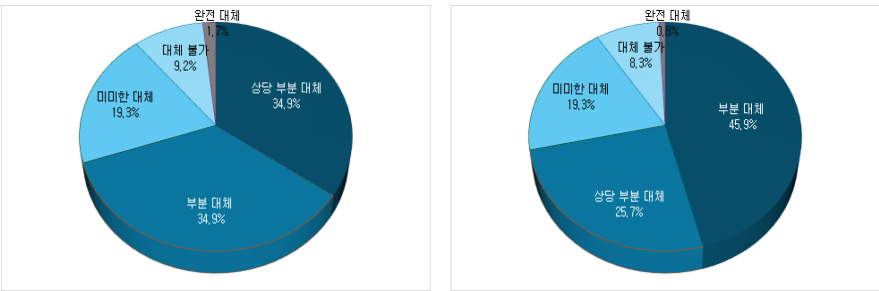


그림 13. 향후 5년 내 AI의 대체 가능성(인하우스(좌), 프리랜서(우))

AI로 대체되기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로는 ‘외교/협상’이 70명 (64.2%)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이 23명(2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섬세한 상황 판단 능력

을 요구하는 분야일수록 AI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법률, 의학, IT, 회계, 투자, 컨퍼런스콜, 이사회 등의 응답은 매우 적었으며, 전문 용어 위주의 분야에서 AI 대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I 시대에 통역사에게 필요한 역량(복수 응답)에 대한 응답은 그림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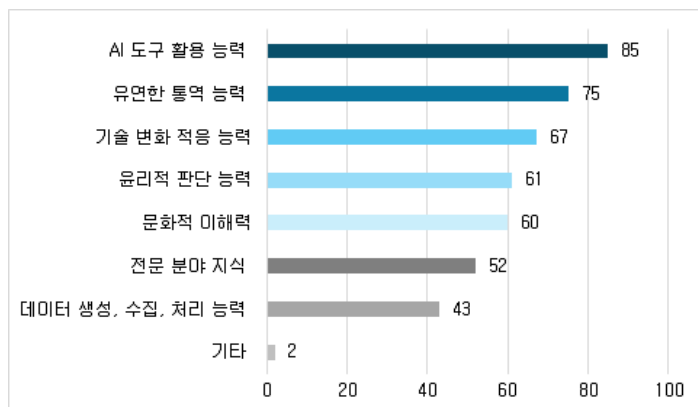


그림 14. AI 시대에 통역사에게 필요한 역량(단위: %)

가장 높았던 항목은 ‘AI 도구 활용 능력’과 연사의 스타일이나 주제의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통역 능력’, ‘기술 변화 적응 능력’이었고 ‘윤리적 판단 능력’과 ‘문화적 이해력’이 뒤를 이었다. 이는 AI 시대에 통역사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통역사들은 AI가 통역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3.1.6. AI 자동통역 툴의 전망

다음은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이 통역 산업에 미칠 영향, 통역사의 직업적 역할 변화,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AI 시대에 대한 기대와 준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향후 5년 내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이 통역 산업에 미칠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작업에 기본 도구가 될 것임’이 56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 도구로 남을 것임’이 35명(32.1%), ‘제한적 사용만 가능할 것임’이 18명(16.5%)으로 나타났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즉,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AI 자동 통역 툴이 향후 5년 내에 통역 산업의 기본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며,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고 준비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에 따라 통역사의 직업적 역할이 변화하는지(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렇다(4점)’가 50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5점)’가 25명(22.9%), ‘보통이다(3점)’가 18명(16.5%), ‘그렇지 않다(2점)’가 16명(14.7%)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통역사가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으로 인해 자신들의 직업적 역할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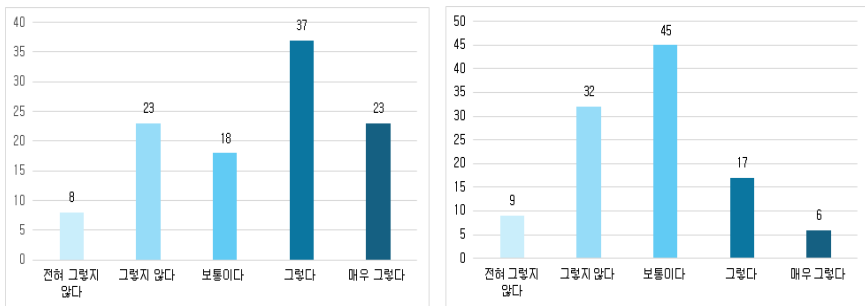


그림 15. AI 자동 통역의 발전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좌) 및 기대(우)(단위: 명)

그림 15 좌측의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에 따른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경우, ‘그렇다(4점)’와 ‘매우 그렇다(5점)’를 선택한 응답자 수가 과반수로,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으로 인한 직업 안정성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보통(3점)’ 이하의 수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일부 응답자들이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5 우측의 AI 시대 통역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1점: 매우 부정적 ~ 5점: 매우 긍정적)는 대체로 ‘중립적(3점)’ 또는 ‘다소 부정적(2점)’으로 나타나, 앞서

본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많은 통역사가 AI 기술의 발전이 자신들의 직업에 가져올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1.7. AI 시대를 대비한 준비와 교육/지원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통역사의 준비와 교육/지원에 대해 물었다. 먼저 AI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복수 응답)으로는 ‘전문 분야 심화’(42명, 38.5%), ‘AI/IT 교육’(40명, 36.7%), ‘업종 전환/확장’(39명, 35.8%)과 같이 여러 형태의 준비가 있는 반면, ‘특별한 준비 없음’도 41명(37.6%)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통역사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통역사들도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AI 시대에 대비하여 통번역사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교육(복수 응답)으로는 ‘생성형 AI 도구 활용 교육’이 86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 분야 교육’(51명, 46.8%), ‘윤리 가이드라인/법적 지식’(50명, 45.9%)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도구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75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저작권 보호 강화’(48.6%, 12명), ‘윤리 가이드라인’(48명, 55%), ‘AI 도구 접근성 개선’(42명, 38.5%),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32명, 29.4%) 순으로 나타났다. 즉, AI 관련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구가 가장 컸으며, 윤리와 저작권 측면에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들 응답 결과는 통역사들이 AI 시대에 대비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2. 상관분석: 설문 항목 간 상호 관계 검증

본항에서는 위 문항별 정리를 바탕으로 문항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조합으로 시도하여 본 결과, 통역 형태(인하우스와 프리랜서 여부)가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나 유료 AI의 사용 비율, 사용 빈도와는 크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는 AI 도구 사용 빈도, AI 시대를 대비한 준비 상황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먼저

AI 도구 사용 빈도와 네 가지 항목 간의 상관관계(표 4)이다.

표 4. AI 도구 사용 빈도와 관련된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

기준 항목	비교 항목	상관계수
AI 도구 사용 빈도	생성형 AI 도구가 통역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0.5202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통역 실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가	0.416
	생성형 AI 도구 사용으로 통역 준비 시간이 단축되는가	0.4082
	AI 자동통역 툴의 발전에 따라 통역사의 직업적 역할이 변화하는가	0.3062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로 보며, 표 4에 제시한 결과는 대체로 약-중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AI를 자주 사용할수록 AI가 통역 준비에 도움이 되며, 통역 준비 과정의 시간 단축, 통역 실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AI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AI자동 통역 툴의 발전에 따라 통역사의 직업적 역할이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 간에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AI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응답자 중에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에 따른 직업 안정성에 불안감’에 대해 ‘매우 불안(1점)’이나 ‘불안(2점)’을 선택한 비율(58.5%)이 특히 많았다.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해 ‘AI/IT’, ‘전문 분야 심화’, ‘업종 전환 및 확장’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한다고 한 응답자가 ‘AI 시대 통역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매우 부정(1점)’, ‘부정(2점)’의 비율보다 높았다. 그리고 ‘특별한 준비를 안 한다’라고 한 응답자 중에는 ‘매우 부정(1점)’ 혹은 ‘부정(2점)’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ADP 조사 기관(ADP Research Institute 2024)의 글로벌 노동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생성형 AI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직업 불안감이 낮고 AI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일수록 직업에 대한 불안이 높다고 했으며, 본 조사의 통역사들 답변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종합하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통역사들은 AI 시대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준비가 부족한 통역사일수록 불안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불과 2~3년 전만 해도 통역에서 AI 사용에 대한 논의의 범위는 기계번역이나 음성인식 정도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전하여 어느새 통역사 및 학생들에게 음성인식이나 기계번역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으며, 일상에서 당연하게 접하게 되는 도구일 뿐이다. 이제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되어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고 많은 것을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툴에 의존하게 되었다. 통역사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논문으로 발표되는 기간에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며, 그동안 사용자의 이용률과 인식도 빠르게 변화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이용자의 역량 강화와 윤리적인 지침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통역 현장에서 점차 AI 기술과 맞닥뜨려야 하는 통역사에 대한 인식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통역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국내 및 해외의 조사와 비교하면서 기술에 대한 통역사의 인식과 미래 전망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한 팬의 AIIC 회원을 포함한 통역사 대상 디지털 기술 활용의 대규모 설문조사 연구는 2023년 상반기에 이뤄졌으며, 태블릿, 디지털펜 등의 하드웨어와 용어 관리 도구, 음성인식, 기계번역에 대한 통역사의 인식 조사로, 생성형 AI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기술 전반에 대한 인식을 본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인터뷰 결과는 2장의 선행연구에서 정리했듯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의견과 거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은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음성인식 기능에 대해서는 통역의 자막화와 연사 발화의 기계번역 자막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사전 고지와 음성 유출, 번역 오류를 우려했다. 또한, AI 기술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통역사의 도구 활용 능력과 기술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핵심 역량으로 꼽았다. AI가 인간 통역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80% 가까이 되었으며, 팬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본고의 응답자들도 법률이나 외교 등은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보았다.

다음으로 챗GPT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다룬 2023년의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및 리바스와 무어킨스의 조사와 비교해 보겠다. 이들 조사의 약 2년 후가 되는 2025년의 본 연구에서 통역사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3%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6.2%가 챗GPT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한, 유료 사용자는 30%가 넘어, 상기 2023년도 조사에 비해 이용률은 2배 이상, 유료 사용자는 3배에서 6배 정도 늘었다. 이용 빈도도 70% 이상이 주 1회 이상은 사용한다고 응답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2년 전의 10~20%대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통역사 외의 일반 사용자의 증가 양상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성형 AI의 주된 사용 목적은 상기 조사의 분야별 활용성과 유사하며 자료 검색과 자료 생성, 번역 등이었다. 챗GPT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의 응답자들은 부정행위, 저작권 침해, 허위 정보 확산, 의존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 통역사들은 AI 통번역에 대해 통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가장 우려했고, AI의 대체 가능성,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가 뒤를 이었다. 2023년도와 2025년도 사이에 생성형 AI의 사용률, 사용 빈도, 사용하는 툴의 종류 등은 증가한 데 비해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성인식과 실시간 기계 자막에 대해 통역사들의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클라이언트 측의 인식 부족으로 통역 음성의 자막화나 기계통역 제공이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발언의 왜곡 가능성과 음성 정보 유출이라는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사 당시 통역사들의 음성인식에 대한 품질 평가는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생성형 AI의 빠른 발전으로 품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무단 녹음이나 녹음 기록의 유출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역사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르바스(Horváth 2022)는 AI 기반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심각한 윤리적 위험으로 데이터 편향, 데이터 품질,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 투명성을 든다. 통역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은 자동통역(자막) 제공의 위험성을 압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한 통역 자막인지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 품질도 보장하지 못한다. 다만, 때로 자막 좌측 하단에 “AI가 실시간 실시간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¹²⁾와 같은 문구가 최근 “AI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확인될 따름이며, 청중(시청자)은 그저 부정확성을 감안하고 서비스를 이용(시청)한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데이터 품질에 대한 책임은 불투명하다(Horváth 2022: 11).

이렇게 AI 자동통역이 곳곳에서 제공되기 시작하자, 여러 기관에서 자동통역(자막)에 대한 입장과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CSA 리서치에서 발행한 AI

12) 최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AI 동시통역이 제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BS 뉴스 2025).

자동통역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 측면(Pielmeier et al. 2025) 즉 ①효과에 대한 이해(AI 통역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효익 분석) ②의도했거나 혹은 의도치 않은 영향 고려 ③대안 옵션을 다각도로 비교 ④효과적 활용을 위해 준비 시 고려할 사항(예: 기술 장비 확보, AI 엔진 훈련 등) ⑤정확도, 유창성, 낱어, 자막 활용 등 통역에 대한 기대 정의 ⑥도입하려는 AI 통역 솔루션에 대한 기술 평가 등은 통역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FIT(국제번역가연맹)가 2024년 8월에 게시한 ‘통역에서의 AI 사용에 대한 입장 보고서’에 따르면(FIT-IFT, 2024) ‘인간 통역사를 감독 및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계통번역(machin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으로 대체하는 것에 확고히 반대하며 이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과 오류를 발생시키고, 전문 통번역사의 역할을 훼손한다’라고 되어 있다. AIIC(국제회의통역협회)도 2024년 11월에 자동 음성 번역(AST:automated speech translation) 데이터의 투명성과 편향, 오류 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문을 올렸다(AIIC 2024). 이렇듯 유력한 통번역사 관련 협회 차원에서 작년 하반기에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AI가 인간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역에 사용되는 음성인식, 번역 등의 기술(AI)은 통역사 입장에서는 인지부담을 줄이고 통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통역사를 찾기 어려운 언어쌍이나 비용, 지리적 위치 등의 문제로 통역을 사용하기 어려운 언어 소수 집단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비스 제공에 앞서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주의를 요하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올바른 기술 사용 방법을 교육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품질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ELIS Research 2024: 40). 또한 통역사에 대한 반복적 재교육(re-training)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다. KATI의 기술 교육 후 사후 설문(Jin et al. 2024)에 따르면 교육 뒤 기술 수용성은 8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도구 사용률은 절반 이하에 그쳐, 응답자의 90%가 추가 실습형 교육을 희망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과 혼란뿐 아니라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번역 학술 프로그램 및 전문 협회에서 LLM, 기계번역 및 기계 통역 리터러시의 개발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Orlando et al. 2024).

본 연구는 국내의 통역사에 한정된 조사로, 전 세계 모든 통역사의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연구가 대부분 아직

챗GPT와 같은 도구가 일상화되었다고는 하기 어려운 2023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져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 후 2년 사이에 생성형 AI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25년 시점에 본 연구가 진행된 점은 통역 실무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함과 동시에 윤리적 측면의 논의를 진행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AI가 인간에게 위협이나 대체가 아닌 인간 통역사의 능력을 한층 더 증강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AI 통번역의 윤리적 우려의 해소 및 AI와 인간 통역의 차이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운영 방안 탐색 등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아영. (2020). 「한·영 실시간 자동통역 시연 사례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18(2): 125-147.
- 남신혜. (2019). 「한국어 학습자의 온라인 기계번역 도구 사용 경험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초급 및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15(2): 55-81.
- 배문정. (2023). 「통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통역 모드 선호도 조사: 인간 통역, AI 통역, 자막 비교」. 『번역학연구』 24(3): 592-614.
- 송연석. (2024). 「AI 시대의 번역 교육 -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자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31-55.
- 양정애. (2023). 「ChatGPT 이용 경험 및 인식조사」. 『Media Issue』 9(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구용. (2024). 「출판시장에서의 AI 수용 양상 연구」. 『국제언어문학』 58: 201-225.
-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 이주리애. (2021a). 「자동음성인식의 통역 활용에 관한 예비연구」. 『인문사회21』 12(5): 2407-2422.
- 이주리애. (2021b). 「포스트에디팅의 번역사 수용에 관한 예비연구 - 한일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3): 109-140.
- 이주리애. (2022). 「순차통역 보조 툴로서 자동음성인식 사용성의 사례연구」. 『인문사회 21』 13(4): 937-952.
- 이준호. (2023). 「번역 기술의 학부 교육 적용 사례: 번역 기술 교육 당위성, 학습자 반응, 거시적 설계 함의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5(3): 21-46.
- 이지원. (2024). 「챗 GPT를 활용한 포스트에디팅 교육 수업 사례 연구: 중국인 대학원생 중한 번역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4(9): 613-624.
- 지윤주·이상빈·이선우. (2023). 「학부번역전공자의 챗GPT 관련 인식과 챗GPT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실험 연구」. 『통번역학연구』 27(3): 203-226.
- ADP Research Institute. (2024). People at Work 2024: A Global Workforce View. Retrieved from [https://www.adpresearch.com/assets/summary-of-people-at-work-2024-a-global-workforce-view/\(2025.2.2.검색\)](https://www.adpresearch.com/assets/summary-of-people-at-work-2024-a-global-workforce-view/(2025.2.2.검색)).
- Cheung, A. K. F. and Li, T. (2022). Machine-aided interpreting: An experiment of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ranslation Quarterly* 104: 1-20.
- Corpas Pastor, G., and Fern, L. M. (2016). A Survey of Interpreters' Need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echnical paper. Retrieved from [http://www.lexytrad.es/assets/Corpas-Fern-2016.pdf\(2025.2.2.검색\)](http://www.lexytrad.es/assets/Corpas-Fern-2016.pdf(2025.2.2.검색)).
- ELIS Research. (2024). European Language Industry Survey 2024: Trends, Expectations and Concerns of the European Language Industry. Retrieved from [https://elis-survey.org/wp-content/uploads/2024/03/ELIS-2024-Report.pdf\(2025.4.2.검색\)](https://elis-survey.org/wp-content/uploads/2024/03/ELIS-2024-Report.pdf(2025.4.2.검색)).
- Fan, D. C. (2024). Conference interpreters' technology readiness and perception of digital

- technologies. *Interpreting* 26(2): 178-200.
- Fantinuoli, C. (2023). Towards AI-enhanced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In Corpas Pastor, G. and B. Defrancq (eds.), *Interpreting Technologies: Current and Future Trend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46-71.
- Gieshoff, A. C., Schuler, M. and Jahany, Z. (2024). The augmented interpreter: An exploratory study of the usability of augmented-reality technology in interpreting. *Interpreting* 26(2): 282-315.
- Horváth, I. (2022). AI in interpreting: Ethical considera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23(1): 1-13.
- Jin, S., Lee, J. and Lee, J. (2024). What do interpreters expect of digital literacy training? A cas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Forum* 22(2): 206-228.
- Lee, J. (2024).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using speech-to-text transcription as a tool for interpreting. In Moratto, R. and H. O. Lim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Interpreting*. New York: Routledge, 387-412.
- Lee, J., Jin, S. and Lee, J. (2024). How are conference interpreters using technology before, during, and after interpreting? An analysis of Korea's case. *T&I Review* 14(1): 35-68.
- Li, T. and Chmiel, A. (2024). Automatic subtitles increase accuracy and decrease cognitive load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26(2): 253-281.
- Orlando, M., Liao, S. and Kruger, J. L. (2024).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the Industry*. Macquarie University.
- Pielmeier, H., Lommel, A. and Toon, A. (2025). *Perceptions on Automated Interpreting: Results of a Large-scale Study of End-users, Requestors, and Providers of Interpreting Services and Technology. Study Conducted on Behalf of the Interpreting SAFE-AI Task Force*. North Chelmsford, MA: CSA Research; 2024.
- Pöschhacker, F. and Liu, M. (2024). Interpreting technologized: Distance and assistance. *Interpreting* 26(2): 157-177.
- Prandi, B. (2023). *Computer-assisted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gnitive-experimental Study on Terminology*. Language Science Press.
- Rivas Ginel, M. I. and Moorkens, J. (2024). A year of ChatGPT: Translators' attitudes and degree of adoption. *Revista Tradumàtica* 22: 258-275.
- Wang, X. and Wang, C. (2019). Can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tools assist interpreting? *Translet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3: 109-139.

<인터넷 자료>

- 곽아람·김민정. (2023). AI는 번역가를 대체할까? “속도 빨라 가능” “문맥까진 안돼”.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3/04/17/IKAGULME3VE3TKB2KFFBSG5OVY/\(2025.3.2.검색\)](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3/04/17/IKAGULME3VE3TKB2KFFBSG5OVY/(2025.3.2.검색)).
- 김은영. (2025). “AI와 대화하는 일본, 정보 찾는 한국” 국가별 생성형 AI 활용법 차이 분석.
[https://aimatters.co.kr/news-report/ai-report/18756/\(2025.4.12.검색\)](https://aimatters.co.kr/news-report/ai-report/18756/(2025.4.12.검색)).
- 김현정. (2025). ‘지브리 스타일’에 놀란 챗GPT, 챗GPT에 화난 지브리-챗GPT-4o 기반 이미

- 지 생성 기술로 전 세계 ‘지브리 스타일’ 열풍 일어.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49?searchCategory=221&nscvrgSn=260147>(2025.4.12.검색).
- 손경호. (2017). 구글번역에는 어떤 비결 숨어있나.
<https://zdnet.co.kr/view/?no=20170302163740>(2025.3.2.검색).
- 이호준. (2025). AI에 밥그릇 뺏길줄 알았는데 ... 통번역 업계 “오히려 더 호황”.
<https://m.mk.co.kr/news/economy/11326952>(2025.5.26.검색).
- 임주형. (2024). [뉴 잡스] AI가 우리를 대체한다고?...코웃음치는 번역가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1315382492515>(2025.2.3.검색).
- 정호준. (2025). 챗GPT 이용자 5억명 넘었다...올해만 1.5억명 늘어.
<https://www.mk.co.kr/news/it/11280534>(2025.4.5.검색).
- 최선. (2025). 의학회도 본격적인 AI 시대...실시간 강의 번역 기본.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3338>(2025.5.1.검색).
- AIIC. (2024). Letter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Summit: Standards for AI interpreting tools.<https://members.aiic.org/company/roster/companyRosterDetails.html?companyId=13853&companyRosterId=118>(2025.3.2.검색).
- FIT-IFT. (2024). Position paper on the use of AI in interpreting.
https://library.fit-ift.org/legacy/PDP_202408_AI_EN.pdf(2025.3.15.검색).
- Interpreting. (2024). 26(2). <https://www.jbe-platform.com/content/journals/1569982x/26/2>(2025.2.3.검색).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CAI(Center for Augmented Interpretation).
<https://cai.uni-mainz.de/asr-prototype/>(2025.4.1.검색).
- SBS 뉴스. (2025). 아마존 카이퍼(Kuiper) 위성 첫 발사, ‘스페이스X’에 우주경쟁 도전장, AI 동시통역, SBS 실시간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spEP-4gdYuM>(2025.4.30.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9 May 2025; revised on 9 June 2025; and accepted on 16 June 2025.

Authors' email addresses

julietlee@ewha.ac.kr

juliajuyeonlee@naver.com

brandon4tni@cau.ac.kr

huhjiun@ewha.ac.kr

About the authors

Juriae Lee (first 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and technology.

Juyeon Lee (corresponding author) is a Professor at GSI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preter training and interpreter identity development.

Junho Lee (co-author)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GSIS of Chung Ang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machine transl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Jiun Huh (co-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pretation technologies, market trends, and interpreter training.

영한동시통역 수업에서 관찰되는 충실성과 유창성의 정량적 변화

- 두 학기 7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훈밀*

Hoonmil Kim (2025). A longitudinal study on quantitative changes in students' fidelity and fluency observed in English-Korean simultaneous classroom.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fidelity and fluency in English-Korean simultaneous interpreting among graduate students over two semesters. While average fidelity scores remained stable (61.7% to 62.8%), modest improvement was observed when adjusting for outlier performance (61.7% to 66.0%). Notably, lower-performing students showed significant gains, while higher performers plateaued, suggesting they had reached their performance ceiling by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Fluency, measured by speech rate, improved by over 15% (from 201 to 231 syllables per minute; to 241 spm excluding the outlier). However, disfluency markers increased, likely due to heightened anxiety during the higher-stakes graduation exam, with stronger effects among lower performers. Despite the small sample size (n = 7), the findings highlight meaningful improvements in fidelity and fluency, as well as group differences, offering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English-Korean simultaneous interpreting classe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Language Education)

Keywords: English-Korean simultaneous interpreting, fidelity, fluency, longitudinal study, Coh-Metrix T.E.R.A.

주제어: 영한동시통역, 충실성, 유창성, 종단 연구, 코메트릭스 T.E.R.A.

*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 통번역학과 부교수, 제1저자

1. 서론

동시통역은 통번역대학원에 개설된 과목 중 학습자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높은 인지적 부담과 복잡한 과업 수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동시통역은 청해, 분석, 기억, 재구성, 발화, 모니터링 등 다양한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다중처리 작업으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많은 난관을 경험한다. 동시통역 수행에 요구되는 큰 인지적 부담으로 인해 한때 동시통역 수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동시통역 수행이 실제 가능하다는 점은 입증되었다(Gerver 1974; Chernov 1979).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여전히 동시통역이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복잡한 과업이며, 인지적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도전적인 활동임을 시사한다(Moser 1978; Gile 1995; Moser-Mercer 2000).

지금까지 동시통역 연구는 주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공적인 통역사가 사용하는 전략, 학습자와 전문통역사 간의 차이, 청취자의 평가 기준 등을 탐구하며 동시통역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이 교육 현장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론, 평가 체계, 교육 목표 수립을 위한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동시통역 교육에 기여한 바는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대부분은 횡적 연구로 학생들 또는 전문통역사들의 동시통역 수행 현황을 스냅샷으로 살펴보고 분석한 연구로 2~3학기에 걸쳐 형성되는 동시통역 수행 능력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동시통역 수행 능력이 한순간이 아닌 2~3학기 또는 그 이상 기간의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이라면 학생들의 동시통역 수행 능력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시통역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의 동시통역 수행 능력의 변화를 영한 동시통역 수업 두 학기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통역 수행 능력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학습자들이 수행한 동시통역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여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동시통역 결과물의 분석 지표로는 많은 연구에서 동시통역 능력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 ‘충실성(fidelity)’과 ‘유창성(fluency)’을 선정하였다. 학습자들의 영한동시통역 충실성과 유창성의 변화는 정량적 변화와 정성적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변화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한동시통역 첫 학기와 둘째 학기를 거치며 학습자들의 충실성과 유창성이 얼마나 변화(향상)하는

지 파악하여 동시통역 수업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길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통번역대학원생들의 영한동시통역 충실성은 두 학기 수업을 거치며 얼마만큼 향상되는가?
2. 국내 통번역대학원생들의 영한동시통역 유창성은 두 학기 수업을 거치며 얼마만큼 향상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충실성(fidelity)

통역 품질 평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으로 정확성(accuracy), 명확성(clarity), 충실성(fidelity)이 있다(Pöchhacker 2001: 413). 이들 기준은 통역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평가 항목으로 사용되며 학습을 통해 암묵적으로 통역 평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왔고(최문선 2018) 현재에도 통역 품질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기준은 초기에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되었다. 뵐러(Bühler 1986)는 40명의 국제회의 통역사와 7명의 국제회의 통역사협회 위원을 대상으로 9개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평가 항목은 원문 내용과의 동질성, 논리적 통일성, 완벽한 정보 전달, 적절한 형식, 올바른 어휘 구사, 유창성, 올바른 문법, 원어민 수준의 발음,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이 중 ‘원문 내용과의 동일성(sense consistency with the original message)’과 ‘논리적 통일성(logical cohesion)’이 가장 중요한 항목 1, 2위로 뽑혔다. 보다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뵐러의 항목에 ‘생기 있는 억양(lively intonation)’과 ‘동시성(synchronicity)’을 추가하여 1,111명의 통역사를 대상으로 중요도를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원문과의 동일성’과 ‘논리적 통일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Zwischenberger 2010).

국내 통역 품질 기준에 연구에서 정철자(2012)는 통번역대학원 교수들이 학습자들의 순차통역 평가에 적용한 기준을 분석하여 평가자 모두 ‘정확성과 충실성’)

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헌일(2019)은 42명의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수행한 통역 평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문 내용과의 동일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총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반면, 유창성, 억양, 발음 등 전달력 관련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박헌일이 사용한 ‘원문 내용과의 동일성’은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충실성(fidelity)과 개념적으로 유사한데 ‘충실성’을 포이하커(Pöschhacker 2004)는 ‘통역사가 원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질(Gile 2009)은 ‘발화자의 의도를 왜곡 없이 반영하는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면 충실성은 출발어의 의미와 의도를 도착어로 정확히 옮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동시통역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충실성은 통역 품질의 핵심 기준임이 드러났다. 이태형(2014, 2015)의 연구는 비전문가의 통역에서 긴 휴지기와 원문 내용 누락이 빈번히 나타남을 보고했고, 이를 통해 충실성이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통역 평가에 있어 통역사뿐 아니라 청중의 관점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중의 통역 품질평가에 주목하였다. 최문선(2018)은 TV 생방송 동시통역에 대한 77명의 일반 시청자 평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충실성과 목표어 언어 품질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혔다. 이는 청중 유형과 관계없이 충실성이 통역 품질평가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통역에 있어 충실성은 통역의 품질을 정하는 가장 핵심 기준임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통역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여겨지는 유창성 조차 ‘원문 내용과의 동일성’ 다음으로 중요한 통역 품질평가 기준으로 인식되는 점(Kurz 1993, 정철자 2012에서 재인용)을 고려할 때, 통역사의 통역 능력을 가장 잘 대표하는 기준은 충실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수행한 통역 결과물의 충실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통역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수행한 동시통역 결과물의 충실성 향상 정도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동시통역 능력의 발달 과정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철자의 논문에서는 ‘정확성과 충실성’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제시되지 않지만, 문맥상 두 개념이 결합되어 커츠(Kurz 1993)의 ‘원문 내용과의 동일성’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2.2. 유창성(fluency)

레논(Lennon 2000: 26)은 유창성을 ‘실시간 정보처리라는 시간적 제약하에서 생각이나 소통 의도를 빠르고, 중단없이 정확하고, 명쾌하고, 효율적으로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유창성은 발화 숙달도(oral proficiency)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Park 2016: 1, 최문선 2018에서 재인용), 통역 결과물의 품질 평가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이며(Lee 2008: 173), 통역 품질평가 기준 중 정확성과 충실성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이다(Kurz 1993, 정철자 2012에서 재인용).

유창성 관련 지표로 미드(Mead 2005)는 발화 속도(speech rate), 휴지 길이(duration of pauses), 발화율(phonation/time ratio, PTR), 조음 속도(articulation rate) 등을 선정하여 통역의 유창성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제공하였다. 반면 래너트(Rennert 2010)는 유창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는 요소에 주목하여 휴지(pause), 숨소리(audible breathing), 머뭇거림(hesitation), 장음화(lengthening), 잘못된 문장 시작(false start), 수정(repairs), 반복(repitition) 등의 비유창성 지표를 유창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의 지표들 이외의 다양한 지표를 유창성 표지로 사용한 연구도 있다. 마르텔리니(Martellini 2013)는 억양과 강세, 리듬이 조합된 운율(prosody)에 주목하여 기존의 유창성 지표인 발화 속도, 휴지, 음절 늘리기에 ‘억양 및 톤 단위(intonation and tone units)’를 유창성 지표에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서 유창성 지표로 사용된 위의 여러 항목 중 유창성 평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연구도 있다. 한(Han 2015)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9개의 주요 유창성 항목을 대상으로 32명의 전문통역사의 통역물에 대해 전문가가 평가한 유창성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단계별 판별 분석(Stepwise Dominant Analysis)을 시행한 결과 9개의 항목 중 발화율(PTR)과 발화 속도(SR)²⁾가 유창성 점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유창성 핵심 지표로 나타났다. 린 외(Lin et al 2018)는 학생통역사 22명의 영중, 중영 동시통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5개의 비유창성 지표의 빈도를 종속변수로 통역사의 언어숙달, 작업기억, 통역 방향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역사의 작업기억

2) 발화율은 말하는 데 소비한 시간과 휴지의 비율을 지칭하며, 발화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발화한 단어 또는 음절의 개수를 시간으로 나누어 분당 음절수(spm) 또는 분당 단어수(wpm) 등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이 통역 방향에 상관없이 통역 결과물의 유창성에 가장 큰 영향(50-51%)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 위의 두 연구 결과는 발화율, 발화 속도, 작업기억이 동시통역 유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역사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말하면 통역 훈련자의 발화율, 발화 속도, 작업기억 개선이 통역의 유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창성 관련 국내 연구로는 최문선(2015)의 통역대학원 재학생의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의 비유창성 비교 연구가 있다. 통역 방식(mode)에 따른 비유창성 양상을 비교한 결과 동시통역의 발화가 순차통역 보다 빠르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동시통역의 발화 속도가 더 느린 것을 발견하였고 대학원생들의 경우 순차통역보다 동시통역의 유창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하며 동시통역이 순차통역에 비해 습득하기 더 어려운 기술임을 추론하였다.

이민(2016)은 전공학생들의 한중, 중한 순차통역의 유창성을 비교하여 통역의 방향성이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휴지, 수정, 반복의 횟수를 비교한 결과 휴지와 수정은 통역 방향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반복의 경우에만 중한 방향이 한중 방향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통역 방향성이 유창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모국어로 통역하는 것이 외국어로 통역하는 것보다 꼭 유창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문선(2018)은 유창성에 대한 후속 연구로 통역사 전문성에 따른 유창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와 초보자가 동일한 원문을 동시통역한 통역 결과물을 비교하였다. 속도와 연속성을 유창성에 대한 핵심 요소로 보고 통역물의 분당 발화 음절 수(spm), 무음휴지, 발성휴지(장음화, 망설임 표지), 수정, 반복, 도치 등을 분석 항목으로 삼았다. 각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 전문가의 발화속도는 300spm, 초보자의 발화속도는 241spm을 기록해 두 집단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무음휴지의 빈도에서는 전문가(38.5회)가 초보자(70.5회)의 절반 정도를 보였으나 평균 휴지의 길이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약 2초 정도의 휴지는 동시통역의 고유 특성으로 보았다. 발성휴지 항목에서는 초보자 집단이 전문가 집단보다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사용된 간투사의 유형에 있어 두 집단은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는데 초보자 집단이 ‘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데 비해 전문가 집단은 ‘이런’, ‘그런’ 등 지시어로도 사용되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유창성을 덜 저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볼 수 있듯 학계에 유창성 지표에 대해 합의된 목록이 도출

되어 있진 않으나 유창성 평가의 지표로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로 발화 속도와 머뭇거림(망설임 표지)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화속도와 망설임 표지를 유창성 지표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참가자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3학기 재학생들의 첫 학기 영한동시통역 수업 중 치러진 기말고사 데이터와 동일한 학습자들이 6개월 이후 4학기 말 졸업을 앞두고 치른 영한동시통역 종합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첫 학기 (3학기) 영한동시통역 수업에 교수자로 참여하였고, 4학기 말 치러진 영한동시통역 종합시험에는 평가자로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4학기 영한동시통역 수업은 연구자가 아닌 다른 교수자가 담당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3학기 영한동시통역 수업에서 치러진 기말고사와 4학기 말 시행된 종합시험의 영한동시통역 시험의 1) 원천텍스트(ST), 2) 1)을 동시통역한 학습자들의 통역녹취파일, 3) 2)의 녹취 파일을 토대로 작성한 통역 전사본과 4) 3학기 4학기 영한동시통역 강의 실라부스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는 남자 2명과 여자 5명으로 총 7명이며, 이들의 모국어는 모두 한국어이고, 모두 3학기 수업 이전에 동시통역을 배우거나 수행한 경험이 없었다. 아래 표 1은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이다.

표 1. 참가자 기본 정보

기본 정보	학 1	학 2	학 3	학 4	학 5	학 6	학 7
성별	여	남	여	여	남	여	여
연령대	30 대	30 대	50 대	30 대	30 대	30 대	40 대
동시통역 경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학기 영한동시통역 수업은 주 1회, 연속 90분간 진행되었으며, 8주차와 15주차에 각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였다. 첫 학기 동시통역 수업인만큼 수업

1~2주 차에는 동시통역 관련 기초 이론, 숫자 세기 훈련 등 기본 과정을 다루었고, 3~4주 차에는 학습자들의 취미 등 비전문적이고 격식성이 낮은 텍스트를 ST로 사용하였다. 5주 차부터는 다소 전문적인 주제의 연설문을 사용하되 문장 구조와 어휘 수준이 평이한 자료를 느린 속도(100 wpm 이하)로 읽었으며, 7주 차부터는 난이도 쉬운 연설문을 다소 느린 속도(110 wpm 이하)로 읽었다.

4학기 동시통역 수업은 3학기과 동일하게 주 1회, 연속 90분의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업 실라부스를 볼 때 주차별 ST의 난이도 차등은 ST의 주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보이며(상대적으로 덜 익숙하고 더 전문적인 내용을 학기 말에 배치)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면서 실제 통역 상황에서 접할만한 텍스트를 선정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번역 수업 대부분이 교수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운영되며(곽중철과 권상미, 2015)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의 영한동시통역 수업 분석 결과 학기별 수업 활동은 큰 변화 없이 지속하며 주로 원천 텍스트의 주제 및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업의 난이도가 조정되어 진행된다(곽중철과 권상미 2015)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3학기 및 4학기 영한동시통역 수업은 곽중철 외의 연구에서 기술한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일반적인 동시통역 수업의 범주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학습자들의 첫 학기(3학기) 영한동시통역 수업 중 치러진 기말고사 동시통역 결과물과 동일한 학습자들이 6개월 이후 둘째 학기(4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치른 영한동시통역 종합시험의 동시통역 결과물이다. 3학기 기말고사에 사용된 ST는 2024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케냐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의 일부로 기후 위기 가운데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 협력이 주제이며³⁾ 4학기 말 종합시험에 사용된 ST는 2024년 개최된 아랍·이슬람 특별 정상회담(Extraordinary Arab-Islamic Summit) 중 요르단 국왕의 연설로 중동지역의 갈등 및 해결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⁴⁾. 두 연사는 비슷한 정도의 가벼운 외국어 역량을 구사하였고 두 시험 모두 연사의 원 연설 오디오를 그대로 통역에 사용하였다. 두 ST의 주요 성격과 특성은 아래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3) <https://www.youtube.com/watch?v=x95SLbIgwfo>(2024.06.11.검색).

4) <https://www.youtube.com/watch?v=JdFd1Q4CBUk>(2024.11.20.검색).

표 2. 분석에 사용된 ST의 성격과 특성

	기말고사 ST	종합시험 ST
총 단어수	358	431
총 TU (Translation Unit)	41	67
내용	케냐와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상황 및 한국-케냐 간 협력 분야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해결 촉구

ST의 난이도는 통역 결과물의 품질 및 통역 평가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Campbell and Hale 2003) 위의 두 ST의 연구 사용 적합성 판단 및 연구 분석 결과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해 두 ST의 난이도를 측정하였다. 난이도 측정을 위해서는 언어학, 외국어 교육, 글쓰기 교육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텍스트 가독성 측정 도구인 플래시 킨케이드 학년 분석(Kincaid et al. 1975)과 코메트릭스 T.E.R.A. 분석 툴(McNamara et al. 2014)을 사용하여 두 ST의 가독성을 측정하였고, 가독성과 더불어 ST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알려진 ST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동시통역 ST의 가독성 및 속도 비교

분석 툴 및 항목	3 학기 기말고사 ST	4 학기 종합시험 ST
플래시-킨케이드 학년 분석	12 학년	11 학년
T.E.R.A. 서사성 (narrativity)	34%	34%
T.E.R.A. 통사적 단순성 (syntactic simplicity)	14%	45%
T.E.R.A. 어휘 구체성 (word concreteness)	39%	79%
T.E.R.A. 지시적 응집성 (referential cohesion)	51%	23%
T.E.R.A. 심층 응집성 (deep cohesion)	56%	23%
속도 (word per minute)	91.8 wpm	109.6 wpm

두 평가에 사용된 ST의 가독성 측정 결과 코메트릭스 T.E.R.A.의 5가지 지표

중 서사성은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통사 구조와 어휘 수준은 3학기 기말고사의 난도가 높고 응집성 두 항목은 4학기 종합시험의 난도가 높게 나왔다. 텍스트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하여 가독성을 평가한 플래시-킨케이드 학년 분석에서는 ST의 난이도가 각각 12학년과 11학년으로 나와 3학기 기말고사 ST의 가독성이 4학기 종합시험보다 소폭 높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두 ST의 연설 속도에서는 분당 발화된 단어 수가 약 92단어 대 110단어로 20%가량 차이를 보였다. 영한동시통역에서 원천 스피치의 속도와 동시통역 결과물 품질 간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동시통역 시 원천 스피치의 속도가 증가하면 동시통역의 누락 및 오역이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를 고려할 때(Gerver 1969), ST 속도 20% 차이는 플래시-킨케이드 학년 분석의 11학년 vs. 12학년의 차이를 최소한 상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두 ST의 가독성과 속도를 종합하여 4학기 종합시험 ST의 난이도가 3학기 기말고사 ST 난이도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두 시점에서 관찰되는 충실성과 유창성의 향상(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으므로 연구 설계의 최소 요건을 4학기 종합시험 ST의 난이도가 3학기 기말고사 ST의 난이도와 ‘같거나 높을 것’으로 보았다. 두 ST의 난이도가 ‘동일할 것’이 아닌 4학기의 난이도가 3학기보다 ‘같거나 높을 것’으로 조건을 적용한 이유는 현재 학계 내 ST의 난이도 측정 및 ‘동일한 난이도’에 대한 통일된 정의와 기준이 없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코메트릭스 T.E.R.A.에서 보듯 텍스트의 가독성 및 난이도는 다양한 텍스트의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작용하므로 난이도 비교에 있어 다소 광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말고사와 종합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학습자의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을 수집하였고 이후 텍스트 변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각 학습자의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원본 음성파일과 비교하여 오류 수정 과정을 거쳐 통역 전사본을 완성하였다.

3.2. 자료 코딩 및 분석

3.2.1. 충실성 분석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말 종합시험의 ST를 각각 통역 단위(TU, Translation Unit)별로 나누고 각 TU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TU는 통역사가 하나의 의미 단위

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원천어 요소로, 단어나 구, 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통역의 분절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의미 단위(meaning unit)와 비슷한 개념으로 의미 단위란 통역사가 부담 없이 인지 및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의미한다. 일부 연구자는 의미 단위를 5-7 단어(방교영 2003)로 또 일부 연구자는 최대 7-8 단어로(Seleskovitch and Lederer 1989) 정의하였으나 의미 단위의 길이는 통역사의 재량적 선택이다. 본 연구에서 TU는 충실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단어 수 기준이 아닌 ST의 의미적 분절 구간과 연사의 발화 시간을 고려하여 동시통역 시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처리하기 적합한 텍스트 구간(분절 단위)을 하나의 TU로 정의하였다.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 ST를 TU 단위로 구분한 예시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ST의 통역 단위(TU) 예시

문장	TU	3 학기 기말고사 ST	문장	TU	4 학기 종합시험 ST
1	1	Over the past few months,	1	1	This summit is taking place at a time the region is experiencing a tragedy
	2	my country Kenya and the weather in East African region		2	that cannot be tolerated,
	3	have endured flood levels never seen before		3	one that requires immediate action to end it.
	4	which resulted in devastating destruction.	2	4	Over a year has passed since Israel launched its war on Gaza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 ST를 TU 단위로 쪼개어 세로축에 기입하고 가로축에는 해당 TU에 대한 각 학습자의 통역 전사본을 기입하여 코딩 도표를 작성하였다. 그 후 각 TU 단위 별로 각 학습자의 통역 녹취본과 전사본을 토대로 원문의 내용과 의도가 90% 이상 전달되었으면 1점, 50%-90% 사이로 전달되었으면 0.5점, 50% 미만으로 전달되었거나 오역되었으면 0점을 부여하여 충실성을 분석하였다.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동료 교수자에게 3학기 기말고사 ST의 약 30%에 해당하는 분량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후 연구자와 동료 교수자 두

사람의 충실성 점수를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의수준 0.05에서 두 평가자 간 강한 양의 상관관계($r=.76$, $p<0.01$)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한 수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여 3학기 기말고사의 나머지 코딩은 동일한 기준으로 연구자가 단독 진행하였다. 4학기 종합시험은 연구자를 포함한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하였고, 두 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피어슨 상관 계수는 $r=0.83$ 로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p<0.01$). 본 연구에서는 3학기 기말고사 평가와의 최대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평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학기 기말고사 및 4학기 종합시험 동시통역 결과물에 대해 학습자별 TU별 충실성 분석을 완료한 후 각 학습자의 TU별 충실성 점수를 합산한 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학습자별 산출한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의 충실성 백분율 차이를 충실성의 정량적 변화로 보았다. TU 단위를 이용한 3학기 기말고사 충실성 분석 코딩의 예시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TU를 이용한 충실성 코딩 예시

문 장	TU	3 학기 ST	학1	학2	학3	학4	학5	학6	학7
1	1	Over the past few months,	지난 몇 달 간	지난 몇 달 간	지난 몇 달 동안	몇 개 월 동안	지난 몇 년 간	지난 수 개 월간	지난 몇 달 동안
		1	1	1	1	1	0	1	1
	2	my country Kenya and the weather in East African region	제 고국인 케냐와 동아프리카 지역은	저희 국가인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케냐와 동아프리카의 날씨	저의 나라 케냐와 아프리카 지역은	저희 나라 케냐와 아프리카는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저의 조국인 케냐의 기후가
		1	1	1	1	1	1	0.5	0.5
	3	have endured flood levels never seen	그 전엔 본적 없	전례 없는 수치를	전에 없던 홍수를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	직면한 적 없던 위	날씨가 매우 절망적	저희 정책의 우선순

		before.	는 홍 수를 견뎠습 니다	봤습니 다	겪었습 니다	니다	힘을 겪었습 니다	이었습 니다	위었습 니다
		1	1	0	1	1	0.5	0	0
중 략	중 략	중략							
18	41	And it lends credit to our push towards renewable energy.	이것은 재생에너지를 향해 더욱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나의 투입을 많이 늘렸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성취하는데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견인했습니다	이 투자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추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	1	1	0	0.5	1	0	0.5
		충실성 (%)	86.6	53.6	69.5	75.6	70.7	35.4	40.2

3.2.1. 유창성 분석

선행연구에서 유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 항목은 많으나 그중 학습자의 유창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자 학습자의 유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발화율, 발화속도, 작업기억(Han 2015; Lin et al 2018)에 주목하였다. 이 중 작업기억은 린 외의 연구 및 대부분의 인지과학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테스트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동시통역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작업기억을 측정한 연구 사례를 찾지 못해 본 연구에서는 측정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양한 유창성 지표 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발화 속도를 유창성 대표 지표로 삼았다. 발화 속도의 측정은 선행연구(이태형 2013; 최문선 2015)에서 사용한 분당 음절 수(spm)를 사용하였다.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 각각에 대해 각 학습자별 통역 결과물의 총 음절수를 전사본을 기준으로 MS Word의 단어 개수 기능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공백 제외 문자수). 그 후 총 음절수를 각 학습자의 통역 녹취파일의 총 통역 시간(초)으로 나눈 후 60을 곱하여 분당 음절수를 구하였다. 3학기 기말고사의 분당 음절수와 4학기 종합시험의 분당

음절수의 차이를 발화속도의 차이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유창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 간투사, 수정, 반복의 빈도를 측정하여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 간 차이를 측정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충실성의 변화

3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학습자들의 통역 충실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61.7%의 충실성 백분율을 기록하였다.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86.6%와 35.4%로 무려 51.2% 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해 학습자 간 큰 편차가 있음이 나타났다. 4학기 종합 시험에 대한 충실성 백분율은 평균 62.8%를 기록하여 3학기 평균인 61.7%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점과 최저점 간 차이는 34.9% 포인트로(최고 78.3% vs. 최저 43.4%) 최고점과 최저점 간 편차가 3학기 기말고사 때의 51.2% 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준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충실성 변화를 살펴보면 7명의 학습자 중 2명은 3학기 기말고사보다 4학기 종합시험에서 충실성 백분율이 향상되었고(각각 8%p, 22.9%p), 2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각각 -0.2%p, 1%p) 3명은 충실성 백분위가 하락하였다(-5.5%p, -8.3%p, -10.2%p). 충실성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학습자는 22.9%p의 향상을 기록하였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학습자는 -10.2%p의 하락을 보였다. 학습자별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의 통역 충실성 백분율과 상승/하락 폭은 아래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표 6. 3학기과 4학기의 충실성 변화

	학 1	학 2	학 3	학 4	학 5	학 6	학 7	평균
3 학기 (%)	86.6	53.6	69.5	75.6	70.7	35.4	40.2	61.7
4 학기 (%)	78.3	43.4	69.3	70.1	71.7	58.3	48.2	62.8
이상치 제외	78.3	null	69.3	70.1	71.7	58.3	48.2	66.0
차이(% p) (이상치 제외)	-8.3	-10.2	-0.2	-5.5	+1.0	+22.9	+8.0	+1.1 (+4.3)

위의 충실성 변화를 해석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ST의 난이도 분석에서 4학기 종합시험 ST의 난이도는 가독성 및 속도를 기준으로 볼 때 3학기 기말고사 ST의 난이도에 비해 최소한 같거나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위의 충실성 변화가 보수적으로 측정된 수치임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둘째,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학2의 경우 자기 보고를 통해 4학기 종합시험 시 감기로 인한 심한 컨디션 난조를 겪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유창성 지표에서도 7명 중 유일하게 3학기에 비해 하락한 수치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이상치(outlier)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점이다. 학2를 이상치(outlier)로 보아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학습자 집단의 평균 충실성 백분율은 61.7%에서 66.0%로 약 4.3%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주목할 점은 개별 학습자를 살펴볼 때 중상위 수행자들(학1, 학3, 학4, 학5)의 충실성 백분율은 3학기과 비교해 4학기에 대체로 비슷한 반면, 하위 수행자들(학6, 학7)은 충실성 백분율이 큰 폭으로 향상된 점이다(각 22.9%, 8%). 이는 영한동시통역 수업에 두 학기 참여할 경우 중상위 수행자들은 첫 학기 말에 이미 충실성이 어느 정도 고점(peak)에 도달하며, 두 번째 학기에는 충실성에 있어서는 큰 향상을 기록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하위 수행자들의 경우 두 학기에 걸쳐 꾸준히 점진적으로 충실성 백분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하위 수행자들의 충실성이 두 학기에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는 하나 두 번째 학기 말의 충실성 백분율이 60%를 넘지 못해 여전히 중상위 수행자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4.2. 유창성의 변화

4.2.1. 발화 속도의 변화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 간 발화 속도의 변화는 아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3학과 4학기의 발화 속도 변화

	학 1	학 2	학 3	학 4	학 5	학 6	학 7	평균
3 학기 (spm)	243	193	188	211	201	139	230	201
4 학기 (spm)	280	171	244	234	214	217	257	231
이상치 제외	280	null	244	234	214	217	257	241
차이 (이상치 제외)	+37	-22	+56	+23	+13	+78	+27	+30 (+40)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 간 전체 학습자의 발화 속도는 평균 201spm에서 231spm으로 15% 이상 향상되었고 학습자별 발화 속도도 7명 중 6명이 향상을 기록하였다. 두 기간 동안 유일하게 발화 속도가 떨어진 학2의 경우 충실성 분석에서 언급한 대로 이상치(outlier)로 판단되며 학2를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학습자 전체의 평균 발화 속도는 39spm 향상된 241spm을 기록하였다. 발화 속도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78 spm) 학 6의 경우 3학기 기말고사 수행에서는 많은 누락이 있었고 그로 인해 평균 발화 속도가 매우 느리게 산출되었는데 4학기 종합시험에서는 누락이 많이 감소해 큰 폭의 발화 속도 증가를 기록하였다.

4.2.2. 간투사, 수정, 반복의 변화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 간 간투사, 수정, 반복의 변화는 아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3학기와 4학기의 간투사, 수정, 반복의 변화

	학 1	학 2	학 3	학 4	학 5	학 6	학 7	평균
간투사(회)	0	1	12	5	8	5	8	13
수정(회)	5	2	4	6	2	2	5	
반복(회)	2	0	12	4	4	1	3	
(3 학기 합)	7	3	28	15	14	8	16	
간투사(회)	1	2	12	9	14	14	26	18
수정(회)	1	4	7	6	0	7	5	
반복(회)	2	0	10	1	2	1	2	
(4 학기 합)	4	6	29	16	16	22	33	
차이(회)	-3	+3	+1	+1	+2	+14	+17	+6

두 학기에 걸친 동시통역 수업을 통해 간투사, 수정, 반복 등의 머뭇거림 지표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명 중 6명에게서 빈도가 증가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수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의 특성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3학기 기말고사에 비해 종합시험은 학생들의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고부담 시험(high-stake exam)이며 따라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긴장도가 3학기 기말고사에 비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머뭇거림 지표의 증가를 유창성의 악화로 해석하기보다는 종합시험의 특수상황이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켜 머뭇거림 지표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위 수행자들에 비해 하위 수행자들의 머뭇거림 표지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대목이다. 상위 수행자들은 종합시험 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하위 수행자들은 종합시험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상위 수행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긴장감을 느껴 머뭇거림 표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습자들의 긴장감과 심리적 불안감이 동시통역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시사하며 교수자들은 수업 진행 및 평가 시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가 통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원 학습자들의 영한동시통역 충실성 및 유창성을 각각 3학기 말과 4학기 말에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학습자들의 통역 수행 능력이 학기 진행에 따라 어떠한 변화(향상)를 보이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충실성에 대한 분석 결과,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치러진 3학기 기말고사와 4학기 종합시험 간 학습자들의 평균 충실성 백분율은 각각 61.7%와 62.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치(outlier)를 제외하면 4학기 종합시험의 충실성은 66.0%를 기록해 소폭의 증가치(4.3%)를 기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ST의 난이도 측정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증가치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보다 주목할 점은 학습자 수준별 충실성의 변화인데 3학기 기말고사에서 하위권이었던 학습자들은 4학기 종합시험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충실성 향상을 보인 반면 상위권 학습자들은 정체를 보였다. 이는 상위권 학습자들의 경우 동시통역 수업 첫 학기 말에 본인의 충실성 고점(peak)에 이미 도달하였음을 시사한다. 반면, 하위권 학습자들은 두 번째 학기를 거치며 충실성에서 꾸준히 향상을 기록하여 학생들의 수준별로 충실성 향상 속도가 차이 남을 드러냈다. 다만 하위권 학습자들은 두 번째 학기에 큰 폭의 향상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상위권 학생들의 충실성보다 낮은 충실성을 기록하였다. 이에 이들 하위권 학습자가 영한동시통역 수업에 3학기 참여할 경우 충실성이 추가 향상으로 이어질지, 향상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향상될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유창성 변화에서는 학습자의 평균 발화 속도가 201spm에서 231spm으로 15% 이상의 큰 폭의 향상을 기록하였다. 이상치(outlier)를 제외할 경우 4학기 말 평균 발화 속도는 241spm을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최문선(2018)이 보고한 초보자 집단(통번역대학원생)의 발화 속도와 같은 수치로, 본 연구의 모집단이 적은 수이긴 하나 다른 통번역대학원생 집단과 크게 다른 집단은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유창성의 또 다른 지표인 간투사, 수정, 반복의 머뭇거림의 경우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학습자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3학기 기말고사보다 4학기 종합시험의 중요도가 높아 학습자들이 높은 긴장감 아래서 동시통역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위 수행자들의 머뭇거림 지표 증가 폭이 상위 수행자에 비해 컸는데 이는 종합시험 탈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하위 수

행자들이 동시통역 수행에 있어 상위 수행자에 비해 겪는 이중고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7명이라는 적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 그에 따른 한계를 가지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원생들의 영한 동시통역 충실성과 유창성의 계량화를 통해 두 학기에 걸쳐 관찰되는 충실성과 유창성의 정량적 변화를 측정하고자 시도한 실증적 연구로 학습자들의 동시통역 수행력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영한동시통역 수업에서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 간 드러나는 변화/향상의 양상을 조명하여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영한동시통역 충실성이 각기 다른 속도로 향상됨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습자들의 동시통역 발달 과정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각 그룹에 적합한 훈련과 교육 과정의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원 학습자들의 영한동시통역 수행력 발달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여 향후 수업 설계 및 지도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중철·권상미. (2015). 「통번역대학원의 영한 동시통역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 교과분석과 학습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4): 1-23.
- 권상미. (2014). 「한영 동시통역 교육에 있어 의미기반 통역 훈련의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문장 서두의 전회(shift) 훈련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1-23.
- 박헌일. (2019). 「전문 통번역사의 통역품질 평가 연구: 인식도 조사와 평가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2): 55-86.
- 박혜경. (2006). 「국내 통역대학원 교육방법론의 재고(再考) - 1학기 순차통역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8(2): 61-77.
- 방교영. (2003). 「접속사문의 문장구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7: 107-123.
- 이민. (2016). 「통역의 방향성이 도착어 비유창성에 미친 영향: 중한, 한중 순차통역을 사례로」. 『통번역학연구』 20(1): 49-67.
- 이태형. (2001). 「영한동시통역의 생략 오류 연구」. 『번역학연구』 2(1): 7-27.
- 이태형. (2013). 「영어 한국어간 순차통역의 시간적 양상」. 『통역과 번역』 15(2): 191-213.
- 이태형. (2014). 「비전문가에 의한 스튜디오 생방송 동시통역」. 『통역과 번역』 16(3): 147-167.
- 이태형. (2015). 「국제부 기자의 TV 생방송 영한 동시통역」. 『통역과 번역』 17(3): 139-167.
- 정철자. (2012). 「통역 평가 비교가능성: 교육상황에서의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16(2): 219-239.
- 최문선. (2012). 「통역 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47-276.
- 최문선. (2015).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 양상 분석」. 『통역과 번역』 17(1): 177-207.
- 최문선. (2018). 「TV통역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생방송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6(3): 195-224.
- Bühler, H. (1986). Linguistic (semantic) and extralinguistic (pragmatic)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interpreters. *Multilingua* 5(4): 231-235.
- Campbell, S. and Hale, S. (2003) Translation & interpreting assessment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measurement. In G. Anderman & M. Rogers (eds.), *Translation Today: Trends and Perspectives*. Clevedon (pp. 205-224). *Multilingual Matters*.
- Chernov, V. (1979). Semantic aspects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Language and Speech* 22(3): 277-295.
- Gerver, D. (1969). The effects of source language presentation rate on the performance of simultaneous conference interpreters. In *Proceedings of the 2nd Louisville Conference on Rate and/or Frequency Controlled Speech*. University of Louisville, 162-184.
- Gerver, D. (1974). Simultaneous listening and speaking and retention of pros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6(3): 337-341.
- Gile, D.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Revised Edi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n, C. (2015). (Para)linguistic correlates of perceived fluency in English-to-Chines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iterature & Translation Studies* 3(4): 32-37.
- Hild, A. (2011). Effects of linguistic complexity on expert processing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Alvstad, C., A. Hild & E. Tiselius (eds.),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Integrative Approache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49-267.
- Jiang, X. and Jiang, Y. (2020). Effect of dependency of source text on disfluencies in interpreting. *Lingua* 243: 1-8.
- Kincaid, J.P., Fishburne, R.P., Rogers, R.L. and Chissom, B.S. (1975). *Derivation of New Readability Formulas (Automated Readability Index, Fog Count and Flesch Reading Ease Formula) for Navy Enlisted Personnel*. Research Branch Report 8-75, Technical Report Research Branch Report, Millington, TN: Naval Technical Training. Memphis, TN: US Naval Air Station.
- Kurz, I. (1993). Conference Interpretation: Expectation of different user group. *The Interpreters' Newsletter* 5: 13-21.
- Lee, J. (2008). Rating scales for interpreting performance assessment. *Interpreter Translator Trainer* 2: 165-184.
- Lennon, P. (2000). The lexical element in spoken second language fluency. In H. Riggenbach (ed.), *Perspectives on fluen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5-42.
- Lin, Y., Lv, Q. and Liang, J. (2018). Predicting Fluency With Language Proficiency, Working Memory, and Directionality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Frontiers in Psychology* 9: 1543.
- Liu, M. and Chiu, Y. H. (2009). Assessing source material difficulty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Qualifiable measures and holistic judgment. *Interpreting* 11(2): 244-266.
- Liu, M., Schallert, D. L. and Carroll, P. J. (2004). Working memory and expertise. *Interpreting* 6(1): 19-42.
- Martellini, S. (2013). Prosod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ase Study for the German-Italian Language Pair,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61-79.
- McNamara, D. S., Graesser, A. C., McCarthy, P. M., and Cai, Z. (2014). *Automated Evaluation of Text and Discourse with Coh-Metri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ad, P. (2005).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interpreters' fluenc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3: 39-63.
- Moser, B. (1978).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Hypothetical Model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In: Gerver, D., Sinaiko, H.W. (eds.),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NATO Conference Series, vol 6. Springer, Boston, 353-368.
- Moser-Mercer, B. (2000). Simultaneous interpreting: Cognitive potential and limitations. *Interpreting* 5(2): 83-94.
- Nida, 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Brill.
- Park, S. (2016). Measuring fluency: Temporal variables and pausing patterns in L2 English speech. Ph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Pöschhacker, F. (2001). Quality assessment in conference and community interpreting. *Meta* 46(2): 401-425.
- Pöschhacker, F.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Interpreting* 6(2): 243-248.
- Rennert, S. (2010). The impact of fluency on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interpreting qualit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5: 101-115.
- Seleskovitch, D., and Lederer, M. (1989). *Pédagogie Raisonnée de L'interprétation*. Paris: Didier érudition.
- Zwischenberger, C. (2010). Quality criteria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n international vs. a national view.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5: 127-142.

This paper was received on 9 May 2025; revised on 9 June 2025; and accepted on 16 June 2025.

Authors' email address

hoonmilk@igse.ac.kr

About the author

Hoonmil Kim (first 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Dept. at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Language Education (IGSE).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ssessment, pedagogy, and teaching methodology.

게임 자막과 더빙의 비속어 번역 연구*

- <사이버펑크 2077>을 중심으로 -

김민서** · 조성은***

Minseo Kim and Sung-Eun Cho (2025). Subtitling and Dubbing of Swearwords in Game Localization: A case study of Cyberpunk 2077. The rapid expansion of the global gaming industry necessitates a closer examination of game localization for the Korean market. The Korean translation of profanity in Cyberpunk 2077 has sparked significant discussion, particularly concerning the intentional amplification of swearword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plores Valdeón's (2020) vulgarization hypothesis, which asserts that translated texts often intensify profanity. By focusing on the subtitling and dubbing of Cyberpunk 2077, the analysis clearly demonstrates how swearwords are translated into Korean,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instances of intensification and addition. The research goes beyond textual analysis by incorporating valuable insights from interviews with localization directors and voice actors, as well as user feedback from online communiti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linguistic and contextual complexities involved in translating profanity, addressing a crucial gap in the study of expletive translation in video gam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Game localization, subtitling, dubbing, swearwords, Cyberpunk 2077

주제어: 게임현지화, 자막, 더빙, 욕설, 사이버펑크 2077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과정생. 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서론

게임 산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현지화(localization)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화의 완성도가 게임의 흥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게임 개발사들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정교하고 전략적인 현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언어적 특성과 유저들의 취향 및 선호도를 세심하게 반영한 번역과 콘텐츠 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몰입감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현지화는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코드와 기술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조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 그리고 마케팅 및 수익화 모델에 이르기까지 게임 전반에 걸친 다층적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지화 전략의 중심에는 번역이 핵심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번역의 질은 게임 콘텐츠의 문화적 수용성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임 번역 연구의 선구자인 베르날-메리노(Bernal-Merino 2011: 1)는 “게임 산업의 성공은 비디오게임 현지화라는 전문 분야의 성공 서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게임 산업 성장에서 고품질 현지화가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일찍이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게임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해외 주요 게임사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이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게임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하고, 현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고비용,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트리플 A(AAA) 게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게임사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언어적 정밀성과 문화적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현지화 전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이용자와의 친밀도와 몰입도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게임의 글로벌화 및 시장 확장 추세에 따라, 게임사 내부의 현지화 전담 팀과 외부 전문 번역 업체들이 수행하는 자막 번역 및 음성 더빙 작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게임 산업의 경우, 자막 번역과 더빙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세대 간 인식 격차가 큰 데다, 해외 게임의 수입 및 서비스화 과정에서 국가

기관 차원의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게임 콘텐츠 전반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감시 또한 강한 편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히 게임 속 비속어 및 욕설의 번역은 오랫동안 검열 또는 삭제 권고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엄격주의적 태도에서 이탈한 사례들이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사이버펑크 2077(Cyberpunk 2077)>은 비속어와 욕설이 원문 그대로 번역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어 번역된 점에서 논란과 동시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흥미롭게도, 일부 이용자들은 이러한 번역 방식이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과거 <GTA 5>나 <레드 데드 리DEMPTION> 이후 보기 드문 긍정적 수용 사례로 기록되었다.

과거에는 해외 영화와 마찬가지로 게임 번역에서도 비속어와 욕설이 강하게 제재되거나 완곡화되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검열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게임에서는 자막 번역과 더빙 과정에서 비속어와 욕설이 명시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시리즈의 최신작과 <위쳐 3(The Witcher 3: Wild Hunt)> 등의 게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수용 태도 변화와 함께, 현지화 전략에 대한 게임사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욕설(swearwords) 및 비속어 번역에 대한 번역학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주로 영상번역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ruti and Vignozzi 2024; Guillot 2023; Lu 2024; Jiang and Doherty 2024). 이러한 연구들은 욕설의 문화적 수용성, 장르별 전략, 수위 조절 방식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해 왔다 (Abdelaal and Al Sarhani 2021; Abu-Rayyash et al. 2023; Valdeón 2020, 202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욕설 번역 연구의 주요 논의 틀이 게임 번역이라는 상호작용적이고 복합적인 매체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발데온(Valdeón 2020)이 스페인어 영상번역을 분석하여 제안한 ‘저속화 가설(vulgarization hypothesis)’이 게임 현지화, 특히 게임의 자막 및 더빙 과정에서의 욕설 번역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저속화 가설은 원문보다 수위가 높은 욕설이나 비속어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문화적 수용성, 번역 규범, 미디어 장르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설이 상호작용적이며 다매체적인 장르인 게임에도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사

례 분석을 통해 탐색하며, 특히 <사이버펑크 2077>의 자막 번역과 더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판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어떻게 비검열적으로 혹은 강화된 형태로 번역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게임 더빙의 수용 양상과 이용자 반응을 함께 고찰하고자, 현저화에 참여한 제작사 디렉터 및 더빙 성우의 인터뷰 자료와 함께, 게임 커뮤니티 및 유저 게시판에 나타난 실제 이용자 반응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게임이라는 특수한 매체 환경에서 욕설 번역이 어떻게 수위 조정되고 의미화되는지를 텍스트 내부의 번역 전략뿐 아니라 외부의 수용 환경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간 한국 번역학계에서 영화 외 콘텐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욕설 번역 문제에 대해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며, 게임이라는 특수한 매체 환경에서 욕설이 어떤 번역 전략을 통해 구현되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게임 번역에서의 욕설 및 비속어 처리에 대한 새로운 번역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선행 연구

2.1. 비속어와 욕설 관련 연구

비속어(slang and vulgar language)는 일반적으로 비어(卑語)와 속어(俗語)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는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의 저속함과 공격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이선영(2015)은 비어를 특정 대상을 폄하하거나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로, 속어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사회적으로 품위가 낮거나 저속하다고 여겨지는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비속어의 하위 개념으로 욕설(swearing)은 분노, 멸시, 실망, 흥분 등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정의되며(Díaz Cintas and Remael 2020), 종종 금기어(taboo words)를 포함한다.

금기어는 특정 문화나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회피되거나 암묵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표현으로, 이러한 언어는 최근 ‘금칙어’ 또는 ‘금지어’라는 명칭으로 재분류되는 경향이 있다(Allan and Burridge 2006; 네이버 사전 참조). 이 범주에는 명

시적인 욱설뿐 아니라 완곡어법을 사용한 언어 및 변형한 언어도 포함되며,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표현 방식이 조정되곤 한다.

비속어와 욱설은 그 저속성과 공격성 때문에 수용자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콘텐츠 내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현실감을 높이며, 유머나 극적 긴장을 조성하는 메타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담화 전략으로 간주된다(전지현 외 2017). 이에 따라 욱설 번역에는 원문이 의도하는 바를 최대한 전달하는 ‘충실성(fidelity)’과 수용자가 얼마나 번역문을 쉽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 사이의 균형이 요구되며, 번역자는 화용적 맥락과 문화적 수용성 모두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김동미 외 2023). 제이(Jay 1992) 또한 비속어와 욱설의 번역에서 이러한 두 요소가 모두 결여될 경우, 이는 해당 언어 현상에 대한 번역자의 이론적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며, 그 결과 대화의 의미 왜곡이나 오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속어와 욱설의 번역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들은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등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비속어가 단순한 비하 표현을 넘어 인물의 성격 묘사, 감정 전달, 현실감 부여 등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이가현 2022; 박명수 2018; 전지현 외 2017; 한미선 2012). 이에 따라 번역자는 문화적 조정과 언어적 수용성 사이의 균형 속에서 다양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 다양한 플랫폼의 확산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의 일상화로 인해 일반 대중 또한 번역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속어와 욱설 번역에 대한 수용자 반응 역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가희와 박윤희 2013). 이러한 수용자의 반응은 단순한 언어적 선호를 넘어, 번역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문화적 수용성의 재조정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 관심의 대상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전통적 영상 매체를 넘어 게임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 내 욱설 및 비속어 번역 역시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며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욱설 번역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이론적 진전은 발테온(2020)이 제안한 ‘저속화 가설’이다. 그는 영어에서 스페인어로의 영상번역 사례를 분석하며, 욱설 및 금기어가 원문보다 더욱 저속한 표현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욕설 번역과 관련된 해외 연구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영상물 중심으로, 영화나 TV 시리즈, 팬번역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Ameri and Ghazizadeh 2015; Fernández Dobao 2006; Al-Zgoul and Al-Salman 2022; Bednarek 2019; Abu-Rayyash et al. 2023), 게임 번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게임이라는 상호작용적이고 다매체적인 장르에 대한 욕설 번역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동미 외(2023)가 <더 위쳐 3>의 영한 번역과 <러브 딜리버리(Love Delivery)>의 한영 번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대체’, ‘삽입’, ‘추가’, ‘생략’, ‘삭제’라는 전략 범주를 설정하고 게임 자막 내 욕설 번역의 실제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 게임 욕설 번역에 대한 대표적 실증 연구로 평가된다. 반면 원호혁 외(2020)는 영어 비속어 번역의 순화 전략을 간략히 언급하였으나, 게임 번역을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해외 학계에서도 게임 욕설의 번역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문 편이며, 그중에서 <파이널 판타지 VII(Final Fantasy VII)>의 스페인어 번역에서 검열된 욕설이 캐릭터 표현의 약화로 이어진 사례(Lóciga Latorre 2020)와 태국 공포 게임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의 자막에 욕설이 생략되지 않았다고 분석한 페름푼 외(Permpoon et al. 2024)의 논문을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결국 기존 연구는 전통적인 영상번역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게임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인 글로벌 유통과 현지화 대상이 된 매체에서는 욕설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게임 내 욕설 번역이 언어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수용성과 상호작용성이라는 게임 고유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영상번역 중심 연구 흐름을 넘어, 위에서 언급한 발데온(2020)의 ‘저속화 가설’을 게임 자막번역이라는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영역에 확장 적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골적인 욕설이 화제가 되었던 <사이버펄크 2077> 게임 내 비속어 및 욕설이 번역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위 조정되며, 해당 전략이 수용자 반응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게임 번역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과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2.2. 발데온의 ‘저속화 가설’

본 연구는 비속어 및 욕설의 자막번역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발데온(2020,

2024)이 제안한 '저속화 가설'을 이론적 분석틀로 채택하였다. 이 가설은 영상번역, 특히 더빙 번역 과정에서 원문보다 더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 목표어에 첨가되는 경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욕설 번역의 전략적 양상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실제 연구에서 영어 TV 시리즈의 스페인어 더빙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욕설 관련 발화의 53.1%가 ‘추가’나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수위가 상승한 반면, 수위가 낮아지거나 생략된 경우는 13.9%에 불과하였다(Valdeón 2020). 2024년에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 그는 이러한 경향이 장르나 등장인물의 성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Valdeón 2024). 지앙과 도허티(Jiang and Doherty 2024)의 중국어 팬자막 연구나, 이탈리아와 스페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 더빙 욕설의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도(Pavesi and Zamora 2022)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어 욕설 번역의 저속화 경향이 특정 언어권이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발데온은 저속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추가, 강화, 대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1. 발데온의 저속화 전략 분류

① 욕설의 추가 (addition)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욕설을 삽입하는 방식
② 욕설의 강화 (intensification)	원문보다 정서적 강도가 더 높은 욕설로 변환하는 방식
③ 욕설로 대체 (replacement by swearwords)	중립적이거나 완곡한 표현을 보다 저속한 표현으로 치환하는 방식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전략 분류를 바탕으로 게임 자막 내 욕설 관련 예시를 추출하고, 각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대체’의 경우, 보다 저속한 표현으로의 치환 또한 정서적 강도가 높은 표현으로 강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강화’로 통일한다. 따라서 욕설이 원문보다 ‘강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게임 자막번역에서 저속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실제 해당 게임의 현지화 작업에 참여한 로컬라이제이션 디렉터 및 더빙 성우의 인터뷰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욕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치환되거나 변형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표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

에서 어떠한 창의적 또는 비검열적 전략이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당 인터뷰 분석은 텍스트 기반 분석이 담아내지 못하는 제작 현장의 번역·더빙 결정 요인을 보완하고, 실무적 현실과 수용자 반응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기여한다.

3. 연구 결과

3.1. <사이버펑크 207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이버펑크 2077>은 폴란드의 게임사 CDPR(CD Projekt Red)에서 2020년 발매한 대규모 오픈월드 게임이다. 이 게임은 가상의 미래 기술을 의미하는 ‘cyber-’와 디스토피아적인 현실과 불안정한 사회를 의미하는 ‘punk’와 결합된 ‘사이버펑크’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Cavallaro 2000). 이 개념은 기존의 올리버 헉슬리, 조지 오웰 등이 제시한 디스토피아 세계를 바탕으로 SF적 요소를 강조한 필립 K. 딕, 새뮤얼 딜레이니, 윌리엄 김슨 등의 작가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Hollinger 1990). 이를 기반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 등의 영화가 제작되고 본 게임의 모태가 된 마이크 폰드스미스의 <사이버펑크> 보드게임이 등장하는 등 본격적인 ‘사이버펑크’의 미디어화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래 기술의 지배로 인간성이 상실된 암울한 미래를 그린 ‘사이버펑크’ 장르는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Hollinger 1999; Nixon 1992; Sponsler 1992).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술의 범람으로 인한 인간의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 환경오염과 사회·정치적 갈등, 포스트휴머니즘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동시에 발전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면서 ‘사이버펑크’ 장르가 미디어에서 주류적으로 다뤄지는 주제가 되었다(Dyens 2000; Den Tandt 2013; McFarlane et al. 2019; Armstrong 2021; McFarlane 2021; Bordallo López and Álvarez Casado, 2025).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사이버펑크 2077>은 분열된 미국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초거대 기업, 미래 기술, 반란 세력들이 장악한 디스토피아 세계를 다룬 게임이다. 게임의 주제 상, 초거대 기업의 횡포, 반란 세력 간 전투, 그 사이에 미래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배후 세력 등이 다뤄지면서 거칠고 위험하면서 역동적인 인

물 관계와 언어가 작용한다. 기업은 적이 될 수 있는 무법자와 반란 세력을 잠재우고자 철저하고 소시오패스적인 인재와 군벌을 이용하고, 노마드는 기업에 대항하고자 밀수, 무기 거래, 반란 계획 등의 거친 인생을 살아간다. 한편 도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평범한 삶을 살거나, 불법적인 사이버웨어 및 신체개조를 업으로 하거나, 마약, 도박, 미디어 자극에 빠져있기도 하며, 갱단에 들어가 사회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게임에 나타나는 NPC나 주요 인물들은 부적절하거나 거친 언행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게임은 주제의식과 게임에서의 현실성과 재미, 실감나는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속어와 욕설이 나타나는 자막 및 자막번역이 적용되어 있다.

3.2. <사이버펄크 2077>의 자막번역 분석

자막 번역 사례 분석 대상은 <사이버펄크 2077> 게임의 세 가지 ‘인생 경로(부랑아, 노마드, 기업의 노예)’ 중 프롤로그 구간(약 20~30분 분량)에서 등장하는 자막 대사 및 시퀀스 일부이다. 본 게임은 상호작용적 스토리텔링 구조로 인해 선택지에 따라 대사가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므로, 원문(ST)에 해당하는 게임플레이 영상과 공략 웹사이트의 스크립트를 참고하고, 번역문(TT)은 공식 한국어 자막이 포함된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양측 자막을 병렬로 구성하였다. 원문과 번역문은 모두 수작업으로 전사되었으며, 비속어와 욕설이 포함된 대사에서 발데온의 저속화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사만을 다시 추출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적으로 비속어 및 욕설 포함 ST의 대사 및 시퀀스 수는 ‘부랑아’의 경우 4개, ‘노마드’의 경우 9개, ‘기업의 노예’의 경우 9개로 나타났다. 한편, TT에서는 ‘부랑아’의 경우 16개, ‘노마드’의 경우 10개, ‘기업의 노예’의 경우 10개로 나타났다. TT의 단어 수로는 대사를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인물 단어를 포함해, ‘부랑아’의 경우 1517단어 중 150단어, ‘노마드’의 경우 1324단어 중 120단어, ‘기업의 노예’의 경우 1424단어 중 140단어로 나타났다.

자막 추출 과정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사 시 발생하는 게임 내 특수 효과나 행동 묘사 등은 괄호()로, 텍스트 효과 또는 외국어 삽입 후 번역이 병기되는 경우는 대괄호[]로 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막 번역 데이터는 발데온의 저속화 전략 중 욕설의 추가와 욕설의 강화 전략이 주로 발견되어, 추가된 예시와 강화된 예시를 병렬 비교하여 의미 및 수위 차이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

을 수행하였다.

3.2.1. 욕설의 추가

텍스트 분석 결과 다음의 예시들과 같이, <사이버펑크 2077>의 비속어와 욕설 자막번역에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목표어에 욕설 표현을 새롭게 삽입하는 욕설의 추가 양상이 나타났다.

<예시 1>

[ST]

Kirk: What, he too shy to hand over the eddies himself? Ah, tell him I don't bite.
Not yet.

[TT]

커크: 뭐야, 쪽팔려서 돈 주러도 못 오겠대? 좆도 병신 같은 게.

예시 1의 ST는 비속어나 욕설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TT의 경우 “Ah, tell him I don't bite”가 ‘좆도 병신 같은 게’로 번역되어 비속어나 욕설이 새로 추가되었다. “I don't bite”는 예사적으로 번역될 때 ‘채촉 안 해’, ‘안 해쳐’로 번역되지만, ‘커크’의 돈에 대한 깐깐한 태도와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경향, 그리고 커크와 돈을 빌린 사람 간의 상하 관계를 고려해 욕설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 2>

[ST]

V: What, man, never heard of thieves' honor? Finders keepers? I was first.

[TT]

V: 좆까 시발! 먼저 찍은 놈이 임자지. 내가 먼저 왔거든.

예시 2의 경우, 주인공 V가 먼저 차를 탈취했으나 다른 사람(주인공과 처음으로 대면한 채키)이 차로 다가와 V에게 차에서 내리라 협박하는 장면에서 나온 자막이다. ST의 경우 비속어나 욕설이 쓰이지 않은 한편, TT에서는 “What” 부분에 강한 부정과 불쾌함을 나타내는 “좆까 시발!”이 추가되었다.

<예시 3>

[ST]

Sheriff: Ain't buyin' it. Nomads always stick to their packs.

[TT]

보안관: 개소리하지 마. 니들은 맨날 떼거리로 몰려다니잖아.

주인공 V가 노마드 떼거리 없이 혼자 다닌다고 말하자 노마드에 강한 불신을 가진 보안관이 하는 대사이다. 이 예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T에는 비속어나 욕설이 없지만, TT에서는 ‘개소리’가 추가되었다. ‘Ain't buyin' it’은 ‘믿지 못하겠다’, ‘신뢰할 수 없다’의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부정적인 비속어 중 ‘개소리’를 번역에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시 4>

[ST]

- (Combat happens) <No commentary>

[TT]

(전투가 벌어진 상황.) 재키: 야이, 씨발! / 팍 잡아! 놈들을 따돌려야 돼! / 꺼져라, 줌! / 거 씨발 졸라 따라오네!

예시 4의 경우 게임 플레이어가 직접 무기를 조준해 뒤쫓아 오는 적과 드론 등을 요격하는 중에 발생하는 대사다. ST에서는 전투 중에 어떠한 대사와 자막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게임의 전투 중 대사가 나타날 경우 집중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대사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 TT에서는 전투 현황이나 피격 판정 등에 따라 재키의 대사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게임 플레이어가 적들을 빠르게 제압하면 재키의 대사가 없고, 적 제압에 시간이 걸리거나 플레이어의 인물이 빈사 상태일 경우 위와 같은 자막 중 몇 개가 무작위로 출력된다. 상황의 긴박함과 인물들의 당황함을 보여줄 때는 욕설은 감탄사처럼 짧게 사용되거나 상황이나 그 상황을 만든 인물에 대한 원망과 화풀이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게임의 집중도에 영향을 주더라도 인물들의 감정을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해 자막과 욕설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 5>

[ST]

Jenkins: Before Night City we worked on an assignment in Osaka. Two years of subterfuge. She spent them digging a trap for me. When she became director of Spec Ops, that's when she finally shoved me in it. Now she's holding a gun to my head to make sure I don't try anything. But she won't pull the trigger because she needs me. I do what she doesn't have the guts to do.

[TT]

젠킨스: 나이트 시티로 오기 전에 오사카에서 같이 일했어. 2년 동안 여우짓을 하더니, 나 몰래 열심히 함정을 파 놔더라고. 그렇게 날 엮어서 엿먹여 놓고, 씨발년이 지는 특수 작전국장으로 승진한 거야. 그래 놓고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 그래 봤자 날 어떻게 하진 못할 거야. 지가 쫓려서 못 하는 일들을 내가 다 처리하거든. 씨발년이.

주인공 V가 상사 젠킨스에게 양숙과 같은 애버내시 국장에 대해 물어볼 때 나타나는 자막이다. ST의 경우 애버내시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지만, 비속어나 욕설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TT의 경우 대상에 대한 강한 불만이 더욱 부각되어 애버내시의 과거 행동을 강조하는 ‘엿먹여’와 애버내시를 모욕하는 ‘씨발년’이 사용되었다.

<예시 6>

[ST]

Jackie: Well, you start shootin', maybe we join in, huh? Before you know it, somebody might die today.

[TT]

재키: 글썄, 네가 한판 뺏기고 싶다면 못 할 거야 없지. 덕분에 누구 하나는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겠네.

기업 요원들이 나타나 주인공 V를 데려가려 하자 동료인 재키가 막아서면서 나타나는 대사 중 일부다. ST와 TT 모두 강한 욕설은 없지만, ST의 ‘might die’ 부분이 한국식 금기 표현으로 바뀌었다.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는다’는, 병풍을 세우고 향을 피우는 우리나라 제사 풍습을 차용해 예들려 죽음을 표현하는 부정적 의미의 관용구로, 이 경우 ‘죽는 수가 있다’라는 협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2.2. 욕설의 강화

다음으로 <사이버펄크 2077>의 비속어와 욕설 자막번역 중 원문의 욕설보다 정서적 강도나 저속함이 더 높은 표현으로 치환하는 욕설의 강화 전략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시 7>

[ST]

V: And I don't know you, which means you're worth shit around here and capable of even less. Well? Anything else?

[TT]

V: 딱 봐도 각이 나오네 뭐. 말을 좇같이 하는 거 보니까 개좆같은 새끼겠지. 왜? 할 말 있어?

주인공 V가 지인의 차를 멈춰서 협박하는 깡패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다. ST의 경우 깡패를 지칭하는 비속어 ‘shit’만을 사용했지만, TT에서는 단순히 그에 대응하는 ‘새끼’로는 번역하지 않았다. 오히려 ‘shit’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의미의 ‘even less’에 주목하여, 형용사가 추가되어 더 강화된 ‘개좆같은 새끼’가 사용되었다.

<예시 8>

[ST]

Padre: So many of the little shits left around here...

[TT]

파드레: 좇도 아닌 새끼들이 설치고 다닌다니까.

깡패가 물러난 이후 V와 마찬가지로 깡패에게 불만을 품은 파드레의 대사 중 일부다. ST의 경우 ‘조그만 놈들’, ‘잔챙이’를 뜻하는 ‘little shits’이 사용되었지만, TT의 경우 이를 좀 더 강화해 ‘좇도 아닌 새끼들’을 사용했다. 여기서 파드레는 이야기상 주인공 V와 알고 지내던 일감 제공자로, 깡패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그 감정을 V에게 전달하며 공감대 또한 형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9>

[ST]

V: Fucking hell... / Jackie: ¡Pinches hijos de la chingada madre! [Fucking sons of bitches!]

[TT1]

V: 이런 개 씨발... / 재키: 아오. 이 개씨이발 좇갈네!

주인공 V와 동료 재키가 검문소에서 경비병들을 따돌려 차에서 내릴 때의 대사다. V와 재키가 차에서 내리며 동시에 흥분과 분노, 붙잡힐 뻔했던 공포감을 한 번에 표출한다. ST의 경우 재키는 스페인어 욕설을 사용하는데, 느낌표를 제외한 ‘Pinches hijos de la chingada madre’라는 표준 욕설이 쓰였다. 반면 TT의 경우 감정 표출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해 ‘아오’ 같은 감탄사와 함께 일반적인 표준 욕설인 ‘개씨발’을 강화한 ‘개씨이발’을 사용해 비속어의 실감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이 대화는 주인공 V와 재키는 어느 정도 친해진 사이가 되었을 때의 대화로, 친구 간의 일상적 욕설의 특성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예시 10>

[ST]

Jenkins: I hate that bitch. I always have.

[TT1]

젠킨스: 일을 해도 또 지랄이야, 씨발년.

애버내시 국장의 꾸짖음 이후 젠킨스가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다. ST의 경우 여성에 대한 욕설인 ‘bitch’를 사용했다. 반면 TT의 경우 일반적인 번역이라면 ‘망할 년’으로 표현될 부분이 ‘씨발’이라는 더욱 강한 비속어를 덧붙여 ‘씨발년’으로 표현되었다.

발데온(2020)이 제안한 ‘저속화 가설’은 주로 영상 번역, 특히 더빙을 중심으로 욕설 표현의 강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위의 내용에서 본 연구는 해당 가설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여, <사이버펑크 2077>의 자막 번역에 나타난 욕설 번역의 ‘추가’와 ‘강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문보다 표현 수위가 높아진 욕설이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더빙에서

나타난 욕설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욕설 강화의 구체적 양상과 그 발생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3. <사이버펑크 2077>의 더빙 분석

이번에는 <사이버펑크 2077>의 더빙 과정에서 욕설의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원문보다 더 노골적인 욕설 표현이 사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요인을 탐색한다.

3.3.1. 욕설의 강화

<사이버펑크 2077>의 한국어 현지화 회사인 무사이 스튜디오(MUSAI STUDIO)는 “유저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더빙에 한 걸음 더!”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단순히 ‘X발’, ‘병신’과 같은 원초적인 욕이 아니라 여러 다른 단어의 조합으로 “더 타격감 있는” 욕설을 만들어내는 각색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발표한다. 이를 위해 녹음 현장에서 대본 각색 전문 인력이 함께 조율하면서 상황과 제스처, 캐릭터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반적인 ‘번역’이 아닌 맛깔스러운 대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무사이 스튜디오 2021b).

따라서 한국어 더빙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은 아래의 예시처럼 원문보다 수위가 높은 직설적 욕설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그중 몇몇 사례는 유저 커뮤니티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례들은 발데온(2020)의 저속화 전략 중 원문보다 정서적 강도가 더 높은 욕설로 변환하는 ‘욕설의 강화’에 해당하며, 게임 현지화 과정에서 욕설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예시 11>

[ST]

Eat and die, you fuckers!

[TT]

먹고 똥져, 씨발 새끼들아!

<사이버펑크 2077> 한국어 더빙판의 공식 트레일러에 포함된 이 표현은 원문

욕설의 공격성과 적대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한국어의 거친 구어 표현을 적극 활용한 번역으로, 공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우의 생생한 연기로 몰입감이 한층 고조된 이 대사는 기존 한국어 더빙에서 흔히 사용되던 “젠장”, “망할 놈들” 등 완곡한 표현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시 12>

[ST]

Delamain: Beep beep, motherfucker!

[TT]

텔라메인: 빵빵, 씨발새끼야!

또 다른 사례는 자율주행 택시 AI인 텔라메인(Delamain)의 대사 “빵빵, 씨발새끼야!”로, 원문 “Beep beep, motherfuc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캐릭터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직설적 욕설을 사용한 이 장면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밈(meme)으로 확산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번역은 원문의 욕설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화자에게 더 강한 감정적 충격을 주는 표현으로 강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시 13>

[ST]

Wherever you go, there's fucking Arasaka

[TT]

어딜 가든 씨발사카가 있네.

세 번째 사례인 “어딜 가든 씨발사카가 있네.”는 원문의 “Wherever you go, there's fucking Arasaka.”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씨발사카”는 욕설 “씨발”과 게임 내 적대 기업명인 “아라사카(Arasaka)”를 결합한 창의적 합성어로,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욕설의 추가이자 언어유희적 번역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번역은 한국어만의 욕설 표현 자원과 창조적 언어 사용을 통해 서사의 감정적 맥락을 강화하는 효과를 달성한 예라 할 수 있다.

<예시 14>

[ST]

Woodman: Fuck, what a bitch.

[TT1]

아이 씨발, 개 젓같은 년을 봤나.

마지막으로 “아이 씨발, 개 젓같은 년을 봤나.”는 인신매매 업자 우드맨(Woodman)의 대사로, 영어 원문은 “Fuck, what a bitch.”에 해당한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개 젓같은”이라는 한국어 특유의 욕설이 추가되어 원문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으로 변환되었다. 이는 발테온(2020)의 분류에 따르면 욕설의 강화 및 창작 욕설 표현의 삽입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한국어 번역에서 욕설 수위가 원문보다 높아진 경우를 보여주며, 이는 발테온(2020)의 저속화 가설이 게임 더빙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욕설은 번역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거나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게임 더빙에서 욕설의 수위가 원문을 초과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면, 이는 단순히 언어적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한 의도적인 변화가 포함되었음을 나타낸다. 기존의 한국 게임 번역에서 종종 사용되었던 완곡한 표현들이 사라지고, 현실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설적인 욕설이 사용된다는 점은 번역 규범의 변화나 재정립을 암시할 수 있다.

3.4. 게임 더빙의 수용 양상과 이용자 반응

다음으로 현지화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및 이용자 수용 반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욕설 번역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산업적, 수용자 관련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게임이라는 특수한 매체 환경에서 욕설 번역이 어떻게 수위가 조절되고 의미화되는지를 텍스트 내부의 번역 전략뿐만 아니라 외부의 수용 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실제 현지화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인터뷰 분석과 게임 커뮤니티 및 유저 게시판에 나타난 실제 이용자 반응 분석을 통해 이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사이버펄크 2077> 더빙 및 현지화 회사인 무사이 스튜디오의 네

이버 홍보 블로그 글과 ‘디스이즈게임(THISISGAME)’ 웹사이트에서 <사이버펑크 2077> 더빙을 다루는 기사 및 글, 그리고 ‘서울와이어’의 본 게임의 성우 인터뷰 기사다.

3.4.1. 현지화 참여자 인터뷰

게임 현지화 과정에서 욕설 번역은 단순한 언어 치환을 넘어, 문화적 맥락과 감정 전달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사이버펑크 2077>의 현지화 담당 회사인 무사이 스튜디오는 이 게임의 한국 출시 즈음에 자사 홍보 블로그에 “깜짝 놀랄 만한 한국어 욕설 기대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강한 욕설의 사용이 게임의 몰입감과 사실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일부 사용자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게임의 홍보 포인트 중 하나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무사이 스튜디오의 유재운 총괄 이사는 인터뷰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비속어 사용 수위에 대한 제한을 풀었고 마음껏 써보자는 방향성을 정했다고 한다(무사이 스튜디오 2021b). 원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욕을 사용해서 번역했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춰서 각색했다고 한다. 게임 제작사 CDPR의 매니저들은 한국 출시 기념 인터뷰에서 한국 유저들의 몰입감 있는 플레이를 위해 현지화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욕설의 경우 게임의 고유 명사를 한국 욕에 접목시킨, 깜짝 놀랄 만한 신개념 욕도 등장한다며 유저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고(디스이즈게임 2020) 트레일러에 비해 게임 본편에서는 “더 깊고 살벌한” 욕설이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지화 팀이 원문의 감정과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어 화자의 언어 감수성에 부합하는 표현을 구현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욕설 번역은 이 게임을 홍보하는 요인이며 게임의 몰입감과 현실감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게임 더빙에 참여한 성우 임채현은 연기하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쓴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고 과거에 자주 쓰였던 ‘젠장’이나 ‘제갈’ 정도의 욕설이 아닌 다양한 욕을 시도했다고 했고 말한다(디스이즈게임 뉴스 블로그 2020). 또 다른 성우 김혜성은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욕설이 검열 없이 적나라하게 더빙되었다고 동의하며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외화나 게임 더빙 시 욕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추세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미 다른 게임에서 직접적인 욕설이 등장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고 <사이버펑크 2077>은 더 나아가 원작에 가까운 욕설과 창의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사전 공개된 트

레일리 영상에서 검열되지 않은 욕설이 포함된 장면은 “예약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으며, 이는 현지화의 몰입도 제고 및 리얼리즘 구현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다.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게임 번역에서 욕설 표현은 점점 더 원문 충실성과 문화 적합성 간의 조율 대상이 아닌, 감정 몰입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서울와이어 2020).

3.4.2. 이용자 반응 및 수용 양상

<사이버펑크 2077>의 한국어 더빙판에서 직설적 욕설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점은 한국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수용자 반응은 대체로 양분되었다. 특히 게임 출시 이전에 공개된 더빙 샘플 영상에서 “씨발 새끼들아”와 같은 노골적인 욕설이 등장하자, 일부 유저들은 충격과 동시에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국에서 이렇게 욕이 찰지게 들어간 더빙은 없다”(RULIWEB 2022)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공유하였다.

현지화 전문 회사의 무사이 스튜디오의 유저 댓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0개 의견 중 54%의 게이머가 한국어 더빙판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욕이 시원하다”, “심의를 의식한 점잖은 욕이 아닌 과감하고 현실감 있는 비속어의 사용이 무척 좋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무사이 스튜디오 2020). 이를 통해 게임 내 비속어를 사용하면 과도한 비판을 받았던 이전과 다르게 적절한 강약 조절과 다채로운 대사의 활용 등에 대한 유저들의 니즈와 기준이 한 단계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더빙 성우들의 리얼한 욕설 연기가 게임의 성인 등급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렸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일정 부분 존재하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등장인물이 지나치게 많은 욕설을 또박또박 내뱉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며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모든 욕설을 ‘씨발’로만 번역했다”는 단조로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맥락에 맞는 욕설의 변주 없이 동일한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대사 표현이 촌스럽게 들린다는 반응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게이머는 한국어 음성을 꺼리고 영어 또는 일본어 음성으로 설정하거나, 원어 자막으로 플레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무사이 스튜디오 2021a).

전반적으로는 “현실감 있고 통쾌하다”는 긍정적 수용과 “과도하게 직설적이다”는 비판이 병존했으며, 이러한 반응은 게임 및 문화 관련 언론에서도 유사한 양상

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게임 매체와 평론가들은 성인 등급 게임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설적 번역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영화 자막 번역가 황석희 역시 관련 칼럼에서 “게이머들이 진작부터 이런 노골적인 욕설 번역을 원해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현지화를 “아주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 바 있다(채널 예스 2020).

반면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과도한 욕설 표현이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몰입감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에서는 해당 게임의 한국어 욕설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성우들의 거침없는 욕설 연기가 회자되는 등, 이 현지화는 국내외적으로도 화제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게임 현지화 과정에서 비속어와 욕설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최근 한국 게임 번역의 경향과 문화적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이버펄크 2077>의 한국어 자막 번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원문 욕설의 단순한 대응을 넘어 욕설의 강화, 과장, 심지어는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욕설의 추가와 같은 전략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관행과 상이한 이례적인 번역 현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번역 방식은 캐릭터의 개성과 서사의 현실성을 강화하며, 게임 내 분위기 형성과 몰입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낳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욕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문화적 태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게임 내 욕설 번역에 대한 수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게임 유저들의 실감성과 몰입감을 중시하는 수요에 따라 제작사 및 번역사들도 보다 과감한 번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히 번역 텍스트에 대한 언어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게임 현지화에 참여한 제작사 PD 및 더빙 성우의 언론 인터뷰 자료,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 및 유저 게시판에 나타난 실제 이용자 반응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욕설 번역에 대한 수용 양상과 이용자 반응을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번역 전략과 그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과정

에서 제작자들은 캐릭터에 맞는 욕설의 다양성 확보와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일부 유저들은 몰입감을 높이는 요소로 욕설 번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욕설 표현의 과도함 또는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며 반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전략은 언제나 수용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일부 플레이어들은 거침없는 욕설 표현을 환영하며 “현실감 있고 찰지다”고 평가한 반면, 또 다른 수용자들은 반복적이고 직설적인 욕설에 대해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이는 게임 번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수용자의 정서적 수용성’ 사이의 긴장이 상존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어 화자의 문화적 언어 감수성, 연령대, 게임 장르 및 캐릭터 성격에 따라 욕설에 대한 수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번역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 번역에서의 욕설 번역은 단순한 직역이나 의역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공감대와 정서적 수용 가능성에 기반한 조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번역자는 원문의 감정 강도와 캐릭터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수용자가 과도한 불쾌감이나 몰입의 이탈을 느끼지 않도록 언어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게임이라는 매체가 지닌 실시간 반응성과 상호작용성이 번역의 효과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비속어 및 욕설 번역을 둘러싼 사회적, 윤리적 논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욕설 번역의 전략 수립 시에는 단순한 강도 조절을 넘어, 장르와 게임 콘셉트, 캐릭터 성격에의 정합성 및 수용자층의 연령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의 경우, 번역된 욕설이 미치는 언어적·정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김희화 2014), 이는 번역가의 윤리적 책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펄크 2077>의 사례는 한국 게임 현지화에서 욕설 번역의 기준이 단순한 검열과 완곡화의 문제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와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 간의 균형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향후 게임 번역에서는 정량적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반응, 문화적 맥락, 번역 주체의 선택 논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욕설 번역 전략의 정립을 넘어, 게임 번역의 윤리적, 미학적, 실용적 기준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게임 내 비속어 및 욕설 번역이라는 주제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다만 분석 대상이 프롤로그 장면에 한정되었다는 점과, 전체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게임 대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술 기반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AAA 게임 외에도 인디 게임,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에 대한 욕설 번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희·박윤희. (2013). 「충실성의 딜레마: 금기비속어 ‘fuck’의 번역 양상 및 번역 수용에 관한 설문연구」. 『번역학연구』 14(4): 7-35.
- 김동미·김정연·곽은주. (2023). 「게임 내 비속어 번역전략 양상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21(3): 5-25.
- 김희화. (2014). 「초기 청소년의 욕설에 대한 감각추구, 또래동조성, 규범적 문제행동, 친구 및 성인 욕설의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1): 33-42.
- 박명수. (2018). 「자막번역의 비속어 번역전략 분석」. 『번역학연구』 19(3): 81-112.
- 원호혁·구본혁·김형엽. (2020). 「게임 ‘하스스톤’의 창조적 · 문화적인 한국어 의역에 대하여」.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2): 163-181.
- 이가현. (2022).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비속어 번역 양상과 격식성 변화」. 『T&I review』. 12(1): 121-142.
- 이선영. (2015). 「비속어와 욕설의 개념에 대하여」. 『어문론집』 64: 59-80.
- 전지현·최진실·박기성. (2017). 「영상매체 속 비속어 한영번역 양상 및 영어학습자들의 번역 수용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24(3): 65-87.
- 한미선. (2012). 「격식변화 측면에서의 금기 비속어 번역의 특징 연구」. 『번역학연구』 13(5): 277-306.
- Abdelaal, N. M., and Al Sarhani, A. (2021). Subtitling strategies of swear words and taboo expressions in the movie “Training Day”. *Heliyon* 7(7): 1-9.
- Abu-Rayyash, H., Haider, A. S., and Al-Adwan, A. (2023). Strategies of translating swear words into Arabic: a case study of a parallel corpus of Netflix English-Arabic movie subtitl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0(39): 1-13.
- Allan, K., and Burridge, K. (2006). *Forbidden Words: Taboo and the Censoring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Zgoul, O., and Al-Salman, S. (2022). Fansubbers’ subtitling strategies of swear words from English into Arabic in the Bad Boys movies. *Open Cultural Studies* 6(1): 199-217.
- Ameri, S., and Ghazizadeh, K. (2015). A Norm-Based Analysis of Swearing Rendition in Professional Dubbing and Non-Professional Subtitling from English into Persian. *Iranian Journal of Research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2: 78-96.
- Armstrong, E. (2021). *Speculative ecologies: science fiction and the anthropocene imagination* (PhD Dissertation, UNSW, Sydney).
- Bednarek, M. (2019). ‘Don’t say crap. Don’t use swear words.’ - Negotiating the use of swear/taboo words in the narrative mass media. *Discourse, Context and Media* 29.
- Bernal-Merino, M. Á. (2011). A brief history of game localisation. *TRANS: revista de traductología*, 15: 11-17.
- Bordallo López, M. & Álvarez Casado, C. (2025). A Cyberpunk 2077 perspective on the prediction and understanding of future technology. *Entertainment Computing* 54(4).
- Bruti, S., and Vignozzi, G. (2024). Vulgarization or non-vulgarization in dubbing from English into Italian? Insights from Netflix TV series. *Cadernos de Tradução* 44(Special

- Issue 2): 1-20.
- Cavallaro, D. (2000). *Cyberpunk and Cyberculture: Science fiction and the work of William Gibson*. London and New Brunswick: The Athlone Press.
- Den Tandt, C. (2013). Cyberpunk as Naturalist Science Fiction. *Studies in American Naturalism* 8(1), 93-108.
- Díaz Cintas, J., and Remael, A. (2020). *Subtitling: concepts and practices*. London: Routledge.
- Díaz-Pérez, F. J. (2020). Translating swear words from English into Galician in film subtitles: A corpus-based study. *Babel* 66(3): 393-419.
- Dyens, O. (2000). Cyberpunk, technoculture, and the post-biological self. *CLCWeb: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2(1), 1.
- Fernández Dobao, A. (2006). Linguistic and cultural aspects of the translation of swearing: The Spanish version of Pulp Fiction. *Babel* 52: 222-242.
- Guillot, M. N. (2023). Doing swearing across languages-The curious case of subtitling. *Journal of Pragmatics* 215: 41-54.
- Hollinger, V. (1990). Cybernetic Deconstructions: Cyberpunk and Postmodernism.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23(2): 29-44.
- Hollinger, V. (1999). Contemporary Trends in Science Fiction Criticism, 1980-1999. *Science Fiction Studies* 26(2): 232-262.
- Jay, T. (1992). *Cursing in America: A psycholinguistic study of dirty language in the courts, in the movies, in the schoolyards and on the streets*. Philadelphia/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Jiang, Q., and Doherty, S. (2024). A corpus-based study on the English-Chinese swearwords produced by amateur (fansubbing) and professional (prosubbing) subtitling. *Perspectives* 1-27.
- Lóciga Latorre, P. M. (2020). *Failures in video game local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glish-into-Spanish translation of Final Fantasy VII*. Undergraduate Dissertation, Universidad de Zaragoza.
- Lu, S. (2024). More than words: a multimodal analy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subtitling of swearwords. *Perspectives* 32(1): 14-30.
- McFarlane, A. (2021). *Cyberpunk Culture and Psychology: Seeing Through the Mirrorshades*.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McFarlane, A., Murphy, G. J., & Schmeink, L. (2019). Cyberpunk as cultural formation. In McFarlane, A., Murphy, G. J. and Schmeink, L.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Cyberpunk Cultur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3.
- Moura, W. (2024). The Subtitling of Swearing: A Pilot Reception Study. *Languages* 9(5): 184.
- Nixon, N. (1992). Cyberpunk: Preparing the Ground for Revolution or Keeping the Boys Satisfied? *Science Fiction Studies* 19(2): 219-235.
- Pavesi, M., and Zamora, P. (2022). The reception of swearing in film dubbing: a cross-cultural case study. *Perspectives* 30(3): 382-398.
- Permpoon, S., Piromnak, C., and Pattanakraisin, P. (2024). Transcending cultural barriers in Thai mythology: Unveiling the intercultural dynamics through the “Home Sweet

- Home” video game’s translation.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Studies 24(3): 698-714.
- Sponsler, C. (1992). Cyberpunk and the Dilemmas of Postmodern Narrative: The Example of William Gibson. Contemporary Literature 33: 625.
- Valdeón, R. A. (2020). Swearing and the vulgarization hypothesis in Spanish audiovisual translation. Journal of Pragmatics 155: 261-272.
- Valdeón, R. A. (2024). The vulgarization hypothesis and the translation of swearwords by male and female translators in AVT in Spain. Journal of Pragmatics 219: 1-11.
- [인터넷 자료]
- 금척어. 『네이버 사전』. (2025).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8%88%EC%B9%99%EC%96%B4>(2025.2.20.검색).
- 디스이즈게임. (2020). 올해의 게임 노리는 ‘사이버펑크 2077’, 한국 출시의 주역들 만나다 [인터뷰] CD 프로젝트 레드 한국 오피스 정재우, 고왕철, 오승택 매니저. <https://www.thisisgame.com/webzine/special/nboard/5/?n=109092>(2025.3.25.검색).
- 디스이즈게임 뉴스블로그. (2020). 사이버펑크 2077 ‘재키’ 목소리의 주인공, 임채현 성우. <https://blog.naver.com/thisisgame/223729522141>(2025.3.24.검색).
- 무사이 스튜디오. (2020). 언론 보도로 살펴보는 ‘사이버펑크 2077’ 한국어 현지화, “한국어 더빙은 몰입감 자체가 다르다.”(2025.3.24.검색). <https://blog.naver.com/musaikorea/222187797353>(2025.3.25.검색).
- 무사이 스튜디오. (2021a). 유저 반응 분석 기사 "<사이버펑크 2077> 한국어 더빙, 이래서 좋다!" <https://blog.naver.com/musaikorea/222224402016>(2025.3.25.검색).
- 무사이 스튜디오. (2021b). ‘사이버펑크 2077’ 한글화의 숨은 공로자, 스크립트 번역 (feat. 찰진 비속어의 비밀). <https://blog.naver.com/musaikorea/222257458591>(2025.3.25.검색).
- 서울와이어. (2020). [인터뷰] 김혜성 성우 “게임 몰입감 높이는 더빙 연기위해 노력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155>(2025.3.10.검색).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글로벌 게임산업 성장둔화 속 국내 게임산업 성장 유지, 콘진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발간 [보도자료]. <https://welcon.kocca.kr/ko/info/trend/1953747>(2025.1.20.검색).
- 채널 예스. (2020). [황석희 칼럼] 비속어 자막 어떻게 번역할까? <https://m.ch.yes24.com/Article/Details/43239>(2025.3.12.검색).
- CD Projekt Red. (2020). Cyberpunk 2077 [Video game]. CD Projekt.
- RULIWEB. (2022). [유머]사이버펑크 2077) 더빙의 연기력이 너무 짙어 유명해진 장면.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81/read/57793247?>(2025.3.12.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9 May 2025; revised on 9 June 2025; and accepted on 16 June 2025.

Authors' email addresses

kms010614@gmail.com

secho@hufs.ac.kr

About the authors

Minseo Kim (first author) is a M.A. student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is main area of interest is game localization.

Sung-Eun Cho (corresponding author) is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udiovisual translation and multimodality in translation.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의 번역 품질 개선 분석 - 계약서 중한 번역을 실례로 -

최승혁* · 강병규**

Seunghyuk Choi and Byeongkwu Kang (2025). Analyzing Quality Improvements in Legal Domain-Adaptive Machine Translation: A Case Study of Chinese-Korean Contract Translation. This study evaluates domain-adaptive machine translation for legal texts by developing a “contract-adaptive machine translation model”(contract-adaptive model). Using a 53,334-character corpus of Chinese contracts, we fine-tuned a neural translation system and assessed outputs using two semantic-oriented automatic metrics: BERTScore and BLEURT. The evalu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contract-adaptive model consistently achieved higher scores across both metrics. In histograms visualizing BERTScore and BLEURT, the contract-adaptive model was concentrated in the high-score regions, and its median values were higher in the corresponding box plots. Analysis of actual translation examples showed that the contract-adaptive model delivered improved translation quality tailored to contractual usage - in terms of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Chung-Ang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Korea)

Keywords: Legal translation, domain-adaptive machine translation, TQA, BERTScore, BLEURT

주제어: 법률 번역,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 번역품질평가(TQA), BERTScore, BLEURT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한중과 강사, 제1저자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교신저자

1. 들어가며

새로운 기술은 일정 수준 보급되고 난 후에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즉, 사용자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개별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기계번역도 예외는 아니다. 신경망 기계번역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성능도 꾸준히 향상되면서 이제는 IT,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별로 맞춤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법률이다. 현재 법률 번역은 시장 규모가 16조 원 정도로 추정될 만큼 수요가 거대하고, 법률 이외에도 금융, 임상, 조선 등 여러 전문 분야로 확장 중이다.¹⁾

법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관련 문서로 계약서를 꼽을 수 있다.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부터 크고 작은 계약에 관련된 규범적 텍스트가 모두 계약서 범주에 포함된다(Sarcevic 1997: 11). 계약서에는 수많은 전문용어와 관습화된 표현 등 계약서 특유의 사용역(register)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닌 정확한 법률적 개념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 번역사가 이러한 법률 관련 지식을 모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계번역을 활용해 법률 문서를 번역하면 이런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 법률은 하나의 어휘가 문맥에 따라 다의(多義)로 해석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단의성(單義性)을 가진다(李振宇 2006: 81-83). 즉, 법률 전문용어와 관습화된 표현은 형식과 의미가 1:1로 대응하기 때문에 문학작품과 같이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는 방대한 법률 지식을 학습해 일관성 있는 번역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정리하면 법률은 번역 수요의 증가, 텍스트 유형적 특징, 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해 도메인 특화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최승혁 2023a: 352).

본 연구는 ‘계약서의 언어적 특징을 기계번역에 학습시키면 계약서 중한 번역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즉, 계약서 중심의 법률 도메인에 특화된 기계번역 모델이 번역 품질 측면에서 어떤 효용이 있을지에 관한 궁금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약서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 모델의 구축과 그 번역 품질에 대한 자동평가를 통해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의 번역 품질 개선에

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317155448271>(2025.04.05. 검색).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현황을 이해한다. 3장에서 계약서 특화 모델 구축, 4장에서 의미 기반 자동평가 모델 BERTScore, BLEURT에 대해 소개한다. 5장에서는 계약서 특화 모델의 번역 결과물을 분석해 번역 품질 개선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선행 연구

현재 국내에서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며, 주로 특허의 영한 번역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이진철(2022)은 특허에 특화된 NMT-PT(Neural Machine Translation - Patent Translation) 모델을 구축하고 특화 전후 모델과 범용 기계번역(Google Translate, Naver Papago)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다. 특정 도메인에서의 방대한 데이터를 추가 학습(fine-tuning)하는 것이 번역 성능 개선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이준호(2022)는 계약서 병렬 말뭉치 50여만 쌍을 이용해 법률 특화 번역 엔진을 구축하여 한영 계약서의 기계번역 결과를 분석했다. 국내에서 도메인 특화 엔진을 직접 사용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지은과 최효은(2023)은 법률과 특허에 특화된 NMT를 구축한 후 한영 번역 결과물에 대해 수동평가와 자동평가를 실시했다. 법률 도메인의 평가 결과는 모두 양호한 편이었지만 특허 도메인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문용어 사용의 정확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동일한 법률 도메인이더라도 세부 도메인의 사용역에 따라 번역 품질에 차이가 존재하고 도메인 특화에서 전문용어 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최승혁(2024)은 법률 도메인에 특화된 기계번역 모델을 구축한 후에 특화 모델에서 번역의 정확성 개선 여부를 어휘, 통사, 텍스트 층위에서 분석함으로써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무엇보다 법언어학, 번역학, 기계번역 등 학제적 관점에서 법률 텍스트를 가공하고 이를 기계번역에 학습시킴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이 외에 법률 도메인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로 특허 기계번역에서 발생하는 전문용어 오류에 관한 연구(최효은 2022), 법령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MTPE)에 관한 연구(김혜림 2021; 이지은과 최효은 2024)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그 수가 제한적이며 연구 범위도 다소 편향된 양상을 보인다. 분석 대상이 특허 문서에 집중되어 있으며, 언어 쌍도 영-한 번역에 치우쳐 있다. 연구 방법은 대부분 기계번역 엔진의 성능 평가를 중심으로 번역 결과물의 오류 유형의 분석,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연구자들이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오고 있지만, 양질의 학습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과 기계번역 모델 구축에 소요되는 기술적, 시간적, 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준호 2022: 173).

3. 계약서 특화 모델의 구축²⁾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이란 특정 도메인의 번역 품질 개선을 위해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를 범용 기계번역에 학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续租’의 경우,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임대 기한이 끝난 후 계속 임대함’이라는 해석을 제공한다.³⁾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서는 ‘임대 연장’, ‘계약 갱신’, ‘재계약’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약서 사용역(register)에 부합하고, 이러한 전문용어나 정형화된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번역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 연구의 계약서 특화 모델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그 언어적 특징을 학습시켜 계약서 번역 시 더 높은 품질의 번역 결과물을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계약서 특화 모델이 필요하다. 그 구축 과정은 크게 ① 범용 기계번역 모델과 계약서 원천 데이터 확보 ② 계약서 원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가공(중-한 번역 쌍 구축) ③ 미세조정(fine-tuning)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범용 기계번역 모델과 계약서 원천 데이터 확보 단계이다. 계약서 도메인에 특화하려면 계약서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은 범용 기계번역 모델이 필요하다. 파파고, 구글 번역 등 기존의 범용 기계번역 모델은 연구자 개인이 미세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AI 법률번역 엔진 오토란(Otran)의 범용 모델을 제공받았다.⁴⁾ 계약서는 외부에 비공개하는 민감 정보를 담고 있어 폐쇄성이 크다.

2) 본 연구는 대규모 다국어 코퍼스도 사전학습한 기계번역 모델을 ‘범용 모델’, 계약서 데이터로 학습시킨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 모델을 ‘계약서 특화 모델’로 부른다.

3) <https://zh.dict.naver.com/#!/search?query=%E7%B7%AD%E7%A7%9F>(2025.03.05. 검색).

법령이나 협정문과 같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필자 및 다른 번역사가 직접 번역했던 중국어 계약서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원천 데이터로 확보했다. 다른 번역사로부터 계약서 데이터를 제공받은 이유는 데이터의 편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해당 계약서에서 민감 정보와 불용어 등을 제외하는 전처리를 통해 총 53,334자 규모의 데이터를 얻었다.

둘째, 계약서 원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가공(중-한 번역 쌍 구축)하는 단계이다. 미세조정을 위해서는 앞에서 얻은 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분절해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대응시켜 표로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대응 작업 외에 원문과 번역문의 번역이 정확한지 대조하고, 한국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정형화된 표현, 문체 등을 파악해 수정 작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수정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⁵⁾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수정)⁶⁾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가공된 중-한 번역 쌍을 엑셀 파일에 총 1,357개 셀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미세조정 시 범용 기계번역에 계약서 도메인 지식을 전수하는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다. 아래 <그림 1>은 위에서 구축한 학습 데이터 중-한 번역 쌍의 실제 예시이다.

4) 오토란(Otran)은 AILingGo에서 제공하는 AI 법률번역 엔진으로 법률에 특화된 신경망 기계번역 플랫폼과 함께 사용자 맞춤형 학습을 통한 고품질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5)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wrd=%EC%9E%84%EB%8C%80%EC%B0%A8&key=202&bordCd=201&nttSn=11098>(2025.05.05. 검색).

6) <https://www.immigration.go.kr/bbs/moj/118/569781/artclView.do>(2025.05.05. 검색).

No.	중국어 원문	No.	한국어 번역문
31-	乙方权利和义务	31+	올의 권리와 의무
32-	乙方不得超越代理权限, 必须按条款1中约定的组展企业范围及条款2中约定的组展价格组织相应的展商参展。	32+	올은 대행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반드시 조항1에서 약정한 전시대행 업체의 범위 및 조항2에서 약정한 전시대행 가격에 따라 관련된 참가업체를 조직해야 한다.
33-	乙方在组展过程中应以甲方代理机构身份开展工作, 不得以洽谈组委会名义进行宣传。	33+	올은 참가대행 과정에서 갑의 대행기관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상담회 조직위원회 명의로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34-	组展通用招展邀请函由甲方提供 (中英文版)。	34+	참가대행에 통용되는 초청전시회 초대장은 갑이 제공한다(중·영문 버전).
35-	乙方若因组展需要需自行印制组展邀请函, 文字内容须经甲方审核, 设计、印刷由乙方负责。	35+	올이 만일 참가대행의 필요로 인해 자체적으로 참가대행 초청서를 인쇄하고 제작해야 하는 경우, 글 내용은 반드시 갑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디자인과 인쇄는 올이 책임진다.
36-	乙方组织的参展企业需遵守展会规定, 禁止现场售卖展品。	36+	올이 조직한 참가업체는 상담회 규정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전시품의 매매를 금지한다.
37-	组委会谢绝中药材、玉器、珠宝等商品及假冒伪劣商品参展。	37+	조직위원회는 중국약재, 옥기, 보석 등 상품 및 위조상품의 전시를 사절한다.
38-	乙方对所组织的展商须实行全程服务。	38+	올은 조직된 참가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9-	企业在缴交展位费后, 乙方应收集、整理参展企业信息, 在规定时间内交给甲方制作名录、招牌等, 协助展商上网申办参展证件。	39+	업체가 부스비용을 지불하면 올은 참가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정해진 시간 안에 이를 갑에게 제공하여 명단과 업체간판 등을 제작하고, 참가업체가 온라인으로 참가서류를 수속하도록 협조한다.
40-	布展期间负责所组企业报到、协调。	40+	전시기간 동안 조직된 업체의 등록과 조율을 책임진다.

그림 1. 계약서 특화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 데이터 중-한 번역 쌍

셋째, 미세조정(fine-tuning)으로 바로 특화 단계이다. 미세조정은 대규모 다국어 코퍼스나 범용 데이터로 사전학습된 기계번역 모델 위에서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세조정은 전문용어나 특수한 문체에 맞는 번역문 제공,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효과적인 성능 향상 가능, 범용 모델의 일반 지식과 특정 도메인 지식 제공 등의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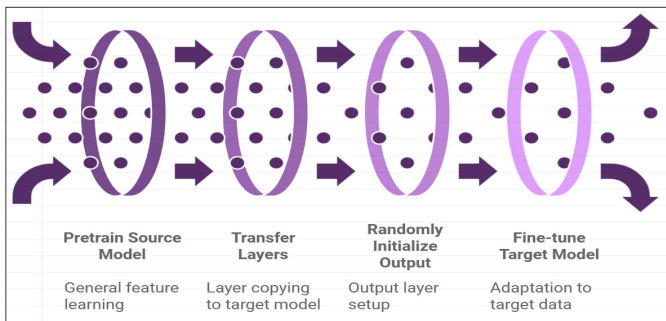


그림 2. 미세조정(fine-tuning) 과정

- 전이학습은 사전학습(pre-train)과 미세조정(fine-tuning)으로 나뉜다. 사전학습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범용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고, 미세조정은 사전학습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도메인의 특수성에 맞추어 가공하는 것이다.

<그림 2>는 미세조정을 포함한 전이학습의 전반적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Pretrain Source Model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토란(Otran) 범용 모델에 해당하며, 일반 도메인 데이터(Source data set)로 사전학습된 범용 기계번역 모델이다. 이 범용 기계번역 모델은 Transfer Layers에서 범용 모델의 출력층(Output layer)을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가 Target model로 복사된다. 그런 다음 Random initialization을 통해 Target model에 출력층을 추가하고 가중치를 무작위 초기화⁸⁾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중-한 번역 쌍으로 Target model의 모든 층(layer)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면 계약서 특화 모델이 구축된다. 훈련 데이터를 한번 모두 학습하는 주기인 에포크(epochs)를 18-22, 신경망에서 비이상적 정확률을 나타내는 과적합(overfit)을 방지하는 드롭아웃(dropout)은 0.2-0.3으로 설정하였다.

4. 의미 기반의 자동평가 모델 - BERTScore, BLEURT

기계번역의 번역 품질 평가는 크게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로 나눈다. 수동평가는 인간 번역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여전히 가장 신뢰 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커다란 시간과 비용 소모, 신뢰도를 갖춘 평가자 확보의 어려움, 평가자 간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반복성 및 재현성 불가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Wenbo Wang 2023: 108). 반면 자동평가는 인간 평가자 간 편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치에 기반한 점수 산출 방식에 따라 t-검정과 같은 통계 분석에 용이하다.

지금까지 기계번역 품질 평가를 위해 BLEU, Meteor, ChrF, SacreBLEU, COMET, BERTScore, BLEURT 등과 같은 다양한 자동평가 모델이 개발되었다. 기계번역 품질 평가의 관건은 정답 번역과 후보 번역의 쌍을 비교하는 것으로 자동평가 모델은 크게 형태 기반의 유사도 평가 방식과 사전학습 모델 기반의 평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 기반의 자동평가는 문자나 어휘 위주의 N-gram 계산, 즉 문장 표면에 드러나는 형태적 유사성에 의존한다. BLEU, Meteor, ChrF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

8) 레오나르도 스카비니 외(Leonardo Scabini et al. 2022: 4)에 따르면 무작위 초기화(random initialization)는 정규 분포 등에서 값을 무작위(random)로 생성해 초기화하는 것으로 미세조정 시작 시점의 가중치(weight)에 변화를 주어 네트워크의 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동평가 모델은 N-gram 일치율, 즉 단어 일치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적 유사성이나 문맥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순에 민감하여 창의적 표현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경망 기술을 활용해 사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한 BERTScore, BLEURT, COMET 등의 자동평가 모델이 등장했다. 이 모델들은 의미 기반의 토큰 임베딩을 사용해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동의어나 의역(paraphrase)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먼 거리 의존성과 어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형태 기반의 평가 모델 방법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Tianyi Zhang et al. 2020: 1-3).

계약서와 같은 법률 문서의 번역은 전문용어 사용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단순히 어휘나 문장 일치와 같은 형태적 유사성에만 의존해 평가할 경우, 의미 정확성이 높아도 감점을 받아 낮은 품질의 문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법률 문서인 계약서의 특성을 고려해 형식과 의미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사전학습 모델이 번역 품질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상술한 수동평가의 한계를 피하고자 번역 품질 개선 분석을 위한 번역 품질 평가는 딥러닝 기반의 자동평가로만 진행한다.

자동평가 모델로는 BERT 기반의 BERTScore와 BLEURT를 사용한다. BERT는 언어 이해의 단위가 정교하고, 문맥을 고려하도록 훈련되었으며, 통사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정혜연과 서수연 2022: 122-123), 수동평가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Tianyi Zhang et al. 2020; Yiming Yan et al. 2023) 인간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자동평가는 기계 번역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있어 수동평가보다 신속성, 객관성, 효율성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여러 자동평가 지표를 결합하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임형재와 리번켈빈 2024: 209).

4.1. BERTScore

BERTScore는 BERT와 같은 대규모 사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후보 문장과 참조 문장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자동평가 모델로 토큰(Token)과 문장 층위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먼저 토큰 층위에서 정확성(Precision), 재현율(Recall), 정확성과 재현율의 조화평균(F1-score)을 활용해⁹⁾ 후보 문장과 참조 문장 간의 유사성을 계산한다.

$$R_{\text{BERT}} = \frac{1}{|x|} \sum_{x_i \in x} \max_{\hat{x}_j \in \hat{x}} \mathbf{x}_i^\top \hat{\mathbf{x}}_j, \quad P_{\text{BERT}} = \frac{1}{|\hat{x}|} \sum_{\hat{x}_j \in \hat{x}} \max_{x_i \in x} \mathbf{x}_i^\top \hat{\mathbf{x}}_j, \quad F_{\text{BERT}} = 2 \frac{P_{\text{BERT}} \cdot R_{\text{BERT}}}{P_{\text{BERT}} + R_{\text{BERT}}}$$

그런 다음 각 토큰의 F1-score를 평균화하여 문장 층위 점수를 계산한다.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며 값이 클수록 두 문장 간 의미적 유사성이 높다. 문맥적 의미를 반영하는 BERTScore는 인간의 주관적 평가와 상관관계가 높아 이 지표를 활용하면 문장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Tianyi Zhang et al. 2020; 정혜연과 서수연 2022).

표 1. BLEU Score와 BERTScore 점수 비교

원문	기계번역	BLEU Score	BERT Score
因不可抗力致使合同无法继续履行的，应当通知对方当事人，本合同自通知到达对方当事人时解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본 계약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해지한다.	0.028	0.868

<표 1>에서 기계번역 번역문은 ‘不可抗力’, ‘当事人’, ‘解除’ 등 중국어 계약서 원문의 전문용어뿐 아니라 의미도 정확하게 번역했다. 이에 대해 BLEU Score는 N-gram 일치율에만 의존해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0.028점으로 품질을 낮게 평가했다. 반면 BERTScore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가정적 상황과 그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미적 유사성을 반영해 0.868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4.2. BLEURT

BLEURT 역시 BERT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의 의미를 평가한다. BLEURT는 단

9) 정확성(Precision)은 후보 문장을 기준으로 참조 문장과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재현율(Recall)은 참조 문장을 기준으로 후보 문장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F1-score은 정확성과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두 문장 간의 유사성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어의 고정된 의미에서 벗어나 텍스트 맥락에 따른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문맥 임베딩(contextual embedding) 방식을 사용한다.¹⁰⁾ 또한 수동평가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귀 모델을 이용해 최종 점수를 0에서 1 사이로 산출하는데 값이 클수록 참조 문장과 번역 문장 간 유사도가 높다.

$$\hat{y} = f(x, \tilde{x}) = Wv_{\text{BERT}} + b$$

(y: 최종 점수, W: 가중치, b: 편향)

BLEURT 역시 사전에 학습된 언어 모델을 활용해 문장의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어 일치율과 같은 형태적 유사성에 기반한 지표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수동평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Yiming Yan et al. 2023).

표 2. BLEU Score와 BLEURT 점수 비교

원문	기계번역	BLEUScore	BLEURT
对本合同中未约定或约定不明的内容, 双方可根据具体情况签订书面补充协议。	본 계약에서 약정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면 보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0.228	0.679

<표 2>의 예시에서 기계번역은 ‘双方’을 ‘양 당사자’로, ‘补充协议’을 ‘보완 계약’으로 번역했다. 이를 쌍방 혹은 추가 계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BLEU Score는 0.228로 낮은 점수를 주었고, BLEURT는 그보다 3배 정도 높은 0.679를 주었다. BLEU Score만 본다면 이 번역문은 활용 가치가 낮은 문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BLEURT는 약 0.7점으로 1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참조 문장에 근접하고 수용도가 높다.

10) 단어를 고정된 차원의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단어들이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인다. 단어 간의 의미적, 문법적 관계의 수치적 파악이 가능하다.

5. 번역 품질 개선 분석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번역 품질 개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BERTScore, BLEURT를 통해 번역 품질 개선도를 살펴보았다.

5.1.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번역 품질 테스트

번역 품질 테스트를 위한 기계번역 모델, 즉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은 앞에서 준비를 마쳤다. 두 모델의 번역 품질 테스트를 위해서는 테스트 문장이 필요하다. 테스트 문장의 중국어 원문은 ‘全国合同示范文本库’¹¹⁾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房屋租赁合同(示范文本), 河北省房屋租赁合同(示范文本))에서 추출하였으며, 개별 계약서의 글자 수가 많지 않아 동일 유형의 계약서 두 종류를 선정하였다. 계약서 원문에서 ‘[], :’ 등 문장부호, 각 조항의 순서와 표제(예: ‘第十一条 合同解除’), 계약 당사자의 선택사항(예: [是][否], [有][无] 등) 및 서명이나 날인처럼 단순 어휘로 이루어진 부분 등 테스트에 불필요한 요소 및 두 계약서에서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였다. 그런 다음 계약서 조항을 문장 단위로 엑셀 파일에 150개 셀로 정리하였다. 이 150개 테스트 문장을 범용 기계번역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에서 번역하고, 각각의 번역 문장을 BERTScore, BLEURT로 자동평가하였다.¹²⁾

```
73 # BERTScore
74 P, R, F1 = bert_score(translated, reference, lang="ko")
75 df_results["BERTScore"] = F1.tolist()
76
77 # BLEURT (Hugging Face Transformers)
78 def compute_bleurt(hypothesis, reference):
79     inputs = bleurt_tokenizer(reference, hypothesis, return_tensors="pt", padding=True, truncation=True)
80     with torch.no_grad():
81         scores = bleurt_model(**inputs).logits.squeeze().tolist()
82     return scores
83
84 df_results["BLEURT"] = [
85     compute_bleurt(hyp, ref)
86     for ref, hyp in zip(reference, translated)
87 ]
```

그림 3. BERTScore, BLEURT 자동평가 화면

11) [https://htsfwb.samr.gov.cn/\(2025.03.15.검색\)](https://htsfwb.samr.gov.cn/(2025.03.15.검색)).

12) git hub 참고문헌 참조.

5.2.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번역 품질 개선 비교

5.2.1.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ERTScore 비교

<그림 4>는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ERTScore 점수를 히스토그램과 박스플롯으로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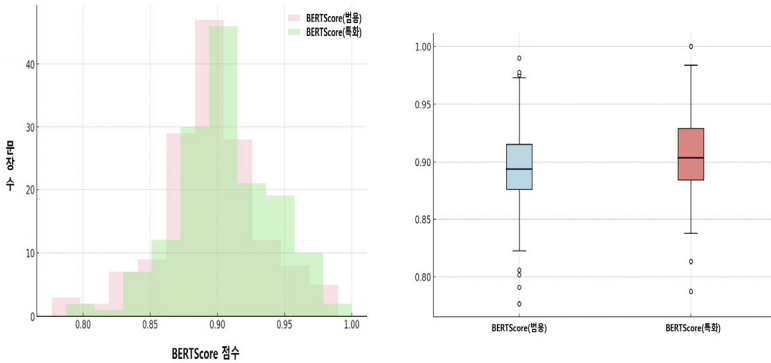


그림 4.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ERTScore 점수
히스토그램(좌)과 박스플롯(우)

왼쪽의 히스토그램은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ERTScore 분포를 보여 준다. 히스토그램에서 두 모델은 모두 높은 점수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특화 모델의 BERTScore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 범용 모델보다 더 높은 점수 영역(9.2~9.5)에 집중해 있다. 이는 특화 모델의 BERTScore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 번역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준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범용 모델의 평균은 0.8941, 표준편차는 0.0374였다. 계약서 특화 모델의 평균은 0.9054, 표준편차는 0.0362였다. 특화 모델이 평균도 더 높고 표준편차도 더 작아 일관된 성능을 나타냈다. 동일한 테스트 문장에 대한 범용 모델과 특화 모델 간 BERTScore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검정 값 -4.0005, p값 0.000099로¹³⁾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특화 모

13) 일반적으로 p값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한다. $p < 0.05$ 이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며, $p \geq 0.05$ 이면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델의 번역 품질과 일관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른쪽의 BERTScore 분포 박스플롯에서 두 모델 모두 중앙값이 약 0.90으로 번역 품질이 평균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서 특화 모델의 중앙값이 범용 모델보다 높았고, 이는 전체 번역 문장 중 50% 이상이 참고 문장과 높은 의미적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치의 경우, 범용 모델이 계약서 특화 모델보다 분포가 더 넓고, 하위 이상치의 개수도 많다. 이는 범용 모델이 특정 문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의미 유사도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BERTScore는 문장 수준에서 의미적 일치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중앙값에서 우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통해 계약서 특화 모델이 우수한 품질의 번역을 일관성 있게 생성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이 의미적 정확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은 전체 테스트 문장 150개의 BERTScore 점수를 5개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계약서 특화 모델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구간의 예문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번역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표 3. BERTScore 점수 구간별 문장 수

점수 구간		문장 수	
		BERTScore(범용)	BERTScore(특화)
1	0.777~0.820	5	3
2	0.821~0.865	18	15
3	0.866~0.910	85	71
4	0.911~0.954	32	48
5	0.955~1.000	10	13

<표 3>에서 고득점 구간인 4, 5번 구간의 계약서 특화 모델 문장 수가 더 많다. 계약서 특화 모델이 고품질의 번역 문장을 더 많이 생성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ST]

2. 违反本合同约定，擅自将房屋转租或者出借给他人的；

[TT1] BERTScore(범용), 점수: 0.874

2. 본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주택을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TT2] BERTScore(특화), 점수: 0.906

2. 본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대여한 경우

위 예문을 어휘 층위에서 살펴보면, [ST]의 ‘擅自’를 [TT1]은 ‘제멋대로’로, [TT2]는 ‘무단으로’라고 번역해 후자가 계약서 사용역에 부합하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통사 층위에서 보면, 원문의 ‘的’구문을 [TT1]이 시제와 가정의 용법에서 오류를 보인 것과 달리, [TT2]는 가정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 번역하였다. 계약서 등 중국 법률 문서에서 ‘的’구문은 특별한 통사적 구조로 [XP+的,] 형식으로 사용하면 가정의 의미를 갖는다.¹⁴⁾ 그리고 이 [XP+的,] 구조를 기계번역에 가정적 의미로 일정하게 번역하도록 학습시키면 해당 구조에 대한 의미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최승혁 2023: 117). 위 예문에서 계약서 특화 모델은 미세조정을 통해 계약서 데이터의 [XP+的,] 구조를 학습했기 때문에 가정적 의미를 정확하게 생성해 냈다. 즉, 미세조정 결과의 번역문의 어휘적, 의미적 층위에 정확히 반영되어 번역 품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2.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LEURT 비교

<그림 5>는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LEURT 점수를 히스토그램과 박스플롯으로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14) 왕제(王洁 1996), 류홍잉(刘红婴 2003), 동슈광(董秀芳 2003), 천춘(陈炯 2004), 순이화(孙懿华 2006) 등 중국 법언어학자는 법률 텍스트에서 구조조사 ‘的’가 문미에 오는 명사구 또는 그러한 구조를 ‘的’구문으로 정의하고 특별한 용법으로 보았다. 특히 이러한 구문은 법률 텍스트에서 가정적 조건 관계를 표시하는 동시에 고유의 문체적 특징까지 드러낸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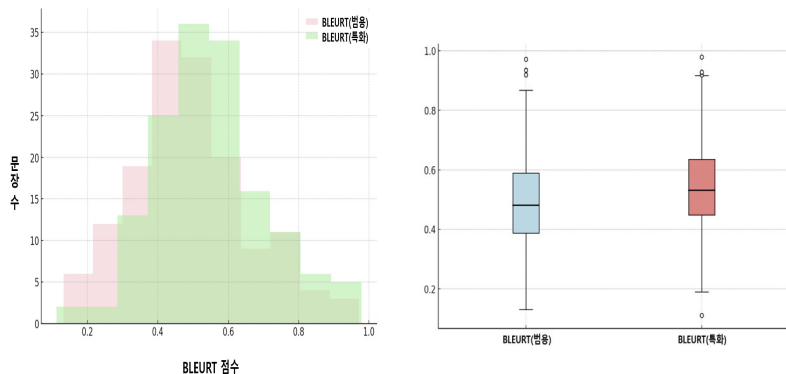


그림 5.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LEURT 점수
히스토그램(좌)과 박스플롯(우)

왼쪽의 히스토그램은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LEURT 점수 분포를 보여준다. 두 모델 모두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였지만, 고득점 구간에서 더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계약서 특화 모델이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범용 모델의 평균은 0.4831, 표준편차는 0.2097이었다. 계약서 특화 모델의 평균은 0.5378, 표준편차는 0.2022이었다. 계약서 특화 모델의 평균이 더 높고 표준편차도 더 작아 성능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테스트 문장에 대한 범용 모델과 계약서 특화 모델 간 BLEURT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t-검정 값 -3.9669, p값 0.00011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번역 품질의 일관성이 높았다.

BLEURT는 문장의 의미적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 번역 문장과 참조 문장과의 의미적 일치성이 높을수록 값이 크다. 오른쪽의 BLEURT 박스플롯을 살펴보면, 두 모델의 BLEURT 점수는 0.4~0.7 범위에 분포했다. 계약서 특화 모델은 중앙값이 약 0.52로 범용 모델의 약 0.45 대비 다소 상승해 계약서 특화 모델이 참조 문장에 가까운 번역 문장을 생성하였다. 이상치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상한을 초과하는 고득점 이상치가 두 모델에서 각각 3건씩 발생했는데 이는 번역문의 의미적 일치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해당 원문의 길이나 특정 어휘의 연어 관계 등 문장의 특성을 파악해 어떤 유형의 문장에서 번역 품질이 특히 높은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삼을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BLEURT 점수를 통해 계약서 특화 모델에서 생성한 번

역 문장이 계약서의 언어적 특성을 잘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의미의 일치성이 높아 계약서 특화 모델에서 번역 품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전체 테스트 문장의 150개 BLEURT 점수를 5개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계약서 특화 모델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구간의 예문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번역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표 4. BLEURT 점수 구간별 문장 수

점수 구간		문장 수	
		BLEURT(범용)	BLEURT(특화)
1	0.111~0.284	15	4
2	0.285~0.457	49	38
3	0.458~0.631	59	70
4	0.632~0.804	21	27
5	0.805~1.000	6	11

<표 4>를 보면 고득점 구간인 4, 5번 구간의 계약서 특화 모델 문장 수가 더 많다. 계약서 특화 모델이 고품질의 번역 문장을 더 많이 생성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ST]

承租人有第十一条第（五）项约定情形的，应按年租金的 %向出租人支付违约金，或者出租人要求承租人将房屋恢复原状或赔偿相应损失。

[TT1] BLEURT(범용), 점수: 0.395

임차인이 제11조 제5항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연 임대료의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의 원상복구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TT2] BLEURT(특화), 점수: 0.607

임차인이 제11조 제5항에서 약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연간 임대료의 %에 따라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위 예문의 번역 품질 차이를 어휘 층위에서 살펴보자. [ST]의 ‘支付’를 [TT1]은 ‘지급’으로, [TT2]는 ‘지불’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모두 상대방에게 돈을 준다는 뜻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법령 용어에 따르면 ‘지급’은 주로 봉급, 수당, 여비 등 급여적 성질을 가진 것 및 보험급여 등을 주는 것이고¹⁵⁾, ‘지불’은 금전채권의 이행으로서 금전을 주는 것을 말한다.¹⁶⁾ 따라서 ‘지불’이 계약서 사용역에 적합하다.

계약서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중요하다. 계약서 등 법률 문서는 최소한 두 명의 주체가 필요하고, 이들은 서로 대척점에 서서 동작이나 행위에 방향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번역해야 한다(최승혁 2023b: 524). 예문에서 원문의 ‘承租人’을 [TT1]은 ‘임대인’으로, [TT2]는 ‘임차인’으로 번역해 후자의 정확성이 높았다.

분석의 편의상 문장 단위로 분절했지만 [ST]의 ‘有第十一条第(五)项约定情形的’에는 6가지 하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TT1]은 제5항 자체에 한 가지 상황만 있는 것으로 번역한 반면 [TT2]는 하위 항목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도록 원문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

BLEURT 점수에서도 계약서 특화 모델이 어휘적, 의미적 층위에서 계약서 사용역에 더욱 정확하게 부합해 높은 번역 품질을 보여주었다.

6. 나오며

본고는 중국어 계약서 데이터를 미세조정하여 구축한 계약서 특화 모델을 통해 중한 계약서 번역 품질의 개선을 살펴보았다. 번역 품질은 의미 기반의 평가가 가능하고 인간 평가와의 상관성이 높은 BERTScore, BLEURT를 사용했다. 평가 결과, 계약서 특화 모델의 BERTScore, BLEURT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번역 품질 개선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도메인 특화의 효용도 확인하였다.

BERTScore, BLEURT 점수를 시각화한 히스토그램에서 계약서 특화 모델의 점

15)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Keyword.do>(2025.05.05.검색).

16)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Keyword.do>(2025.05.05.검색).

수가 고득점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박스플롯에서도 중앙값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특화 모델이 생성한 번역문은 전문용어, [XP+的,] 구조, 주체와 대상 등 법률 문서인 계약서의 사용역을 어휘, 통사, 의미 층위에서 정확하게 번역해 범용 모델에 비해 개선된 번역 품질을 보여주었고, 이는 BERTScore, BLEURT 점수로도 증명되었다. BERTScore, BLEURT 점수는 인간 평가와 상관성이 높아 계약서 특화 모델의 번역문은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법률 도메인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영어와 특허에 연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중국어 계약서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연구 외연의 확장과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의 효용 증명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여러 한계점과 함께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첫째, 데이터 규모의 한계이다. 계약서는 매매, 임대차, 상속 등 매우 구체적인 하위 분류가 있고, 분류별 사용역이 다양하다. 본 연구는 임대차 계약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지만, 향후 다양하고 방대한 계약서 데이터를 구축해 도메인 특화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BERTScore와 BLEURT 자동평가 지표는 빠르고 일관된 평가에는 용이하지만, 수동평가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동평가와의 상관성 분석이나 보완적 측면에서 수동평가 추가 등 보다 정교한 평가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번역 품질 개선 항목의 구체적인 유형을 어휘, 통사, 화용 등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귀납, 정리하고, 이를 다시 미세조정 데이터 가공 과정에 반영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선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은 법률 분야 이외에도 의료, 금융, IT 등 확장 가능성과 수요가 높은 분야이다. 현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의 여러 제한점을 극복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혜림. (2021). 「중한 법령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예비 연구」. 『번역학연구』 22: 65-99.
- 이건철. (2022). 특허데이터로 학습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공지능법망 번역모델.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 (2022). 「법률 특화 번역엔진 성능 평가—한영 계약서 번역을 중심으로」. 『T&I review』 12: 169-192.
- 이지은·최효은. (2023). 「인공지능법망 기반 맞춤형 기계번역엔진의 성능 평가: 법률 및 특허 한영번역 결과물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 9-37.
- 이지은·최효은. (2024).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및 포스트에디팅의 오류 비교: 한영 법률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 11-39.
- 임형재·리벤켈빈. (2024). 「한국어 번역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평가모델 연구 - 다중 자동평가지표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21: 183-210.
- 정혜연·서수영. (2022). 「버트(BERT)를 활용한 인간번역의 자동평가 : 여러 모델의 성능 비교 및 활용 가능성」. 『통번역학연구』 26: 117-137.
- 최승혁. (2023a). 「법률 특화 기계번역을 위한 중국 법률 텍스트의 어휘적 특징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예로」. 『중어중문학』 92: 349-380.
- 최승혁. (2023b). 「법률 도메인 특화를 위한 중한 기계번역 오류의 귀납적 분석: 중국 민법전의 파과고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 507-537.
- 최승혁. (2024).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 모델 연구: 중국 민법전을 실례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중국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효은. (2022). 「기계번역의 특허 전문용어 한영번역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 분석—구글 번역 결과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7: 217-244.
- Scabini, L., De Baets, B., and Bruno, O. M. (2022). Improving Deep Neural Network Random Initialization Through Neuronal Rewiring. arXiv preprint arXiv:2207.08148.
- Sarcevic, S.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Zhang, T., Kishore, V., Wu, F., Weinberger, K. Q. and Artzi, Y. (2020). *BERTScore: Evaluating text generation with BERT*.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ICLR)*. arXiv:1904.09675.
- Wenbo, Wang. (2023). A review of machine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Frontiers in Computing and Intelligent Systems* 5: 108-110.
- Yan, Y., Wang, T., Zhao, C., Huang, S., Chen, J., Wang, M. (2023). BLEURT Has Universal Translations: An Analysis of Automatic Metrics by Minimum Risk Training. In *Proceedings of the 61st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 5428-5443.
- 陈炯. (1998). 『法律语言学概论』. 西安: 陕西人民教育出版社.
- 董秀芳. (2003). 「“的”字短语做后置关系小句的用法——兼评法律文献中“的”字短语的用法」. 『语言文字应用』 4: 120-126.
- 李振宇. (2006). 『法律语言学新说』. 北京: 中国检察出版社.

刘红婴. (2003). 『法律语言学』.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孙懿华. (2006). 『法律语言学』. 长沙: 湖南人民出版社.
王洁主编. (1996). 『法律语言学教程』. 北京: 法律出版社.

[인터넷 자료]

머니투데이. (2024). 대형로펌 뛰쳐나온 변호사, 챗GPT보다 똑똑한 ‘AI 번역’ 해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317155448271>(2025.04.05.검색).
네이버 중국어 사전. <https://zh.dict.naver.com/#/search?query=%E7%BB%AD%E7%A7%9F>
(2025.05.05.검색).
법무부. <https://zh.dict.naver.com/#/search?query=%E7%BB%AD%E7%A7%9F>(2025.03.05.검색).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Keyword.do>(2025.05.05.검색).
GitHub. https://github.com/Tiiger/bert_score(2025.02.20.검색).
GitHub. <https://github.com/google-research/bleurt>(2025.02.20.검색).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https://htsfwb.samr.gov.cn/>(2025.03.15.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9 May 2025; revised on 9 June 2025; and accepted on 16 June 2025.

Authors' email addresses

choi00joy@hanmail.net

kbq43@sogang.ac.kr

About the authors

Seunghyuk Choi (first author) is a Lecturer in the Korean-Chi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rogram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machine translation and AI-based translation.

Byeongkwu Kang (corresponding author)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hinese Culture at Soga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from the Institute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at Peking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modern Chinese grammar, linguistic typology, corpus linguistic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생성형 AI 기반 프로그래밍 지원도구의 통역 실무 응용 및 통역사 역할 확대 가능성 고찰: 용어 추출 및 기계통역 웹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중심으로

허지운*

Jiun Huh (2025). Exploring the potential of using AI programming assistants for supporting interpreters' professional needs and expanding their roles: Developing application prototypes for terminology extraction and machine interpreting.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interpreting application prototypes using an AI programming assistant, exploring how such technologies can support interpreters' professional needs and potentially expand their roles. It adopts the vibe coding paradigm, which involves generating code through natural language prompts. Using Cursor, an AI code editor, the study developed three prototypes: (1) a terminology extraction web application, and (2) two machine interpreting web applications. The findings demonstrate how AI programming assistants can be leveraged to create custom solutions that support interpreting workflows while also helping interpreters build technological literacy.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current machine interpreting technologies and the potential professional opportunities they present for interpreters. Finally, it highlights the fundamental nature of communication — encompassing both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features —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uman-technology coexistence through collaborative partnership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제1저자

Keywords: AI programming assistant, vibe coding, interpreter, automatic speech translation, machine interpreting

주제어: AI 프로그래밍 지원도구, 바이브코딩, 통역사, 자동음성번역, 기계통역

1. 서론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22년 OpenAI의 GPT-3.5 발표와 함께 인공지능은 가파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GPT-3.5의 자연스럽고 유창한 대화 능력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이종현 2023; Wiggers et al. 2025), 이후 발표된 GPT-4o는 정밀한 논리적 사고까지 수행하며 미국의 각종 대학 입시 및 변호사 자격시험(SAT, GRE, LSAT 등)에서 상위 10~20%에 해당하는 고득점을 획득하면서 전문직 영역에까지 위기감이 확산하였다(Edwards 2023). 자연스럽고 유창한 대화를 구사하고 번역 능력까지 겸비한 GPT-3.5가 공개되었을 당시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직업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쏟아졌으며, 통번역사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GPT-4o 출시 이후로는 거의 모든 화이트칼라 전문직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인간 노동 전반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확산되었다(Briggs and Kodnani 2023; Kelly 2025).

그러나 과연 언론과 소셜 미디어의 주장처럼 위기가 현실화 되었을까? 생성형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것이 통번역 현장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일까? 과거의 궤적만으로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는 비슷한 흐름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통번역 관련 기술의 등장과 이후의 궤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번역 역사에서 두드러진 기술 혁신으로는 인간 통역사의 동시통역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동시통역 모듈을 들 수 있다. IBM에서 1927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 덕분에 순차통역으로만 진행되던 회의에 동시통역의 가능성이 열렸다(IBM n.d.). 이후 IBM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 무선 기술 기반의 동시통역 시스템인 IBM Wireless Translation System을 개발하였고, 이를 UN, 올림픽 위원회, 적십자,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에 공급하면서 동시통역이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IBM n.d.). 번역에 있어 획기적인 기술은 단연 컴퓨터보조번역 도구인 CAT(Computer Assisted Translation)이다. 원문과 번

역 코퍼스가 쌓으로 정렬되어 번역 메모리에 기록됨에 따라, 반복되는 원문에 대한 기존 번역 결과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번역 시간 단축 및 번역 물량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이준호와 김순미 2022; Pangnani 2023).

한편, 기계통역(Machine Interpreting) 또는 자동음성번역(Automated Speech Translation, AST)에 대한 관심과 개발 노력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허지운 2016: 174). 인간 통역사를 건너뛰고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발화자 간에 각자의 모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그동안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만 것이 현실이며, 국제회의 및 통역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기계통역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였다(허지운 2016). 이처럼 그간에 등장한 획기적이면서 유효한 통번역 기술은 인간 통번역사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신규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궁극적 서비스 공급자인 인간 통역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유용한 ‘보조도구’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인간이 그동안 차지해 온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준다는 점에서 과거의 통번역 보조 기술과 차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감은 인간과 기술을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인식에 기인한다. 지금까지는 이 구도가 이어져 왔다. 인간 통번역사는 언어, 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지 기술 전문가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의 발달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 변화를 수반하였다. ChatGPT에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대화형으로 번역을 주문하듯, 생성형 AI에 대화형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간단한 기초 코딩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르파티(Karpathy 2025)가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이라 칭한 생성형 AI 기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통번역사의 기술 이해에 일조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바이브코딩을 실시하여 생성형 AI 기반 프로그래밍 보조도구가 통역사의 실무에 어떻게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고 통역사 역할 확대에 있어 어떠한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바이브코딩(vibe coding)은 테슬라(Tesla)의 전 AI 부문 이사이자 OpenAI의 창립멤버인 안드레이 카르파티(Andrej Karpathy)가 감이나 직관적 흐름에 따라 코딩

을 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명명한 것으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지수함수적 발전에 힘입어 자연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코딩하는 새로운 방식을 지칭한다(Karpathy 2025). 화이트(White 2024)는 생성형 AI의 기반인 트랜스포머 모델(Transformer model)이 본래 언어 번역 용도로 구축되었지만, 입력된 프롬프트를 분류, 해석, 실행하는 과정도 결국 입력자의 ‘의도’를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생성형 AI가 이러한 ‘번역’ 과정을 통해 인간의 의도와 컴퓨터의 작동 간 간극을 좁히는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자연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입력한 사람의 의도를 자연어 문장 속에서 파악하여 이를 소스코드로 번역하고, AI 에이전트(Agentic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툴의 다양한 API와 연동하여 입력자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White 2024). 화이트는 이것이 정적인 코딩이 아닌 동적이며 살아 있는 코딩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은 코드 그 자체가 아닌 입력자의 목표와 의도가 담겨 있는 프롬프트 대화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표적 바이브코딩 도구, 또는 AI 기반 프로그래밍 보조 도구로는 Cursor, GitHub Copilot, Replit Ghostwriter를 들 수 있다.

바이브코딩은 코드를 우선 생성한 후 반복적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세밀하게 정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초기 컨셉과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손쉽게 제작하여 시험해 볼 수 있고, 바이브코딩 툴의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boilerplate code)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개발자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Barke et al. 2023; Sajja et al. 2024; Harkar 2025). 또한 개발자에게는 자신이 잘 모르던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기회가 된다(Smith 2025a).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낮아진 진입장벽 덕에 코딩 문외한조차 바이브코딩으로 앱을 만들 수 있다(Harkar 2025).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원하는 목표를 자연어로 입력하면 해당 생성형 AI 프로그래밍 보조도구가 코드를 생성하고, 이용자는 코드가 산출한 앱을 확인하며 대화 프롬프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다듬으면 될 정도로 이용법이 간편하기 때문이다(Fakhoury et al. 2024).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라고 카르파티가 표현할 정도로 손쉽게 대화형 코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Karpathy 2023), 바이브코딩 툴인 Cursor나 GitHub Copilot의 프롬프트는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도 지원한다.

실제로 개발자들도 현장에서 바이브코딩이 가능한 생성형 AI 프로그래밍 보조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GitHub의 미국 개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92%가 이미 업무 내외적으로 AI 코딩 툴을 사용하고 있고 70%는 코드 품질과 성능 향상의 장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Shani 2023).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도 바이트코딩을 시도하고 있다. ChatGPT, DallE, Midjourney를 이용하여 3일 만에 앵그리버드와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사례(Lopez 2023), ChatGPT와 Cursor를 이용하여 PDF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일괄변환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10분 만에 개발한 사례(McNulty 2025), Claude 3.5 Sonnet을 이용하여 간단한 주사위 게임을 개발한 사례(Smith 2025b)를 통해 코드를 알지 못하여도 생성형 AI와의 지속적 프롬프트 대화를 통해 간단한 앱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쉬운 만큼 분명한 한계도 있다. 스택오버플로우(Stackoverflow 2023)의 9만 명의 개발자 대상 2023년 설문조사에서 77%의 응답자가 생성형 AI 프로그래밍 보조도구에 대하여 호감을 보였지만 42%는 정확도 면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개발자들이 생성형 AI 프로그래밍 보조도구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빌라 외(Davila et al. 2024)가 브라질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생성형 AI 프로그래밍 보조도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개발자들은 ChatGPT와 GitHub Copilot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해당 도구가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맥락에서 벗어난 코드를 제시하거나 기존 레거시 도구와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Davila et al. 2024). 바이트링엄 외(Vaithilingam et al. 2022)는 GitHub Copilot을 이용한 코딩 과제 비교 실험을 시행하였는데, Github Copilot이 비교적 정확한 코드를 생성하고 코딩의 유용한 출발점을 제시하며 온라인 검색 시간을 단축해 주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코딩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코드의 의도를 참가자들이 이해하고 수정하거나 숨은 버그를 찾아내 디버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Vaithilingam et al. 2022). 와이즈 외(Weisz et al. 2025)는 IBM 사내에 배포된 LLM 기반 Watsonx Code Assistant를 사용한 684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참가자가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였으나 속도와 품질은 기대에 못 미쳤고 AI가 생성한 코드의 저작권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이트코딩이 코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코딩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제공하며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고려하면 코딩 초급자 교육에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판 외(Fan et al.

2025)는 대학교 학부 과정 코딩 수업에서 GPT-3.5 Turbo 및 Claude Opus를 사용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프로그래밍 불안감 감소, 코딩 동기부여 상승, 코딩 과제 성과 향상 효과를 보여 초보자에게 유용한 학습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썬 외(Sun et al. 2024)에서는 ChatGPT를 이용한 코딩 학습 시 학습자들이 오류 로그 확인과 디버깅을 더 활발히 하고 웹사이트에 콘솔 메시지를 복사하여 피드백을 구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평균 성적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코딩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제해결 능력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Sun et al. 2024).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듯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최근 새롭게 부상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 바이브코딩은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낮은 코딩 진입장벽 및 코딩 학습곡선 향상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술 활용을 요구받는 통역사에게 실무나 교육 측면에서 유익한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성형 AI 프로그래밍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통역 관련 앱을 개발해 보면서 바이브코딩과 통역 관련 기술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통역사 실무 응용 및 통역사 역할 확대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개발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하여 바이브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자연어 프롬프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여 통역 관련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통역 관련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통역사 역할 확대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역 관련 도구를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며,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 프로그래밍 보조도구 중 Cursor 0.49.6 버전을 선택하였다. Cursor는 AI 코드 편집기(AI code editor)를 표방하며 코드 자동완성 및 프롬프트를 통한 AI 기반 자동코딩을 제공한다.¹⁾ 연간 반복매출(ARR)이 2023년 1백만 달

1) <https://www.cursor.com/features>

리에서 2024년 1억 달러로 12개월 만에 급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Cursor는 주요 구독 고객층이 개인 개발자들이라는 점에서(Asplund 2025; Tap Twice Digital 2025), 본 연구의 개발 목적 및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Cursor를 이용한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월 20달러의 유료 프로(Pro) 요금제를 구독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Cursor 애플리케이션의 프롬프트 기반 코딩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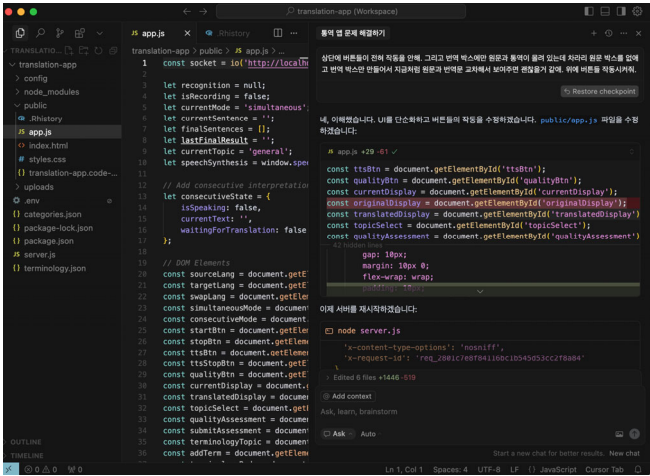


그림 1. Cursor의 프롬프트 기반 코딩 화면

이와 더불어 코드에 대한 설명 참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로직 아이디어 탐색을 위하여 GPT-4o 및 GPT-o3 유료 버전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래밍은 ChatGPT 등 범용 생성형 AI 사용 방식인 자연어 프롬프트 입력 방식을 사용하였고, 직접 코드 편집 작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아 순수한 바이트코딩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번역 관련 도구인 용어 추출 프로그램과 기계통역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을 로컬 호스트 기반의 데스크탑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축하였다. 이는 통역 보조 도구의 실용성과 통역 자동화 도구의 화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용어추출 프로그램은 통역 실무 준비의 핵심인 용어 정리 및 학습 단계에 기술을 접목하면 통역 보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Fantinuoli 2017), 그리고 기계통역 프로그램은 최근 통번역 관련 프로그램 중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개별 통번역사가 직접 구현해 보기 어려운 기술이었다는 점에서 선

정하였다.

3.2. 용어 추출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통역사의 언어 역량 함양을 위한 용어 추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통역사는 통역 역량을 함양하거나 통역 실무 과제를 앞두고 사전 준비에 매진한다. 통역 과제에 앞선 사전 준비는 언어 및 언어외적 지식의 격차를 좁히고 통역 수행 시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Fantinuoli 2017). 이에 통역사는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기본 텍스트 및 도메인 정보가 담긴 텍스트를 읽으며 어휘력, 문장력 및 텍스트 이해력을 함양한다. 특히 전문분야의 경우 일반 명사, 명사나 명사구 중심의 전문용어뿐 아니라 술어적 특성을 지닌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와 고빈도로 호응하는 동사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이미경 2018; 최문선 2018, 2019). 판티누올리(Fantinuoli 2017)는 통역사가 특정 분야 통역 경험이 풍부한지와 무관하게 전문용어뿐 아니라 해당 도메인에서 자주 쓰이는 일반 용어들도 익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문분야 통역을 위해 익혀야 할 용어를 고빈도 전문용어, 저빈도 전문용어, 도메인 특화 일반 용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통역사의 용어 습득 및 용어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역사가 이 과정을 자율적이고 용이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코퍼스 기반 통역 준비(Corpus Driven Interpreter Preparation, CDIP)와 데이터 주도 학습(Data Driven Learning, DDL)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용어와 연어 추출 기능, 해당 표현이 어떤 문장과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콘코던서(Concordancer), 그리고 해당 용어의 번역 표출 기능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Fantinuoli 2017).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용 및 통역 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어추출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물론 이미 인터프리터스 헬프(Interpreter's Help),²⁾ 인터프리트뱅크(InterpretBank),³⁾ 스케치엔진(Sketch Engine)⁴⁾ 등의 상용 용어 추출 및 관리 서비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도구들은 개인 맞춤화 도구가 아니고, 서비스 가입을 해야 하며, 한시적 무료 시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 맞춤화된 용어 추출 프로

2) <https://interpretershelp.com>

3) <https://www.interpretbank.com/index.html>

4) <https://www.sketchengine.eu>

그럼 개발 시 사용자 니즈에 맞춤형된 기능을 설계할 수 있고, 개인 용어집을 상용 서비스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개인 데이터 통제나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덜하다. 더 나아가 프롬프트 기반의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어 통역사의 체험 기반 AI 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2.1. 최초 설계 및 구현

연구자가 당초 설계한 것은 사용자가 도구에 입력한 영문 텍스트에서 주요 전문 용어와 표현들을 추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 대응어를 번역하여 병기하는 용어집이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하여 Cursor는 TypeScript와 React를 이용한 기본적인 용어추출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생성하였다. 이후 품사별 용어 추출과 불필요한 기능어(전치사, 관사/정관사, 숫자 단독 추출) 제외를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관련 작업도 진행하였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로컬 호스트(<http://localhost:3003/>)에서 실행하였다. 웹 브라우저는 MacOS 15.4.1에서 구동되는 Chrome 135.0.7049.115 버전을 이용하였다. 아래 표 1은 연구자의 프롬프트와 Cursor의 코딩 내용이다.

표 1. 프롬프트 기반 1차 프롬프트 및 코딩 내용

최초 프롬프트	• 용어추출 앱 생성 요청
코딩 진행 내용	• package.json 파일 생성하여 프로젝트의 의존성을 설정 • tsconfig.json 파일 생성하여 TypeScript 설정 추가 • scr 디렉토리 및 기본 컴포넌트 생성 • 용어 타입 정의 파일 생성 • 메인 앱 컴포넌트 생성 • index.tsx 파일 생성하여 앱 렌더링 • public 디렉토리 생성 및 index.html 생성 • 필요 패키지 설치 및 개발 서버 실행
구현된 기본구조	• 용어 목록 그리드 형태 표시 • 각 용어 카드에 용어, 정의, 카테고리 표시 • 반응형 디자인 • 모던한 UI/UX
추가 프롬프트	• 품사별 주요 용어 추출 (자연어 처리, 문맥 분석) • 기능어(관사, 정관사, 전치사, 의문사, 접속사, 일반적 어휘) 단독,

	숫자, 월, 요일, 문장부호 등 제외 • 전문용어 추출 강화(명사형, 복합어 위주) • 용어 추가/수정/삭제 기능 추가 • 용어 출처 문장 표시 기능 추가 • 용어 저장 기능 추가 • 용어 검색 기능 추가
--	---

코딩 결과 아래 그림 2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었다. 전체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와 입력부 및 품사별 분류는 구현이 되었다. 그러나 품사별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수정이 필요하였다. 미국 주식시장 관련 기사를 입력한 결과, 명사 카테고리에는 대체로 전문용어 위주로 명사형 복합어가 추출된 편이나, ‘bringing it above’와 같은 분사구문이 포함되었고, 특히 동사 카테고리에는 지속적으로 ‘benchmark share index’, ‘closing level’, ‘downside surprise’ 등 명사 카테로리로 분류되어야 할 어휘들이 포함되고 추가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용어 정리 앱

Friday's data indicated that federal government employment declined by 9,000 in April and by 26,000 since January.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was unchanged at 4.2 per cent.

Claudia Sahm, chief economist at New Century Advisors, said that while Trump's economic policies were "anything but subtle" their initial impact was "relatively small".

She added that it would take time for them "to work through the system, which means the Fed is going to wait", and that any cuts were likely later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rather than at the central bank's meetings during the next two months.

전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용어 추출

새 카테고리 입력

추가

카테고리 선택

▼

검색

필

국제관계

필

용어 입력...

용어집 보기

용어집 초기화

추출된 용어

benchmark share index

부호 삭제 ▼

Wall Street's benchmark share index had plunged as much as 15 per cent in several days of turbulent trading after the US president's announcement, triggering turmoil across global financial markets

용어집에 추가

bringing it above

분류 선택 ▼

4 per cent on Friday morning, bringing it above the closing level from April 2, when Trump unveiled his so-called "reciprocal tariffs"

용어집에 추가

Bureau of Labor Statistics

분류 선택 ▼

The 177,000 jobs added in April, according to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surpassed the 185,000 predicted by economists polled by Bloomberg, although the number marked a fall from March's downwardly revised 185,000 posts

용어집에 추가

closing level

분류 선택 ▼

4 per cent on Friday morning, bringing it above the closing level from April 2, when Trump unveiled his so-called "reciprocal tariffs"

용어집에 추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분류 선택 ▼

Friday's job numbers came after mass firings of thousands of federal employees by Elon Musk's so-called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용어집에 추가

downside surprise

분류 선택 ▼

"People were fearful of a downside surprise that wasn't forthcoming," said Mike Riddell, a fund manager at Fidelity International

용어집에 추가

그림2. 1차 결과물

5) 입력 텍스트 출처: <https://www.ft.com/content/5ab8bce3-e3d9-48b8-a3a3-d8a563447ca8>

또한 카테고리 선택 및 분류, 용어 검색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능을 많이 추가하기보다는 최대한 기능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추가 수정 사항은 3.2.2.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2.2. 설계 수정

설계 수정 단계에서는 품사별 추출의 지속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였다. 전체, 전문용어, 일반표현으로 카테고리를 단순화하여, 전문용어 카테고리에는 최대 3 토큰의 명사형 복합어를 추출하고, 일반표현 카테고리에는 주제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동사 위주로 최대 5 토큰의 복합어를 추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선 프롬프트만으로는 기대하는 수준의 전문용어나 전문 동사구 추출이 원활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구문이 다수 추출되었다. 이에 ChatGPT가 전문용어를 추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추가 프롬프트를 Cursor에 입력하였다. 한편, 기능 단순화를 위하여 카테고리 추가 및 용어 검색 기능은 삭제하였다. 대신 편의성을 위하여 전문용어집 저장 및 삭제 기능과 저장된 용어 목록을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Google Translation API와 연동하여 추출된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로컬 호스트(<http://localhost:3004/>)에서 실행하였다. 주요 추가 내용 및 최종 구현 내용을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프롬프트 기반 수정 내용

프롬프트 수정 요청사항	- 카테고리 수정: 전체, 전문용어, 일반표현 - 전문용어 추출 로직: 도메인 특화 용어, 행위가 아닌 대상 자체를 지칭하는 명사(구), 공식 기관명, 주변 문장과 별개로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구), 전문 약어, 글에서 반복되는 논지 연관 핵심 용어 포함; 일반 명사는 고정된 기술 용어의 일부일 때만 포함 - 일반표현 추출 로직: 유의미한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중심, 전치사/부사/목적어와 함께 고정된/반고정된 단위를 형성하는 동사구, 관용적 표현, 문맥 없이도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위 포함 - 카테고리 추가 및 용어 검색 기능 삭제 - 전문용어집 저장, 삭제, 엑셀 파일 내보내기 기능 추가 - 추출된 용어별 대응 한국어 출력 기능
프롬프트 추가 수정 요	- 전문용어 추출 강화, 전문동사구 필터링 강화, 불완전 구문 필터링 - 표제어(lemma)로 정규화

청사항	▪ n-gram/구문 클러스터링: 유사도 높은 구문끼리 클러스터링 ▪ 불용어 및 약한 의미 표현 제거: 조동사, 부사 등 ▪ 낮은 빈도 구문 필터링
최종 구현구조	• 용어 추출 기능 ▪ 전문용어: 최대 3 토큰으로 제한, 전문용어 리스트와 매칭, 불필요한 패턴 필터링, 도메인 특화 단어 많은 구문 우선 ▪ 일반표현: 최대 5 토큰으로 제한, 동사 중심의 표현 추출, 전치사/부사와 결합된 동사구 포함, 전문동사구 우선 ▪ 불완전 구문 필터링 강화, 유사도 기반 클러스터링 임계값 상향 조정 • 번역 기능 ▪ 용어별 영한 번역 기능 ▪ 번역 버튼을 통한 개별 번역 ▪ Google Translation API 활용 ▪ 번역 결과 캐싱 처리 • 용어 관리 기능 ▪ 용어 저장/삭제 기능 ▪ 저장된 용어 카테고리별 분류 ▪ 원문과 번역 함께 표시 • 엑셀 내보내기 기능 ▪ 저장된 모든 용어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최종적으로 구현된 웹 애플리케이션 및 엑셀 저장 화면은 그림 3과 같다.

[illegible]

그림3. 용어 추출 웹 애플리케이션: 텍스트 입력부와 추출부(좌측), 사용자 저장 용어 목록(우측 상단), 엑셀 저장 파일(우측 하단)

최종적으로 구현한 용어 추출 웹 애플리케이션은 용어 추출, 용어 대응어 번역, 용어 저장, 엑셀 내보내기의 형식 기능 측면에서는 문제없이 구현되었다. 콘텐츠에 해당하는 용어 추출 측면에서도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질만한 언어 조합이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개인 전용 앱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프로토타입 수준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지속적 용어 추출 로직 조정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3. 통역 프로그램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번역 기능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계통역도 드물게나마 일부 회의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어 인간 통역사들에게 막연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최선 2025). 그러나 실제 없는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해당 기술의 작동 원리와 구체적 장단점을 파악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바이브코딩을 통해 기계통역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인 기계통역 혹은 자동통역 시스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음성인식 모듈이 언어1의 음성을 인식하여 문자열로 결과물을 생성하면, 자동번역기가 언어1의 문자열을 언어2의 문자열로 변환하고, 이후 응용분야에 따라 번역된 문자열을 자막으로 출력하거나 음성신호 합성을 거쳐 음성으로 출력한다(김승희 외 2014). 각 요소 기술은 자체개발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상용 서비스의 음성인식 및 합성 기능, 번역, Speech-to-Text, Text-to-Speech 등의 API를 연동하여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Oppenheimer 2024). 다만, 인공지능 번역 애플리케이션 대비 자동통역 기술 개발 선행연구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음성 인식 품질과 전문용어 번역의 정확성 문제이다(김승희 외 2014; 장애리 2019; 최은실과 김아영 2020). 중국 인공지능 통역의 발전 현황을 분석한 장애리(2019)는 인공지능의 비교적 뛰어난 음성인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연사가 두 개 언어를 혼용하여 번역 엔진을 동시 가동시키는 경우, 연사가 무의미한 기능어를 단속적으로 반복함에도 번역엔진이 유의미한 값으로 변환하는 경우, 고유명사/약어/숫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음성 인식 문제와 전문용어 번역 오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 ETRI의 실시간 자동통역 시스템 사례를 분석한 최은실과 김아영(2020)도 전문용어 학습부족으로 인한 용어 자동번역 오류, 화자 방언 등으로 인한 음성인

식 오류, 구어체 인식 실패 오류, 자막표출 지연 문제, 문장 경계 인식 오류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번역단위 분할 문제를 보고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본고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사료된다.

3.3.1. 설계

연구자는 영어와 한국어 간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을 수행하고 원문과 통역 결과물을 텍스트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 기능에 집중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였다. 연구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Cursor는 JavaScript와 Node.js 등을 이용하여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였다.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은 ST(Source Text, 원문) 음성 인식 및 전사(Speech-to-Text, STT), 번역, TT(Target Text, 번역문) 시각화 기능이 핵심이며, 이중 STT는 Web Speech API 또는 Google Cloud STT API와 연동하고, 번역 기능은 Google Translation API나 OpenAI API와 연동하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T 연동 API 종류별로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과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2’ 프로토타입 2종을 개발하였다.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에는 TTS(Text-to-Speech) 기능을 추가하여 통역 결과물의 음성화 기능 구현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였다. 우선,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 구조는 표 3과 같다.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은 Safari 18.4와 Chrome 135.0.7049.115 브라우저를 통해 로컬 호스트(<http://localhost:3002/>)에서 실행하였다.

표 3.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에 사용된 주요 기술

연사 발화 청취 (음성 입력)	Web Speech API, socket.io: 브라우저에서 음성 인식, 서버로 전송
STT	Web Speech API: 음성→텍스트 변환
번역	OpenAI API, Google Translation API: 텍스트 번역
번역 시각화	socket.io: 번역결과 UI 표시
TTS	Web Speech API: 번역문 음성 합성
실시간 통신	socket.io: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서버/API 관리	Node.js, Express, dotenv: 서버, API 연동, 환경변수관리

특별한 미세조정 없이 구현한 결과 아래 그림 4 하단의 콘솔 기록에 표시된 바

와 같이 2~3 단어 단위로 통역 TT가 즉시 표출되어 지속적 문장 수정이 발생함에 따라 텍스트의 가독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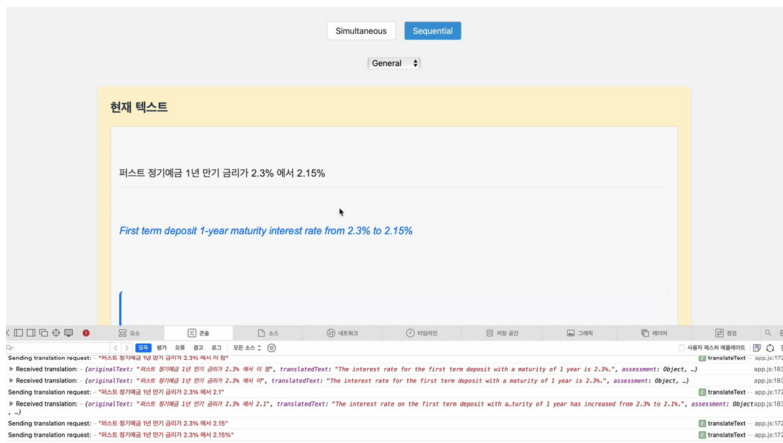


그림 4.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 초안-지속적 문장 수정 문제

이에 더해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한국어 어휘에 대해 부적절한 번역을 계속 제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용어집 기능을 추가하여 용어집에 정확한 대응어 쌍을 입력하면 번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프롬프트를 통해 수정 사항을 입력하였다.

표 4.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 구현 내용

추가 수정 프롬프트	- 출발어와 도착어(통역 방향) 설정 버튼 추가 - 문장 단위로 ST와 TT 시각화하여 가독성 개선 - 새로운 문장이 기존 문장과 연결되어 번역 지연 발생하지 않도록 문장 단위 구분 강화 (번역 요청 타이밍 조정) - 순차통역에서 연사 발화 시에는 기다리다가 연사 발화가 끝나고 ‘통역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순차통역 시작 - 영어 통역 결과물 TTS 시 원어민 발음 구현 - 가독성 개선을 위해 ST와 TT를 문장 단위로 교차 출력 - 용어집을 생성하고, 용어집에 입력한 국영문 대응쌍에 맞추어 해당 용어 번역
구현 내용	실시간 통역 기능

	▪ 음성인식(STT): 사용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Web Speech API 사용) ▪ 실시간 번역: 인식된 텍스트를 OpenAI API 또는 Google Translation API 를 연동하여 번역 ▪ 번역 결과 시각화: 문장 단위로 TT 를 실시간 표시(ST/TT 가 교차로 보이도록 UI 개선) ▪ 음성 합성(TTS): TT 언어에 따라 한국어 또는 미국식/영국식 영어 등으로 읽어줌(Web Speech API 사용) • 용어집 관리 ▪ 엑셀 업로드: A 열 한국어, B 열 영어(또는 반대) 형식의 엑셀 파일 업로드로 용어집 자동 추가 ▪ 용어집에 입력한 단어/표현이 번역에 우선 반영되도록 구현 ▪ 용어집을 분야별로 관리, 새로운 분야 추가 가능 ▪ 용어집 자동 갱신: 업로드 후 클라이언트에서 용어집이 자동으로 갱신됨 • UI/UX 개선 ▪ 문장별 시각화: 번역 결과를 문장 단위로, ST/TT 가 교차로 보이도록 개선 ▪ 상단에 ST 실시간 STT 박스 유지 ▪ 하단에 TT 박스만 남기고, 문장별로 ST/TT 교차표시
--	--

STT 및 TTS는 브라우저에 내장된 무료 Web Speech API를 사용하였다. 번역 API는 당초 무료 OpenAI API(gpt-3.5-turbo-0125)를 1순위로, 유료 Google Translation API를 2순위로 설정하였는데, OpenAI API의 무료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어 일정 기간 Google Translation API를 대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OpenAI API도 유료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4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된 실시간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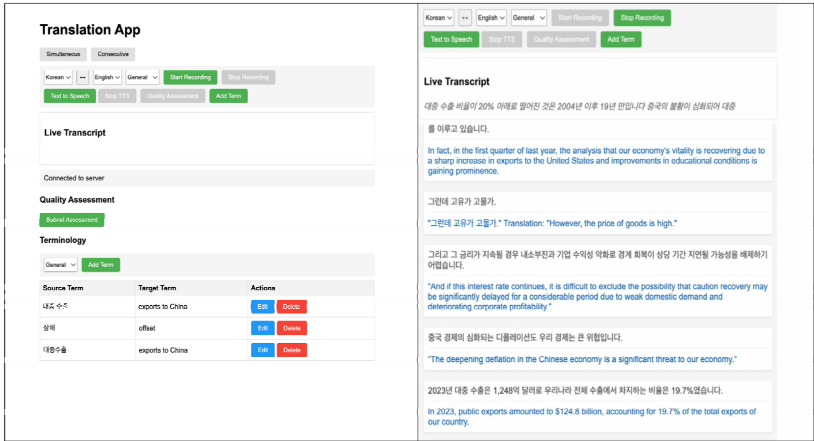


그림 5.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Web Speech API 기반)

사용성 테스트 결과 무료 Web Speech API의 음성 인식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유료 Google Cloud Speech-to-Text API(이하, Google Cloud STT API)를 호출하는 새로운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2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음성 인식 기능 차이를 비교하는 데 집중하고자 TTS나 용어집 등 부가적 기능은 생략하였다.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2는 Safari 18.4와 Chrome 135.0.7049.115 브라우저를 통해 로컬 호스트(<http://localhost:3003/>)에서 실행하였으며, 구현 내용은 <표5>와 같다.

표 5.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2 구현 내용

프롭트	• 동시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동시통역 기능만 구현) • Google Cloud STT API 연동 • 상단 박스에 실시간 발화 내용(ST) 표시(실시간 기록) • 하단 박스에 ST와 TT를 교차표시 • 하단 박스에 번역 이력 유지, 새로운 세션 시작 시 초기화 • 하단 박스에 ST와 TT는 상단 실시간 발화(ST) 기록 화면에 문장이 1~2 문장 쌓이면 완성된 문장을 표시
구현 내용	• 실시간 통역 기능 ▪ 실시간 ST 수행; 완성된 문장 단위로 TT 제공 ▪ 마침표 등 문장 부호 추가 • 실시간 발화(ST) 박스 ▪ 사용자의 발화 내용(ST)을 실시간으로 보여줌 • 번역 결과물(TT) 박스

	▪ 완성된 문장만 추가, 각 문장 독립적 번역, 중복 번역 방지 ▪ 문장부호 없어도 일정 길이 이상이거나 문장부호가 중간에 있으면 번역 시도 • 자동 에러 복구 및 UI/UX • 연동 API 목록 ▪ STT: Google Cloud STT API ▪ 번역: Google Cloud Translation API ▪ 클라이언트-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Socket.IO ▪ Node.js 기반 웹 서버 프레임워크인 Express 사용
--	---

이상으로 구현된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 2를 실행·분석한 결과는 동시통역 결과물을 중심으로 3.3.2.에서 소개하겠다.⁶⁾

3.3.2. 결과물 분석

(1) API 선택의 핵심성

3.2.절에서 검토한 용어 추출 웹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은 기능별로 API를 통해 연동할 엔진·모델 선정이 핵심이다. 음성 인식과 발화 전사 단계에 해당하는 STT 단계는 Web Speech API 또는 Google Cloud STT API의 연동, 통역/번역 단계와 TT를 화면에 문자로 기록하는 단계는 OpenAI API 또는 Google Translation API와의 연동, 그리고 TTS 단계는 다시 Web Speech API를 연동하는 것이 기능 구현의 핵심이다. 따라서 개별 개발자가 코딩을 통해서 부가 가치를 전달하는 범위는 인터페이스 계층에 해당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 구현과 통역 결과물인 TT가 효과적으로 표출되도록 최적의 텍스트 처리 방식을 찾는 것이다.

(2) 가독성- 문장 등 유의미한 의미 단위 구분 문제

앞서 3.3.1에서 설명하였듯, 최초 구현 시, 2~3 어휘 단위로 ST, TT 모두 지속적

6) 테스트용 국문 원문 출처: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21> (연구자 낭독)
<https://youtu.be/bIGyylXkl0A?si=eLqiYle1fTV4Bz2-> (영상 음성 재생)

테스트용 영문 원문 출처:
<https://www.ft.com/content/abf10a12-4bdc-4f58-aed1-9a445cae166b> (연구자 낭독)
<https://youtu.be/5XCOWLjNKZA?si=qH0X3MVss8aXIJ1t> (영상 음성 재생)
<https://www.youtube.com/watch?v=okmMvawpFes&t=1664s> (영상 음성 재생)

인 수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과 2에서는 ST에서 완성된 1~2 문장 단위로 TT를 표출하도록 하여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엔진의 문장 인식 단위 파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TT 표출 시점이나 번역 품질에 영향을 미쳤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1~2초 간의 휴지를 두면 문장 구분이 정확히 되어 1~2 문장 단위별로 ST-TT가 화면에 적절히 표시되었다. 다만 의식적으로 문장 끝마다 휴지를 뒀아 하는 만큼 화자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발화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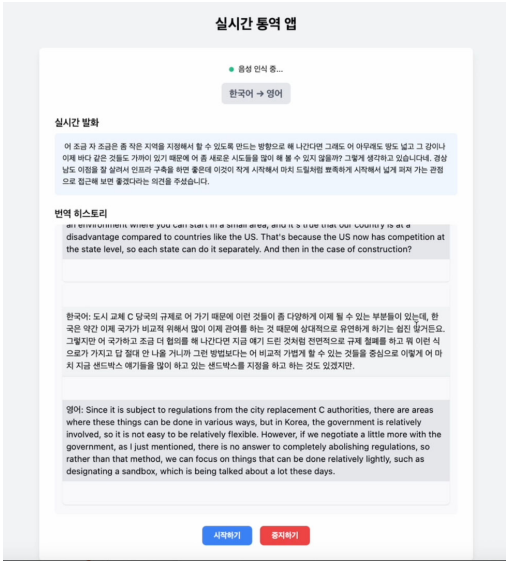


그림 6.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2(Google Cloud STT API 기반)

휴지가 1초 이하인 연속 발화를 할 경우 실시간 발화 부분에만 ST가 계속 쌓이고 번역이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2에서는 ST가 적체될 경우 완성된 문장은 TT로 먼저 표출되도록 수정하였다. 그러나 음성인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ST가 비문으로 전사되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문장이 마무리되었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ST가 계속 적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문장부호가 없더라도 ST가 적절한 길이 이상이 되면 번역을 시도하고 TT로 표출하도록 수정하였다. 그 결과 휴지 없는 빠른 발화 시에도 4~5 문장이 쌓이면 더 이상 적체시키지 않고 TT로 표출되었다(그림 6). 발화 속도

가 느리거나 구문 간 휴지가 1초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문 단위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번역 품질 문제는 (4)에서 설명하겠다.

(3) 음성 인식 문제

STT를 위해 연동한 무료 Web Speech API와 유료 Google Cloud STT API 간에는 확연한 음성인식 성능 차이가 관찰되었다. Web Speech API와 연동된 경우에도 번역 모델은 LLM 기반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하게 인식된 음성도 맥락에 기반한 수정을 통해 번역 정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특정 어휘들은 아무리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발음하여도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Safari 브라우저의 Web Speech API의 경우 한국어 출발어 ST, “중국의 불황이 심화되어 대중 수출이 급격히 하락한다면 최근 늘어난 대미 수출의 효과 상쇄를 불러온다”에서 한국어 ‘상쇄’가 문제였는데, 문장 전체의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나 ‘상세’ 등으로 인식하였고, 문장 맥락에 따라 임의로 번역하여 문장이 전체적으로 왜곡되기도 하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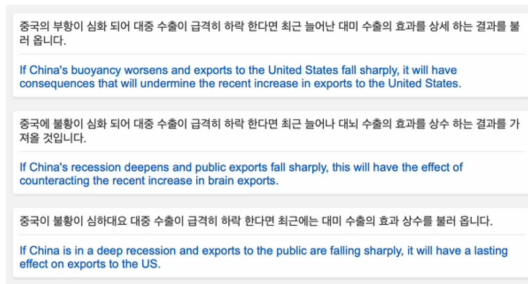


그림 7.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 결과물 - ‘상쇄’

같은 Web Speech API를 사용해도 브라우저에 따른 차이도 다소 있었다. 영어 ST, “Warren Buffett continued to sell stocks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25 amid a broad market sell-off, according to a regulatory filing ahead of the historic 60th annual meeting of his holding company Berkshire Hathaway”에서 Safari는 ‘amid’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오역이 발생하였으나 Chrome에서는 제대로 인식하여 해당 부분은 비교적 적절히 번역되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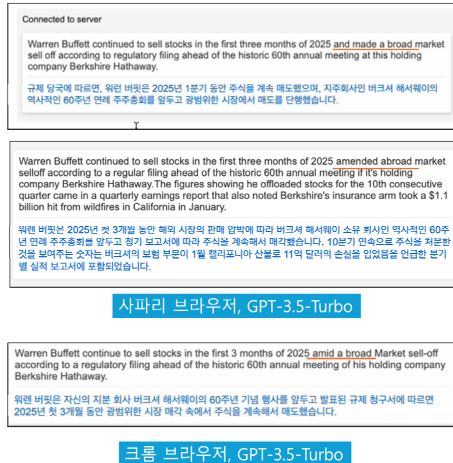


그림 8.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1 결과물 - 'amid'

유료 서비스인 Google Cloud STT API는 Web Speech API에 비해 전반적 품질이 나은 편이었지만 한국어 ST,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을 “그 육과 고물과고 금리”로 인식하고 “of the meat and the old and the high interest rates continue”로 번역하는 등 오류가 종종 발생하였다.

(4) 번역 품질 문제

기사문처럼 정형화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 음성인식이 정확히 이루어진 경우, 각 번역 엔진이 기존 텍스트 번역에서 보여주는 성능을 대체로 발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하였듯, 음성인식 오류 발생 시 번역 품질 저하로 이어졌고, 번역 엔진 자체의 대응어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오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어휘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 ‘대중 수출’이라는 표현을 Google Translation API를 통해 통역시켰을 때 줄곧 ‘public export’나 ‘mass export’로 통역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통역 시 정확한 대응어를 반영하도록 용어집에 ‘대중 수출’의 대응어로 ‘exports to China’를 입력하였으나 맥락에 따라 ‘exports to China’로 통역하다가도 다시 ‘mass export’를 혼용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OpenAI API 연동 시에는 문장 속에서는 ‘exports to China’로 통역하였으나 ‘대중 수출’ 단독으로 발화 시에는 ‘mass export’로 통역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보다 정교한 코드 수정이나 도메인 용어목록 보강 및 학습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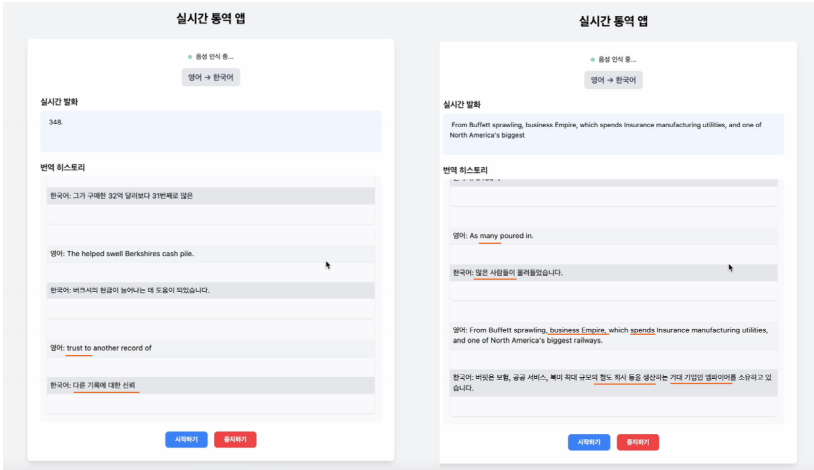


그림 9.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2 – 비유창한 발화 인식 문제

또한 초분절적(suprasegmental) 층위에서 완벽한 하나의 문장 흐름으로 발화하지 않는 이상 일부 단어 뭉치가 독립적 의미 단위로 끊겨 의미 왜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9에서 보듯, ST, “That helped swell Berkshire’s cash pile, / which rose to another record of / \$348bn / as money poured in / from Buffett’s sprawling business empire, which spans insurance, manufacturing, utilities and one of North America’s biggest railways”(휴지 부분 ‘/’ 표시)에서 약 2~3초간 휴지를 중간중간 주었을 때, 음성 인식, 분절 지점, 맥락 무시 오역 등 다수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Cursor에서 한 가지를 조정하면 다른 유형의 발화에서는 품질이 역으로 저하되는 문제가 줄곧 발생하여 모든 경우를 만족하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상의 번역 결과를 원한다면 화자는 비유창성 요소 없이 깔끔하게 문장을 발화하고 문장 끝에는 휴지를 하도록, 즉, 기계에 자신의 발화 스타일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

4. 논의 및 결론

앞서 3장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프로그래밍 지원도구를 이용한 바이브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통번역 관련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시대 통번역사 실무 활용 가능성 및 통번역사 역할 확대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생성형 AI 프로그래밍 보조도구를 이용하면 요구사항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이에 기존에는 코딩을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전에는 상용제품에 의지해야 했던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개인 맞춤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인 1 앱 시대가 열린 것이다. 본고에서는 필자에게 필요한 맞춤 용어 추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필자의 언어 학습 니즈를 충족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통번역사 누구나 바이브코딩으로 자신의 업무나 일상에 필요한 개인 맞춤앱을 개발할 수 있다. 코딩을 전혀 몰라도 프로그래밍 보조도구가 알아서 앱을 개발해 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구현되는 기능과 연동된 코드를 참고하고 배울 수 있어 코딩 초보자의 학습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코딩이 가능하다는 점은, 통번역 교육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단순히 텍스트 생성이나 교수법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신지선 2024; 진실희 2024), 보다 넓은 범주의 학습 역량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급속도로 발달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대비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비록 프로토타입 수준의 개발에 그치게 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기술의 장단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해당 부분에서 직업적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바이브코딩의 한계도 분명하다. 코드 지식 없이 ChatGPT와 대화하듯 프롬프트로 생성형 AI에 일종의 ‘하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코딩 지식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코드의 어느 부분이 원인인지, 얼마나 잘못 작성되어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 또한 프롬프트 대화를 바탕으로 AI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더라도, 다른 문제를 초래하거나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부분을 오히려 역행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프로토타입 수준을 넘어서는 개발을 생각한다면 전문 개발자와의 협업이 필수이다.

한편, 본 통역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은 기계통역이 인간 통역사의 직업에 미칠 잠재적 위협 수준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앞서 3장에서 기술하였듯 정형화된 문장을 정확하게 읽거나 발화하고 문장 간 휴지가 적절하게 들어간 경우의 성능은 양호하였다. 그러나 음성 인식 오류, 초분절 층위에서의 비정형적 발화, 다양한 발화 스타일 등으로 인해 STT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이후 번역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또한 어휘 수준에서 오류가 종종 발생하였다. 오류 수준은 연동한 STT 및 번역 API에 따라 달랐으며, 성능이 더 좋은 엔진을 연동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용어집과 코드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몇몇 방송국의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사용한 기계통역인, 소위 ‘AI동시통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오류를 관찰할 수 있다(연합뉴스TV 2025; SBS뉴스 2025). 또한 최근 WHO 통역팀(WHO Interpretation Team, INT)이 기계통역 품질을 평가한 결과 평균 46%의 낮은 점수, 고유명사/숫자/문화적 지시어/전문용어 오역, 단조로운 TTS 음성, 통역 지연, 그리고 평판 리스크(정치·외교적 여파 또는 WHO 이미지 손상 등) 문제를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대외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기계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WHO INT 2025).

현재 기술로는 기계통역이 실력이 뛰어난 인간 통역사만큼 자연발화를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학습용 데이터베이스가 충분치 않은 수많은 전문도메인의 자연발화, 외교·문화적 함의가 담긴 발화, 미묘한 의미 차이가 담긴 발화를 정확히 통역하기는 어렵다. 기계통역 상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리토(Flitto)의 CEO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기술 개발 전문가들도 기계가 전문성을 갖춘 인간 영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2024).

필자는 이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인간과 기술을 대립구도로 보는 인식을 극복하고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계통역은 정확성이 중요한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에 통번역 제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던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기술적으로 부족한 기계통역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언어 전문가인 통역사의 몫이다. 도메인별 전문용어 관리, AI가 인식해야 할 적절한 의미 단위 분석, 다양한 ST-TT 쌍 생성 및 관리, 기계 통역 결과물의 품질 평가 및 관리 등이다. 언어 전문가이자 도메인 전문가인 전문 통역사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이고 사람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기술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조언하는 컨설턴트이자 최적의 선택을 판단하는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프리랜서 통역사로 국제회의 행사에 관여하건, 인하우스 통역사로 사내의 통번역 관련 기술에 관여하건, 통역사가 전문가로서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언어 및 통번역 전문성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바이브코딩은 이러한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언어 및 통번역 관련 기술 공급 사업자로 통번역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기계의 번역 품질이 급격히 향상된다 해도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검수할 인간 통번역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Cursor가 제아무리 자동으로 코딩을 해준다 해도 코드를 모르는 이용자는 오류를 발견하지도, 수정하지도 못한다.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기계 통번역 결과물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검수자는 양쪽 언어에 능통하고 주제지식도 갖춘 전문 통번역사의 역할이 될 것이다.

발화 메시지의 발신자만이 아닌 수신자인 청자와 독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낮은 품질의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만다면 청자와의 소통은 요원해진다. 기계통역이 자막으로만 제공되는 경우 청자는 자막을 읽느라 연사의 목소리 이외의 표정이나 제스처 등 시각 정보를 놓치고 만다. 이는 소통 당사자 중 일방을 약자로 내모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계통역 방식에 맞춰 연사가 평소의 발화 스타일을 포기하고 기계 스타일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면 발화 스타일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 결국 언어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 언어에는 텍스트만이 아닌 해당 언어권의 문화와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리고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자와 청자의 오감을 통해서 맥락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통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간 통역, AI 통역, 기계통역 자막 중 선호하는 모드를 조사한 배문정(2023)의 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이 편안한 음성, 자연스러운 어조, 연사의 강조점 반영, 직원들과 자유로운 회의 주제 논의, 조직 내부 지식 보유, 돌발 사태 대처 등 언어 외적 측면 때문에 인간 통역사를 선호한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다. 이미 접어든 AI 시대에, 소통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기술 활용도를 높이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승희·박준·김상훈(2014). 「자동통역기술, 서비스 및 기업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9(4): 39-48.
- 배문정. (2023). 「통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통역 모드 선호도 조사: 인간 통역, AI 통역, 자막 비교」. 『번역학연구』 24(3): 592-614.
- 신지선. (2024). 「번역교육에서 챗GPT의 활용 방안 탐구」. 『번역학연구』 25(2): 39-67.
- 이미경 (2018). 「전문 용어의 사용이 통역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번역교육연구』 16(3): 127-146.
- 이준호·김순미. (2022). 「폴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고찰—폴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5): 119-146.
- 장애리. (2019). 「중국의 인공지능(AI) 통역 발전 현황 분석」. 『번역학연구』 20(5): 163-195.
- 진실희. (2024).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챗GPT 프롬프트 설계: 제작과 편집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123-150.
- 최문선. (2018). 「전문통역사의 용어집 구축에 관한 예비연구」. 『통번역학연구』 22(2): 179-206.
- 최문선. (2019). 「전문분야 통역을 위한 어휘 지식: IT 분야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3): 247-283.
- 최은실·김아영. (2020). 「한-영 실시간 자동통역 시연 사례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18(2): 125-147.
- 허지운. (2016). 「언론보도에 투영된 동시통역에 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8(2), 153-187.
- Barke, S., James, M. B. and Polikarpova, N. (2023). Grounded copilot: How programmers interact with code-generating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ACM on Programming Languages*, 7(OOPSLA1), ACM Journals, 85-111.
- Briggs, J. and Kodnani, D. (2023).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https://www.gspublishing.com/content/research/en/reports/2023/03/27/d64e052b-0f6e-45d7-967b-d7be35fabd16.pdf>(2025.3.2. 검색).
- Davila, N., Wiese, I., Steinmacher, I., Lucio da Silva, L., Kawamoto, A., Favaro, G. J. P. and Nunes, I. (2024). An industry case study on adoption of ai-based programming assistants. In *Proceedings of the 4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in Practice*. ACM, 92-102.
- Fakhoury, S., Naik, A., Sakkas, G., Chakraborty, S. and Lahiri, S. K. (2024). LLM-based test-driven interactive code generation: User study and empirical evaluation.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50(9): 2254-2268.
- Fan, G., Liu, D., Zhang, R. and Pan, L. (2025). The impact of AI-assisted pair programming on student motivation, programming anxiety,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gramming performance: A comparative study with traditional pair programming and individual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EM Education* 12: 16.
- Fantinuoli, C. (2017). Computer-assisted preparation in conference interpreting. *Translation &*

- Interpreting* 9(2): 24-37.
- Sajja, R., Ramirez, C. E., Li, Z., Demiray, B. Z., Sermet, Y. and Demir, I. (2024). Integrating Generative AI in Hackathons: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Big Data and Cognitive Computing* 8: 188.
- Sun, D., Boudouaia, A., Zhu, C. and Li, Y. (2024). Would ChatGPT-facilitated programming mode impact college students' programming behaviors, performances, and perceptions? An empir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21: 14.
- Vaithilingam, P., Zhang, T. and Glassman, E. L. (2022). Expectation vs. experience: Evaluating the usability of code generation tools powered by large language models. In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Extended Abstracts*. ACM, 1-7.
- Weisz, J. D., Kumar, S., Muller, M., Browne, K. E., Goldberg, A., Heintze, E. and Bajpai, S. (2025). Examining the use and impact of an AI code assistant on developer productivity and experience in the enterprise. [https://arxiv.org/pdf/2412.06603\(2025.4.1. 검색\)](https://arxiv.org/pdf/2412.06603(2025.4.1. 검색)).
- White, J. (2024). Building living software systems with generative & agentic AI. [https://doi.org/10.48550/arXiv.2408.01768\(2025.4.2. 검색\)](https://doi.org/10.48550/arXiv.2408.01768(2025.4.2. 검색)).
- WHO INT. (2025). Report on WORDLY AI Interpretation. [https://www.linkedin.com/posts/ghada-chadarevian-444966230_who-report-on-ai-interpretation-activity-7333843691989573633-Z5l?utm_source=share&utm_medium=member_desktop&rcm=ACoAACQIIQgB5HFHq91FTmeeLew-8nv1J09eRN4\(2025.6.7. 검색\)](https://www.linkedin.com/posts/ghada-chadarevian-444966230_who-report-on-ai-interpretation-activity-7333843691989573633-Z5l?utm_source=share&utm_medium=member_desktop&rcm=ACoAACQIIQgB5HFHq91FTmeeLew-8nv1J09eRN4(2025.6.7. 검색)).

[인터넷 자료]

- 연합뉴스TV. (2025). [풀영상/실시간 번역] 트럼프, 광물협정 임박 시사..."젤렌스키, 중요한 서한 보내와" 미 연방 의회 연설 풀영상/연합뉴스TV(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live/2566xKLj6Qw\(2025.3.5.검색\)](https://www.youtube.com/live/2566xKLj6Qw(2025.3.5.검색)).
- 이종현. (2023). "구글의 시대 끝났다" 평가 나온 챗GPT... AI 대화가 검색 대체할까.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2/12/06/3GXWJJI6WNGCPJGBLBDQCEA6OI/?utm_source=chatgpt.com\(2025.3.2.검색\)](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2/12/06/3GXWJJI6WNGCPJGBLBDQCEA6OI/?utm_source=chatgpt.com(2025.3.2.검색)).
- 최선. (2025). 의학회도 본격적인 AI 시대...실시간 강의 번역 기본.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3338\(2025.5.6.검색\)](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3338(2025.5.6.검색)).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2024). 플리토 대표에게 묻다! AI 통번역의 미래는? 플리토 CEO 이정수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JnQXfdNuuRA\(2025.4.28.검색\)](https://www.youtube.com/watch?v=JnQXfdNuuRA(2025.4.28.검색)).
- SBS뉴스. (2025). AI동시통역 트럼프 에어포스원 긴급 기자회견 "내일 푸틴과 대화"..우크라 전 '급물살' SBS 실시간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T5fyJSDF5xE&t=683s\(2025.3.17.검색\)](https://www.youtube.com/watch?v=T5fyJSDF5xE&t=683s(2025.3.17.검색)).
- Asplund, J-E. (2025). Cursor at \$100M ARR. [https://sacra.com/research/cursor-at-100m-arr/\(2025.2.10.검색\)](https://sacra.com/research/cursor-at-100m-arr/(2025.2.10.검색)).
- Edwards, B. (2023). OpenAI's GPT-4 exhibits "human-level performance" on professional benchmarks.

- <https://arstechnica.com/information-technology/2023/03/openai-announces-gpt-4-its-next-generation-ai-language-model/>(2025.4.2. 검색).
- Harkar, S. (2025). What is vibe coding?.
<https://www.ibm.com/think/topics/vibe-coding#:~:text=Vibe%20coding%20is%20a%20fresh,1>(2025.4.9. 검색).
- IBM. (n.d.). Machine-aided translation.
<https://www.ibm.com/history/machine-aided-translation>(2025.4.2. 검색).
- Karpathy, A. (2023). <https://x.com/karpathy/status/1617979122625712128>(2025.3.3. 검색).
- Karpathy, A. (2025). <https://x.com/karpathy/status/1886192184808149383>(2025.4.2. 검색).
- Kelly, J. (2025). AI and automation: Threats and opportunities for white-collar professionals.
https://www.forbes.com/sites/jackkelly/2025/03/02/ai-and-automation-threats-and-opportunities-for-white-collar-professionals/?utm_source=chatgpt.com(2025.5.3. 검색).
- Lopez, J. (2023). <https://x.com/javilopen/status/1719363262179938401>(2025.3.3. 검색).
- McNulty, N. (2025). How I vibe-coded a micro app in 10 minutes with ChatGPT.
<https://medium.com/@niall.mcnulty/how-i-vibe-coded-a-micro-app-in-10-minutes-with-chatgpt-87db79fe5b4a#:~:text=Of%20course%2C%20the%20initial%20script,more%20customised%20to%20my%20setup>(2025.4.5. 검색).
- Oppenheimer, J. (2024). How to build a translator bot using web speech API and GPT-3.
<https://web rtc.ventures/2024/03/how-to-build-a-translator-bot-using-web-speech-api-and-gpt-3/>(2025.4.5. 검색).
- Pangeanic. (2023). What is the size of the translation industry?.
<https://blog.pangeanic.com/what-is-the-size-of-the-translation-industry>(2025.4.2. 검색).
- Shani, I. (2023). Survey reveals AI's impact on the developer experience.
<https://github.blog/2023-06-13-survey-reveals-ais-impact-on-the-developer-experience/>(2025.3.2. 검색).
- Smith, M. (2025a). Engineers are using vibe coding to code based on vibes.
<https://spectrum.ieee.org/vibe-coding#:~:text=While%20Vohra's%20take%20on%20vibe,stacks%20they%20don't%20yet%20understand>(2025.4.9. 검색).
- Smith, M. S. (2025b). I started 'vibe coding' my own apps with AI. I'm absolutely loving it.
<https://www.pcworld.com/article/2660539/i-started-vibe-coding-my-own-apps-with-ai-im-absolutely-loving-it.html>(2025.4.20. 검색).
- Stackoverflow. (2023). 2023 Developer Survey StackOverflow.
<https://survey.stackoverflow.co/2023/#developer-tools-ai-tool-interested>(2025.3.2. 검색).
- Tap Twice Digital. (2025). 10 Cursor statistics: Revenue, valuation, competitors, founder.
https://taptwicedigital.com/stats/cursor?utm_source=chatgpt.com(2025.5.1. 검색).
- Wiggers, K., Corral, C. , Stringer, A. and Park, K. (2025). ChatGP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AI-powered chatbot.
<https://techcrunch.com/2025/05/01/chatgpt-everything-to-know-about-the-ai-chatbot/>(2025.5.23. 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9 May 2025; revised on 9 June 2025; and accepted on 16 June 2025.

Authors' email address

huhjiun@ewha.ac.kr

About the author

Jiun Huh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pretation technologies, market trends, and interpreter training.

박사학위논문

국내 의료 환경에서 통역인 역할 연구

김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의료 환경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언어 간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 통역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훈련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2009년 정책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허용된 이후, 정부와 의료 기관, 국내 외 에이전시의 유치 활동에 힘입어 국제 진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 수는 2009년 60,201명에서 2019년 497,4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605,768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홍승욱 외 2024).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 진료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의료통역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의 결과로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의료통역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24)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006년 국내 총인구의 1.1%인 54만 명에서 2023년 총인구 대비 4.8%인 24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에 장단기적으로 머무르는 외국인 증가로 인해 외국인 환자 진료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언어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및 국제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통역 전문 인력 양성과 의료통역 서비스의 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진철 외(2014,

* 연세대학교 의료원

2015)는 비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의료통역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 사고 및 의료 분쟁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의료통역사의 지식·기술·자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자격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운영된 의료통역 교육 이수나 검정 시험 합격은 의료통역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라 우대 사항 정도로만 인식되는 실정이다. 의료통역 인력을 채용하는 기관들은 관련 교육 경험이나 자격증 보유 여부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통역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순미 2020; 김민정 2021).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이수나 검정 시험 합격 여부로는 의료통역 지원자의 실무 역량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통역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Li 2021).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첫째 국내 의료 통역인의 인적 사항과 근무 조건, 둘째 의료통역 및 의료통역 외 업무에서의 역할, 셋째 국내 의료 통역인이 다른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도구, 넷째 이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 기관의 특징을 고찰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그 결과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2. 연구 방법

국내 의료 환경에서 의료 통역인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채용 기관이 의료 통역인을 고용하기 위해 올린 채용 공고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채용 담당자 또는 채용 부서 관리자와의 인터뷰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의료 통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의료 통역인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관찰 사례 연구 및 후속 인터뷰 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연구 방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채용 기관이 제시하는 의료 통역인의 인적 사항과 근무 조건, 의료통역 및 의료통역 외 업무에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5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채용 공고 수집 방식은 2021년 8월 한 달간 채용 공고를 수집하여 의료 통역인 역할을 분석한 선행 연구(김민정 2021)와 동일한 방식을 따랐으며, 보다 장기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둘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정보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채용 공고를 올린 기관의 채용 담당자 또는 채용 부서 관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국내 의료 통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의료 통역인이 스스로 응답한 인적 사항과 근무 조건을 확인하고 의료통역 및 의료통역 외 업무 시 역할과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넷째, 세 곳의 현장 관찰 사례 연구를 통해 의료 통역인의 인적 사항과 근무 조건, 의료통역 및 의료통역 외 업무 시 역할,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한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및 사용 도구를 파악하였다. 관찰 중 사전에 동의를 얻은 상황에 한해 녹음하고, 상황별로 의료 통역인의 역할을 기록하고, 의료 통역인이 다른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의료통역 및 의료통역 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관찰 노트에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현장 관찰에 참여한 의료 통역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와 연구 대상자의 역할 인식을 비교하고, 의료 통역인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텍스트 분석, 설문 조사)과 질적 연구 방법(인터뷰, 현장 관찰 사례연구)을 활용한 다각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를 상호 검증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분석 결과

위와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1. 국내 의료 통역인의 인적 사항과 근무 조건

국내 의료 환경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언어 간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 통역인들의 인적 사항과 근무 조건은 근무 기관 종류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또는 인하우스 형태로 의료 통역인을 채용하는 기관은 의료 기관과 에이전시가 주를 이루었으며, 종합병

원 이상의 규모가 있는 의료 기관에서 인하우스로 근무하는 의료 통역인은 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을 갖추고 장기간 근무하는 형태가 많았다. 반면 에이전시 인하우스나 프리랜서 인력은 의료통역 경력 2년 미만의 비율이 높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규 진입 인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력의 경우, 에이전시 인하우스 통역인은 학력 편차가 큰 반면, 프리랜서들은 대체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근무 기관 종류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설문 조사 응답자 대부분은 관련 교육 경험이나 자격 취득 없이 또는 단기 교육만을 이수하고 의료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채용 공고 분석과 채용 기관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의료 통역인의 신규 수급이 어려운 기관에서 학력이나 교육 및 자격 조건 없이 이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 신규로 진입하는 의료 통역인뿐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통역인을 위한 통역 교육 및 관련 업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직함의 경우, 의료 기관에 소속되어 기관 내 유관 부서와 일정 관리를 포함한 코디네이팅 업무를 하는 경우는 코디네이터, 그 외 에이전시 소속이거나 프리랜서들은 통역사 직함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의료통역 및 의료통역 외 업무

국내 의료 통역인들의 실천을 바탕으로 의료통역 시 역할 및 의료통역 외 업무 역할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의료 통역인이 수행하는 업무 역할을 크게 의료통역, 진료 코디네이팅, 외국인 환자 유치, 관광 코디네이팅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의료 통역인의 핵심 업무인 의료통역 시 역할의 경우, 채용 기관 인터뷰 응답자와 의료 통역인 모두 언어 도관, 조정 및 중재와 옹호 역할을 모두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실제 관찰 현장에서 수집된 통역 담화를 분석한 결과, 3인칭 화법을 활용하고 원발화의 통역과 자신의 발언을 구분하지 않아 충실한 전달자에 해당하는 언어 도관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집된 통역 담화에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술이나 진료 상황을 설명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의료 서비스 조력자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료통역 외 업무 역할로는 진료 코디네이팅과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마케팅 업무가 주를 이루었다. 그 외 환자 응대, 환자 동행, 상담, 병원 행정 업무가 있었으며, 근무 기관의 특징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업무 범위 및 난이도 차이가 컸다. 특히 현장 관찰 결과, 의료 기관 인하우스 인력의 경우, 환자의 상황에 맞

게 사전에 진료과와 조율하고 필요한 검사 일정을 잡는 진료 코디네이팅이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소속 의료 기관 내 유관 부서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3.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및 사용 도구

국내 의료 통역인들이 업무 중에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의료 통역인들은 외국인 환자들과 직접 라포를 형성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환자와 직접 라포를 형성하기보다 의료 통역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료 통역인과 의료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진의 말을 통역하는 통역인들은 의료진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의료진 역시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통역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용 도구의 경우, 의료 기관 인하우스 응답자는 컴퓨터와 문서 작업 프로그램, 화상 회의 장비 사용 빈도가 높고, 에이전시 인하우스 응답자는 포토샵과 SNS 사용 빈도가 높았다. 또한 현장 관찰 사례를 통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접근 및 쓰기 권한과 업무용 핸드폰 사용 여부가 이들의 역할 범위 및 업무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통역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 기관 특징

국내 의료 환경에서 통역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 기관의 특징을 확인한 결과, 기관의 종류와 규모, 국제 진료 운영 방식 및 진료과가 의료 통역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파악되었다. 의료 기관 인하우스 인력은 에이전시 인하우스나 프리랜서 인력과 달리 기관 내 코디네이팅 업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병원 이용 절차나 병원 운영 시스템상의 차이에 기인한 외국인 환자의 불편 사항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 기관 규모가 클수록 환자의 중증도가 높고 진료과가 다양하여 통역인이 익혀야 할 정보의 양이 증가하였고, 문서 작업 및 행정 업무 비율이 높았다. 국제 진료 방식도 통역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당 진료 시간이 짧은 국내 상황으로 인해 통역인들은 진료 시

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진을 대신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의료 통역인 대상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도 향후 근무할 기관의 종류와 규모, 국제 진료 운영 방식 및 진료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동안 국내 통번역학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의료 통역인 역할을 여러 분석 방법을 통해 다룬 본 연구는 의료통역 교육 및 실무에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의료통역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산업 해외 진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료 통역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다각적으로 의료 통역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심의 의료 관광 관점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심의 다문화 관점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온 의료통역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통역학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국내 의료 통역인의 역할을 탐구한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증가하는 의료 관광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의료통역 수요와 맞물려 국내 의료 통역인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로 본 연구가 그 공백을 일부 채우길 기대한다.

셋째, 외국인 환자 진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 통역인들이 이수한 교육이나 자격 취득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찰 사례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의료 통역인이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 낯설고 복잡한 의료 환경에 투입되는 상황이었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 의료통역 교육 경험이 없는 인력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언하였다.

넷째, 의료 통역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룬 본 연구를 통해 직업인으로서 의료 통역인이 수행하는 의료통역 및 의료통역 외 업무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국내 의료 통역인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국내 의료통역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국제 진

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의료통역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의료진과 환자를 현장 관찰의 일부 연구 대상자들로 한정하여 다룬 점과 국내 의료 통역인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언어별 의료 통역인의 수급 상황이나 기대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섭외된 의료 통역인을 다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의료통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의료 통역인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다. 국내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의료 통역인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통역 및 의료통역 외 업무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가 향후 의료 통역인 대상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개선하고 의료통역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21). 「채용 공고를 활용한 의료통역 주체 역할 연구」. 『번역학연구』 22(4): 45-66.
- 김순미. (2020). 「인하우스 코디네이터 중심 국제 진료센터 의료통역 시스템 연구」. 『통번역학연구』 24(2): 33-64.
- 정진철, 김강호, 정선정, 정동열. (2014).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1차 연구』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정진철, 김기용, 전승환, 정동열. (2015).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2차 연구』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Li, X. (2021). Identifying in-demand qualifications and competences for translation curriculum renewal: a content analysis of translation job ad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6(2): 177-202.
- [보고서]
- 행정안전부. (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세종: 행정안전부.
- 홍승욱, 박진영, 오세문, 강창호. (2024). 『2023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청주: 보건산업진흥원.

본 초록은 동일 제목의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정 (2025) 국내 의료 환경에서 통역인 역할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uthor's email address

whismj@gmail.com

About the author

Minjung Kim (orcid.org/0000-0001-6955-0543) earned her PhD in Translation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medical interpreting, medical communication and sociology of translation.

박사학위논문

EBS 수능 연계 교재의 학습용 번역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김지영*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 양상과 수용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에서 사용되는 교재 번역문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학습용 번역문이 영어 독해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입시 위주의 한국 영어교육 환경에서 수능 대비용 영어 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영어 교재의 번역문을 다룬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능 영어 시험에서 독해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각종 독해 교재를 활용하며,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영어 지문의 한국어 번역문을 빈번하게 참고하게 된다. 특히 수능 영어 시험의 독해 지문 중 약 50%가 EBS 교재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교육부의 연계 정책(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으로 인해 EBS 연계 교재의 번역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존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해당 교재의 한글 번역본을 암기까지 하는 실태가 보도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14; 조선일보 2020).

이에 본 논문은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과 수용자의 인식을 한국 영어교육 맥락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학습용 번역문으로서 EBS 수능 연계 교재 영한 번역 텍스트(이하 ‘EBS 교재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EBS 교재 번역문 수용자들의 해당 번역문 활용 양상, 셋째, 해당 번역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기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교육 및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학습용 번역문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사

* 서울대학교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상기 제시된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텍스트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1. 텍스트 분석

본 연구는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의 답을 구하고자 EBS 교재 영어 지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어 원서와 한국어 역서, 영어 기사문과 한국어 번역 기사문의 병렬 코퍼스를 비교 코퍼스로 구축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교 코퍼스는 형식 및 내용, 난이도 측면에서 EBS 교재 지문과 최대한 유사한 텍스트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EBS 교재의 영어 원문(ST)이 주로 인문, 경제, 과학 등 주요 분야의 소재를 다룬 비문학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김지영 2020), 기출간된 한국어 역서 중 유사한 소재의 비문학 베스트셀러 중에서 분석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외 언론사의 한국어판 공식 웹사이트에 실린 번역 기사, 또는 국내 언론 매체가 해외 언론사의 기사를 자사 웹사이트에 번역하여 게재한 기사 중에서 추가로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이어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T.E.R.A. 툴을 사용하여 EBS 교재의 ST와 난이도가 비슷한 텍스트들을 분석 대상 텍스트로 최종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집된 코퍼스의 규모는 EBS 교재 4권의 원문과 번역문, 일반 출판서 9권과 기사문 49개의 원문과 번역문의 일부를 추출한 269,929토큰이다. 이렇게 수집된 코퍼스는 번역 텍스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 또는 규칙성인 번역보편소의 네 가지 항목 중(Baker 1993, 1996; Laviosa 2002), 선행 연구를 통해 가장 폭넓게 다루어져 온 단순화와 명시화(고광윤과 이영희 2016: 113-114) 범주의 분석 항목을 중심으로 양적 측정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2.2. 설문조사

다음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최근 접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 신입생 총 79명과 고등학교 영어 교사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EBS 교재 번역문의 활용 현황과 해당 번역문에 대한 인식, 기대, 응답자 인적 사항 등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들이 해당 번역문을 어떠한 양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번역문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번역문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3. 면접조사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설문조사의 응답자 집단 중 교사의 표본 수가 적어 분석 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는 측면을 보완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현실을 반영한 유의미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직 경력 평균 10.25년인 현직 영어 교사 네 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60분간 1회 실시하였다. 해당 면접조사는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문항 개요를 기반으로 키워드 중심의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상호작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제시하거나 답에 따라 질문 순서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이 학습용 번역문으로서 수용자들의 기대 규범에 부합하는 번역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분석 결과

3.1.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의 번역 양상

EBS 교재의 ST-TT와 일반 서적 및 기사문의 ST-TT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학습용 번역문으로서 EBS 교재 번역문은 번역보편소 단순화와 명시화 전략이 대체로 지양되며 ST에 충실한 번역 양상을 보였다.

단순화의 경우 EBS 교재 번역문의 평균 문장 길이가 일반 역사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길었고 문장 분할 역시 현저히 낮은 비율로 이루어져 문장을 간결하게 번역하는 단순화 전략이 지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명시화의 경우 접속부사 ‘하지만’의 출현 비율 및 지시 표현과 이유·원인 표현의 영형태 번역 비율이 EBS 교재 번역문에서 현저히 낮아, 문장 요소 간 결속성을 강화하는 명시화 전략은 상대적으로 지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용언 대비 파·사동 표현의 비율이 EBS TT에서 유의미하게 높아 ST의 구조를 유지하려는 번역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지시 표현의 사용 빈도는 EBS 번역문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번역 시 지시 표현이 첨가되더라도 문장 구조 변화를 수반하지 않아 EBS 번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동시에 학습자가 TT를 읽고 ST를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자 나름의 논리적 응집성 증대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은 전반적으로 문장 단위 및 구조, 통사적 요소 등에 대해서는 ST 지향적인 번역을 수행하면서도, 수용자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텍스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어휘 단위 명시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즉, EBS 연계 교재의 번역 주체는 ST의 구조를 최대한 따를 것을 요구하는 EBS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나름의 번역 선택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번역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어 온 번역보편소와는 구별되는 양상으로, EBS 교재 번역문이 가지는 학습용 번역문으로서의 고유한 텍스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3.2.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의 활용 현황

EBS 교재 번역문의 주요 수용자인 학습자 집단은 여러 학습 맥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재 번역문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능 준비를 위한 자율 학습 수단이라는 EBS 교재의 기능 및 영어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의 답을 찾는 독해 교재로서의 속성에 부합하는 사용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교사 집단은 학생 지도 수단으로 EBS 교재 번역문을 사용하며 모국어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재 번역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기대 또한 해당 번역문의 생산 과정에 의미 있게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내신 시험 대비를 위해 EBS 교재의 ST를 읽지 않고 TT를 암기하는 등 교재 번역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였

다.

3.3.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한 인식과 기대

EBS 교재 번역문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기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로 얻은 결과에 기반하여 고찰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EBS 교재 번역문 활용의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교재 번역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번역문의 특성과 교과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자 집단은 특히 번역문의 명료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독해 실력 향상에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교사들 또한 ST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들이 TT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며, 교사들이 한국어 번역의 의미까지 설명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효율적인 자율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BS 번역 지침의 궁극적 의도와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다. 다만 수용자 두 집단 공통적으로 어휘력 향상, 학습 시간 절약 등 번역문 활용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들도 존재한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수용자들의 기대를 해당 번역문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독해 학습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ST 지향적인 번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학습자 집단의 기대 규범은 EBS 번역 지침 및 텍스트 분석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는 EBS 교재 번역문이 학습용 번역문으로서 텍스트의 기능에 충실한 동시에 독자의 필요에 맞는 번역 텍스트 장르로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 집단의 기대 규범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혼재되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TT 지향적 번역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면접조사에서는 학습자의 영어 독해에 용이한 형태의 번역문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ST 지향적인 번역이 자습에는 더 유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TT 지향적인 번역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의 특성을 텍스트 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고찰한바, 연구 주제와 분석 방법 및 결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EBS 영어 교재 번역문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분석 시도로서 한국 영어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용 번역의 일환으로 해당 번역문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또한 기존의 문헌에서 연구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학습용 번역문을 번역학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번역보편소 및 기능주의 번역이론의 선행 연구를 통해 축적된 유효한 방법론과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텍스트 유형인 학습용 번역문의 속성을 탐구하였으며 이는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번역문의 코퍼스 기반 정량 분석과 수용자 대상의 인식 조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학습용 번역문이라는 한국적이고 고유한 번역 장르의 특성을 균형 있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BS 교재의 ST-TT 병렬 코퍼스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번역 전략을 관찰하고 수용자 인식 조사를 통해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포착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광윤·이영희. (2016). 「한국 신문의 영어 번역에 나타난 번역 보편소의 코퍼스 기반 분석」. 『비교문화연구』 45: 109-143.
- 김지영. (2020).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습 번역: EBS 수능 연계 영어교재 번역문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62(3): 291-325.
- 김지영. (2025). EBS 수능 연계 교재의 학습용 번역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Baker, M.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Baker, M., G. Francis and E.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33-250.
- Baker, M.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Somers, H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5-186.
- Laviosa, S.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Radopi.
- [인터넷 자료]
- 조선일보. (2020). 50만 수험생 교재에 대기업·언론 불신 내용.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0258.html(2021.6.20. 검색).
- 중앙일보. (2014). EBS 교재가 ‘수능 교과서’ ... 학생들 답만 달달 외워.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495349>(2019.3.8. 검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29&boardSeq=5086583&lev=0&nm=0301&searchType=S&statusYN=W&page=3&s=suneung>(2024.3.28. 검색).
- T.E.R.A. <https://soletlab.adaptiveliteracy.com/8443/>(2023.9.30. 검색).

본 초록은 동일 제목의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영 (2025) EBS 수능 연계 교재의 학습용 번역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uthor's email address

kaylakim24@snu.ac.kr

About the author

Jiyoung Kim (orcid.org/0009-0008-6338-1791) earned her PhD in Translation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researcher at the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pedagogical translation, L2 reading comprehension, and AI-generated translation.

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제정 2014. 3.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역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학술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본고의 생명윤리규정은 연구의 질 자체와 무관한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부정행위와 구분하나 본 위원회는 일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⑥ 기타 통번역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IRB 승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투고자는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고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해상충) 투고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에 밝히야 하며 관련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일 때, 제1저자 혹은 고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임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에 따른다.

제7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제심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 위원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4조(접수)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제15조(예비조사)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관련 증거 자료
 - ⑤ 제보 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6조(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정보(익명 제보인 경우 예외)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본조사위원회 명단
4.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제20조(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제23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Adopted on March 24, 2014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bylaws is the regulation of matters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hereinafter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and their research ethics, whose objectives are to establish academic integrity, to prevent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and to implement the tasks of identifying, determining and enforcing compliance issues in accordance to Article 14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se bylaws shall apply to all who conduct academic research in direct or indirect connection to the Institute's research activities.

Article 3 (Definitions)

1.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hereinafter “misconduct”) refers to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nd the like in regards to the proposal and the execution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s code of ethics classifies acts that violate research ethics but do not affect the quality of the research as inappropriate acts in academic research and distinguishes such acts from the classification of misconduct. However, the Committee shall classify all acts of dishonesty as misconduct, setting out the following definitions.

- ① “Fabrication” refers to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data or research findings that do not exist.
- ②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intentionally manipulating the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processes and the like or arbitrarily changing or deleting data to distort the research contents or findings.

- ③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copying others’ papers, patents, ideas and other intellectual creation or research contents and findings without proper consent or citation.
 - ④ “Unfair authorship” refers to the act of either not listing an individual who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as an author for no justifiable reason, or granting authorship to those who played no significant role in the work for reasons such as expressing gratitude or deference.
 - ⑤ The act of proposing to or pressuring another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shall also be considered misconduct.
 - ⑥ Misconduct also refers to any and all acts of serious deviation from the generally accepted extents of the academic fiel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 ⑦ Misconduct also refers to the act of urging, pressuring or threatening someone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2. Conflict of interest refers to any circumstances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the publication of papers has a financial stake or is involved in personal connections with a certain paper.
 3. “Informant”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first notifies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 of the fact that an act of misconduct has come to his or her knowledge or who provides evidence of someone's misconduct.
 4.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under investigation for suspicions of misconduct that had either been reported or come to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s knowledge, or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have come under investigation because their potential involvement in an act of misconduct was uncovered during the process of conducting investigation. The term does not refer to the witnes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5.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an official investigation needs to be launched on particular allegations of misconduct.
 6. “Main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are true or not.
 7. “Decision” refers to the procedure of conclu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notifying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f the findings.

Article 4 (IRB approval) In the case where research is conducted on human subjects, and therefore, an approval from the relevant institution is required, the contributor shall obtain approval for research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nd faithfully conduct research according to an approved research plan. In addition, the editor may request submission of a written agreement or IRB approval,

if necessary.

Article 5 (Conflict of interest) If the contributor has any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certain financial benefits, with regard to the topic of a paper, they shall specify this on the title page and notify the editorial board of such matters in a written statement.

Article 6 (Participatio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f the co-author(s) of a research paper is a “specially related person and minor (under the age of 19), or a family member (e.g., any of relatives within the fourth-degree relationship, such as spouse or offspring),” the principal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 shall disclo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author(s) and explain the reason for which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has joined the research as a co-author. Any violation of this rule by the contributor shall be considered misconduct and be subjected to deliberation. In addition, if the explanation for this reason is not stated clear or reasonable, the editorial board may refuse to accept the paper in question. Additionally, when misconduct aroused from the involvement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s) as a co-author is confirmed, such misconduct shall be informed to affiliated institutions (e.g., college entrance-related institutions or research-related institutes) where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benefit from participating in research. Disclosure of misconduct is based on prior consent obtained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specified in “Disclosure Form of Research Participation Pla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Pre-release Form of Co-authoring a Publication with Specially Related Person(s)” provided by the Institute.

Article 7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The Committee shall conduct research ethics education via online and offline channels, such as an academic conference, email, or an online forum.

Article 8 (Function)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cademic integrity policies
2. Matters relating to the decision to launch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and to the authorization of the investigation findings
3. Matters relating to the appointment of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Matters relating to approval of request for a re-investigation
5.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nt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6. Matters relating to processing the results of academic integrity validation and the follow-up measures
7. Other matters as submitted by the chairperson

Section 2.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Article 9 (Organization, etc.)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nine members who are recommended by the editorial board from among the head of the editorial boar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oard and researchers and who are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Article 10 (Members and chairperson)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can also serve as the chairperson and appoint more than three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nd appoint more than two members from outside the Institute. However, interested parties to the matter under investigation cannot be included. The terms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shall be two years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Article 11 (Exclusion, recusal, and evas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1.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re applicable, the person shall not be appointed as a member or a chairpers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for the year.
 - ① Anyone who is in a relative relationship defined by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② Anyone who has been in a teacher-pupil relationship or co-authored research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③ Anyone who might compromis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2.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inform the informant of the list of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before the main investigation is initiated and accept the informant's petition for recusal of a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if their petition is filed on the grounds of reasonable excuse. However, this shall not be applied if the informant is unable to be contacted under circumstances caused by the informant. In this case, such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findings report.

3. If a member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has a conflicting interest in the research under investigation, they shall request for evasion voluntarily.

Article 12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In cases when necessary because of the specialty of the investigation or validation, the Committee can appoint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Article 13 (Meetings)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Committee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 meetings.
2. The quorum for a meeting shall be attended by at least one-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and a resolution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two-thirds of those attending.
3. When the agenda under review is acknowledged by the chairperson to be a minor matter, it can be reviewed in writing.
4. When acknowledged by the Committee to be needed, a related party can be summoned for opinion.

Section 3. Validation of Academic Integrity

Article 14 (Receipt of report) Reports of misconduct shall only be received when using one's real name and addresse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Article 15 (Preliminary investigation)

1. The Committee shall for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three members within 10 days of receiving the report.
2.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but the Committee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3.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30 days of launching an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① 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 ②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 ③ The decision to whether launch a main investig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a decision
- ④ Relevant evidence material
- ⑤ Confirmation of whether five years have passed from the initial date of the prescription period

Article 16 (Main investigation)

1. Should the Committee decide based upon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a main investigation is necessary, it shall form a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within 30 days of approving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2.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seven members, including at least four professional expert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and at least two outside members for the sak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3.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90 days of launching its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① 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except in cases of anonymous reports)
 - ②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 ③ The role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n the research project and whether the allegations are true
 - ④ Evidence material and list of witnesses
 - ⑤ Objections or arguments either by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the results of processing such objections or arguments
 - ⑥ List of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Should the need to extend the investigation arise, the investigation period can be extend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5. Specific guidelines needed for individual investigation activitie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Committee approval.

6. Records related to the main investigation shall be stored for five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rticle 17 (Measures following investigation findings)

1.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recommend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2.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does not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take measures to rehabilitate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3. The Committee can recommen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a member of the Institute who, as an informant, had made a report against the truth, disregarding facts that went against his or her statement or testimony, whether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4. The specifics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s mentioned in clauses 1 and 3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An author who is found to be violating research ethics shall not submit their papers to this journal for five years an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reviewing the submitted papers as a reviewe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Article 18 (Notification of the results) The chairperson shall, without undue delay, notify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and the informant of the Committee's decision on the investigation findings in writing.

Article 19 (Re-investigation) Should eithe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r the informant appeal the Committee's decision, he or she can request a re-investigation by presenting the reasons in writing to the Committee 30 days within having received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Chapter 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Article 20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s) Both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be guaranteed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of statement, objection and argument and be informed of the related process in advance.

Article 21 (Attendance and request for evidence)

1. According to what is needed in the investigation, the informant,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witnesses and the like may be requested to attend a meeting to give a testimony to the investigation committee.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accede to such a request.
2. During investigation,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uld be required to submit relevant data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evidence data, substantial measures could be taken such as restricting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from entering the research lab or seizing and keeping relevant research data.

Article 22 (Confidentiality)

1. The Committee under no circumstance shall expose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and ensure that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s protected until the investigation findings are concluded.
2. Any and all matters related to reports, investigations, reviews and deliberations as well as actions proposed are to be confidential. However, when a considerable ne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arises, such as a request from a government entity, the matter could be disclosed after a Committee resolution.
3. All committee members and persons who hav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committee members shall keep confidential all the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eviewing, voting and executing tasks and the duty to hol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fidence shall remain in effect even after the individual is no longer in the position.

Article 23 (Protection of the informant) The Committee shall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ny possible acts of retaliation against the informant and when such an act of retaliation occurs, shall inform the chairperson of such fact and recommend the chairperson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제정 2014. 3. 24.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과 구성)

1. 연구소 규정 제13조에 따라 논문집,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2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심사 규정

제3조(접수)

1. 논문접수는 공지된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를 명기하고 접수 확인을 투고자에게 보낸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온라인 투고 시는 시스템 상에서 동의함)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유사도 검사가 15% 이하임을 확인한다.
4.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거나 공동투고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

의 양식에 기입하여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한다.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2. 심사위원 상피제
원고 접수 후 투고자가 ‘상피 심사위원’ 명단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상피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인물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투고된 논문은 각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두 명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점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게재 가: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70점 이상-90점 미만
수정 후 재심사: 60점 이상-70점 미만, 게재 불가: 60점 미만
4.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정해진 시한까지 재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한다. 정해진 기일까지 미제출 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재심사 결과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단, 투고자 전체의 심사 결과와 게재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논문을 다음 호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5.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포함된 ‘심사서 작성요령’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심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7.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영문초록 감수는 연구소에서 임명한 감수위원을 통해 반드시 감수한 후 발행한다.

제5조(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 ① 독창성: 논문의 내용 및 주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참신해야 한다.
 - ② 논리성: 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③ 적절성: 통역·번역학 연구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판, 분석,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하며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통역·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술지에 투고된 영문 초록 감수 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크게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내용 품질, 형식 품질이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기본적인 문법 준수, 영어로서의 자연스러움, 적절한 학술영어 및 정확한 영문 용어 구사 여부, 영문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측면
 - ② 내용 품질: 논문의 영문 제목의 적절성, 초록 본문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 배경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③ 형식 품질: 적절한 영문 폰트, 글자 크기, 줄간격 등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 준수, 키워드의 개수와 형식 준수, 영문 초록의 분량 기준 준수

제6조(복리뷰 및 박사논문초록)

1. 본 논문집에는 통역·번역학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복리뷰와 박사논문 요약 및 초록을 실을 수 있다.

제3장 발행 규정

제7조(명칭)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발행 규정이라 한다.

제8조(목적)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발행시기)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에 연 2회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제10조(발행인)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인은 통역번역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판권 및 게재 권한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논문집명, 발행년도 및 발행권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2.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규정, 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명단 등을 수록한다.
3. 수록 논문 맨 뒤에 논문투고일, 심사통보 후 수정논문 접수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제4장 기타 규정

제13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와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 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0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Adopted on March 24, 2014

Section 1.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rticle 1 (Name and composition)

1.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the Editorial Board (hereinafter “Board”) is organized to review matter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cation of journals and books; to chart the course of the academic journal that is periodically published by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in addition to submitting and reviewing papers for the journal and; to implement task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shing of selected articles. The Board shall consist of at least five members both from within and out of the university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among the members.
2. The term of the Board members shall be two years and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In order to take care of administrative matters for the Board, a secretary shall be designated to take and keep minutes of the Board.

Article 2 (Function)

1. The Board shall determine the criteria for article submission and review.
2. The chairperson shall request the selection of reviewers for papers submitted. The Board shall refer to the review results and make the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publish the paper. The Board shall meet periodically but members can submit a written letter to count as attendance. Resolution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from over the majority of the attending members.

Section 2. Bylaws for Publication Review

Article 3 (Submission of paper)

1. Submission of papers is possible until the last day that was announced. The chairperson shall immediately upon arrival of the submitted paper, confirm the receipt of the paper and send confirmation to the submitter.
2. Papers that do not adhere to rules regarding submission or composition shall not be accepted.
3. Pledge of Compliance for Research Ethics (obtained through the online system if the paper is submitted online), Consent to the Use of Copyrighted Content, and the dissertation plagiarism checker report shall be submitted upon paper submission. A similarity of 15 percent or below is acceptable.
4.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or a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participate in research as a co-author, such information shall be reported by indicating in a prescribed form.

Article 4 (Procedures)

1. The reviewers are selected primarily from Board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with outstanding academic records in the relevant field of study. Contributors to the journal for which paper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pool of reviewers.
2. Mutual evasion in kinship as reviewers
Once the paper is submitted, the contributor may suggest a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with a reasonable excuse. If any of the reviewers selected by the Board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presented by the contributor, the Board shall exclude them in the selection of reviewers. In the case where none of the reviewers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those who are selected by the Board are appointed as reviewers.
3. Each paper submitted shall be given to at least two undisclosed reviewers to be evaluated. Only when two or more reviewers decide to accept the paper, either unconditionally or upon condition of revision, shall the paper be published based upon the final decision by the Board. The rating scale is as follows:
Publish: 90 points or higher; Publish after revision (minor revision): 70 to less than 90 points; Re-review after revision (major revision): 60 to less than 70 points; Reject publication: less than 60 points

4. The paper rated as “publish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after revising the paper by taking into account reviewers’ comments along with a revision response letter. The paper rated as “re-review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to the Editorial Board with a revised manuscript and written responses to reviewers’ comments by a deadline set by the Editorial Board, and the contributor shall put forth a request for re-review. If the result of the re-review is “re-review after revision” again, the paper will be treated as unpublishable. It should be noted that re-review may not be offered in consideration of the review results of all contributors and the submission to publication ratio. In this case, the contributor may re-submit the revised manuscript to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taking account of all comments by the reviewers. The paper rated as “reject publication” may be re-submitted for publication in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revision.
5. Each reviewer shall evaluate the papers following the guidelines for filling out an evaluation form included in the request form for review. He or she shall describe in detail the grounds for his or her evaluation.
6.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authors immediately by the Institute under its name.
7. In the case where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evaluation results, they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eal” and publication shall b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s by the Board.
8. Abstracts in English shall be published only when the editors appointed by the Institute have reviewed them.

Article 5 (Criteria for evaluation)

1. Submitted papers shall be evaluated in a fair and strict manner with the following criteria.
 - ① Originality: The contents and subject of the paper must be new and original, not having been published elsewhere either domestically or abroad.
 - ② Logic: The composition and flow of the paper must be logical and clear.
 - ③ Appropriacy: The paper must contain creative and new critique, analysis and proposal regarding the field of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be appropriate for the research metho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submission rules.
 - ④ Academic contribution: The paper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guiding and

developing the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An abstract in English submitted to the journal is largely evaluated based on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tent quality, and format quality. Detailed criteria for evaluation are as follows:

- ①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formity to grammatical rules, idiomatic English usage, adoption of appropriate English academic terms, and coherence and cohesion of the English text
- ② Content quality: Appropriateness of the paper title in English, whether the abstract describes the gist of the paper in a compressed manner without omission, and whether research findings are precisely stated rather than simply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research
- ③ Format quality: Conformity to a specific format specified by the journal including English font, text size, and spacing, the number of keywords and format conformity, and conformity to a word limit for the abstract in English

Article 6 (Book Review and PhD Thesis Abstract)

- 1.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T&I research results and encouraging research efforts by young researchers, book reviews and PhD thesis abstracts may be published in the journal without being subjected to any official review process.

Section 3. Publication Rules

Article 7 (Name) These provisions are the publication rules for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

Article 8 (Purpose) These provisions determine the publication process of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 and regulate related tasks.

Article 9 (Publication date) 「T&I Review」 is published once annually on 30 June, but the number of publication can be increased depending on need.

Article 10 (Publisher)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T&I Review」 shall be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Article 11 (Copyrights) Submitted papers shall not be return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been published or not. Copyrights to the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shared by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Copyrights include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the right of transmission. Therefore, should anyone intend to republish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he or she should obtain the consent of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in advance.

Article 12 (Format) The format of the journal is as follows.

1. On the front cover of the journal, the title should be stated in Korean and in English. The issue number, publishing entity and its logo, the date and the month and year of publication and the ISSN should also be marked.
2. The journal must contain a table of contents, a list of keywords, academic papers, guidelines for papers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eer Review, submission rules, academic research ethic rules) and the list of editors.
3. At the end of each published paper, the date of contribution, the date of submission of an amended version after notif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date of acceptance should be stated.

Section 4 Other Provisions

Article 13 (Responsibilities)

1. Author's responsibilitie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any issues that occurred while writing the paper lies with the author. The evaluation is to be done anonymously so any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uthor should not be revealed.
2. Reviewer's responsibilities: The reviewer needs to put forth a judgment on the academic value of the paper being reviewed along with the evidence for such judgment, as well as point out any errors or issues and suggest points of improvements. When needed, the reviewer can consult other experts for advice. The Board and the reviewer acknowledges the author's copyrights on the paper and cannot use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 in advance. Also, when evaluating a paper, the reviewer shall not make any personal attacks on the author or use insulting expressions.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Addendum (Revised on March 20, 2017)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20, 2017.

Addendum (Revised on June 20, 2019)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20, 2019.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Addendum (Revised on October 25, 2022)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5, 2022.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1. 기고문은 논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2. 논문은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다.
3. 논문길이는 A4 용지 15 매 내외로 하되 25 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영문초록은 약 150 단어 내외로 영어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키워드를 영어와 한국어(또는 논문 작성 언어)로 각각 5 개 표기한다.
5. 글자모양: 한글은 한컴바탕, 단 영문 및 불문텍스트는 Times New Roman, 중국어텍스트는 SimSun, 일본어텍스트는 MS Mincho로 한다.
6. 문자모양: 본문과 초록은 양쪽 맞춤으로, 논문 제목과 최상위 단락의 제목은 가운데 정렬하며, 초록 상단 저자명과 소속은 오른쪽 맞춤으로 한다.
7. 줄 간격 및 여백: 줄 간격은 ‘T&I Review 논문작성서식’에 따라 설정한다. 마침표나 콜론 다음에 한 칸 띄운다. 용지 여백은 폭 153, 길이 225, 위 20, 아래 15, 왼쪽 18, 오른쪽 18, 머리말 0, 꼬리말 13으로 설정한다.
8. 들여쓰기: 새로운 문단 시작은 10pt 들여쓰기 한다.
9. 논문은 서론, 본문, 결론 등으로 단락 구분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부 단락으로 나눈다. 상하위 제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논문 제목 = 14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제목 아래 두 줄 띄운다.
최상위 제목 = 12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위 단락과 두 줄 띄우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예, 1., 2.)
두 번째 제목 = 11.5pt bold체로 한다. 왼쪽정렬하고 아래 위 각 한 줄씩 띄운다. (예, 1.1., 1.2.)
세 번째 제목 = 10.5pt bold체로 한다. 왼쪽정렬하고 위 단락과 한 줄 띄우고, 한 줄 띄우기 없이 본문을 시작한다. (예, 1.1.1., 1.1.2.)
본문 = 10pt
10. 초록 = 영문으로 작성하며, Times New Roman 10pt 이탤릭체로 줄간격 150 양쪽 맞춤 정렬하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11. 인용문은 한글로 40 단어 이상인 경우, 좌우 20pt 여백주고, 영문으로 된 인용문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백을 둔다. 짧은 인용문은 본문 내에서 인용 부호로 구분한다. 글씨크기는 9pt 로 한다.

12. 표와 그림은 차례로 번호를 붙이고 간략한 제목을 단다. 본문에서 반드시 표와 그림을 지칭해야 한다. 표는 표 1.의 형태로 표 위에 위치시키고, 그림은 그림 1.의 형태로 그림 아래에 위치시키며 본문 내에 관련 단락에 가깝게 위치시킨다. 표와 그림 아래 한 줄 띄운다.
13. 각주는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고 8pt, 줄간격 130, 내어쓰기 11pt 로 한다.
14. 국문으로 작성하는 논문에서 외국 저자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본문 중에 인용되는 경우: 처음 등장 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며, 두 번째 등장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예 1) 쥘(Gile 1994)의 노력 모델에 따르면.....이다. 이와 함께 쥘(1994)은 동시통역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서.....를 언급하였다.

예 2) 2019 년에 발표된 왕상링(王湘玲)과 양옌샤(杨艳霞)의 중국의 기계번역 연구에 따르면.....임을 알 수 있다.....선행연구는 왕상링과 양옌샤가 2019 년에 발표한 2 편의 논문으로.....

예 3) 와타나베(渡辺 2018)는.....라고 주장하였다. 와타나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2) 직접 인용 아닌 경우(괄호 안에 들어가는 경우): 원어로 표기하고 3명 이상 복수 저자의 경우 ‘et al.’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1) 자동통역은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Jia et al. 2019; Saina 2021).

예 2) 이미 다수의 번역학 및 기계번역학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메타 연구(袁良平, 汤建民 2007; 赵云龙 외 2017; 杨艳霞, 王湘玲 2019a; 杨艳霞, 王湘玲 2019b)에 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학술지로서.....
15. 본문에 언급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되 미출판물과 개인서신 등은 제외한다. 참고문헌은 국내논문의 경우 국내문헌을 먼저 기재하고 외국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논문명은 홑낫표, 학술지명과 도서명은 겹낫표로 표시하고 논문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서지정보를 빠짐없이 제시한다. 영어 참고문헌은 영문 원고 참고문헌 작성방식을 따른다.
16.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T&I Review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 소유자이지만 초판 발행 및 전자출판을 본 학술지에 허가한다.
17. 이전에 출판된 원고나 다른 학술지 심사 중인 원고는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 출판물의 수정본일 경우 세부사항을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18. 모든 투고는 상호심사를 받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자의 코멘트와 수정에 관한 제안을 투고자에게 송달하여 마감기한까지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게재 가능하다.
19. 투고문 첫 페이지에는 제목, 저자명과 소속, 직위, 영문저자명, 영문 제목, 영문 초록, 영문 키워드, 한글 주제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 투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메일 연락처와 약력 및 연구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재한다.
21.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교신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이메일(erits@ewha.ac.kr)로 한다.
22. 투고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원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3.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1 편당 대학(원)생은 10 만원, 강사는 15 만원, 그 외의 투고자(독립연구자 등 일반인 포함)는 20 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공동논문의 경우에는 제 1 저자의 신분예 기준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10 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24. 논문집(pdf)에 인쇄된 상태로 30 면 이상인 경우부터 1 면당 1 만원의 추가 게재료가 청구된다. 40 면 이상인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등에서 조정(게재 거부 등의 조치)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작성 양식

<본문 내 인용>

1. 서술식 인용

① 단독저자의 경우:

김혜영(2012)은.....

이은용(2014)은.....

구체적 내용 인용할 경우에는 쪽수를 표기한다.

한국어 논문에서 외국 저자명을 인용하는 경우:

첫 인용 시: 쥘(Gile 1994)의 노력 모델에 따르면.....

동일문헌에 대한 두 번째 인용부터: 쥘(1994)은.....

② 저자 2명의 경우: 한국 저자명은 ‘와/과’로, 영어 저자명은 ‘and’로 연결한다. 중국, 일본 저자명은 쉼표로 연결한다.

이범수와 김민영(2006: 23)에 따르면

그랜과 도즈(Gran and Dodds 1989)는

니완빈과 류즈(倪传斌, 刘治 2005)는

③ 저자 3명 이상: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외’ 혹은 ‘et al.’로 표시한다.

김문형 외(2013)에 따르면

브라운 외(Braun et al. 2013)는

자오원룽 외(赵云龙 외 2017)는

④ 문구의 인용: 인용문은 한글로 40 단어 이상인 경우, 좌우 20pt 여백준다. 짧은 인용문은 본문 내에서 인용 부호로 구분한다.

법과 언어가 결합하여 가질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커버(Cover 1986: 1601)는 이렇게 묘사했다.

Legal interpretation takes place in a field of pain and death ... Legal interpretive acts signal and occasion the imposition of violence upon others. A judge articulates her understanding of a text, and as a result, somebody loses his freedom, his property, his children, even his life.

2. 소괄호 인용

① 소괄호 인용의 경우, 저자명 뒤에 쉼표를 쓰지 않는다. 외국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하고 3명 이상 복수 저자의 경우 ‘et al.’ 혹은 ‘외’로 표시한다.

(정혜승 2018: 139)

(Schäffner 2004: 105)

(박정희와 김민 2007: 97)

(Denton and Hahn 1986)

(王彬, 欧阳铨 2002)

(김문형 외 2013)

(Curran et al. 2007)

(赵云龙 외 2017)

② 2편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한국어 논문에서 한국과 외국 저자명을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 한국 저자명부터 나열한다.

(이창수 2000; 김순미 2002; 김순영 2005)

(Denton and Hahn 1986; Dorsey 2008)

(袁良平, 汤建民 2007; 赵云龙 외 2017; 杨艳霞, 王湘玲 2019a; 杨艳霞, 王湘玲 2019b)

(송연석 2021: 70; Ahrens et al. 2021)

③ 기관 저자: 괄호 안에는 약칭을 쓴다. 동일 연도 출판물은 알파벳 소문자로 구분한다.

(CCHI 2020)

(CIOL n.d.(a))

(CIOL n.d.(b))

④ 번역서: 원저자명만 표기하고 번역서 역자 표기는 생략한다.

(Reiss and Vermeer 1984: 113)

⑤ 재인용: 가급적 원래 출처를 기재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 재인용 표기한다.

(신지선 2017: 61에서 재인용)
(Denton and Hahn 1986에서 재인용)

⑥ 저자미상: 제목을 표기한다.
(Le Chant de la fidèle Chunhyang 1999)

⑦ 동영상, 영화 등: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감독명을 표기한다.
(JTBC 2017)
(Langton et al. 2006)

<참고문헌 목록>

1. 학술지 논문:

한국 논문의 경우, 제목은 홑낫표(「」)를 사용하고 학술지명은 겹낫표(『』)를 사용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제목은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학술지명은 이탤릭
체로 처리하고 모든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① 단독저자:

이지은. (2015).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T&I Review』 5: 93-120.

곽성희. (2001). 「정보성과 번역전환」. 『번역학연구』 2(1): 77-97.

Lee, J. (2009a).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interpreters. *Interpreting* 11(1): 35-56.

Lee, J. (2009b). Interpreting inexplicit language during courtroom examination. *Applied
Linguistics* 30(1): 93-114.

邱懋如. (2001). 「可译性及零翻译」. 『中国翻译』 22(1): 24-27.

藤井章雄. (1972). 「ニュース翻訳の一考察」. 『時事英語学研究』 第11号, 頁99-112.
時事英学研究会.

② 공동저자: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한국 저자명은 가운뎃점(·)으로 연결하고 중국,
일본 저자명은 쉼표로 연결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저자명은 모두 ‘성(last name)’ + 이
름(이니셜) 순으로 작성하고 가장 마지막의 저자명 앞에 and를 쓴다.

김혜림·장애리·강려영. (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

Chang, C. and Schallert, D. L. (2007). The impact of directionality on Chinese/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9(2): 137-176.

Mitchell, J., Hayes, D. and Mills, M. (2009). Crossing school and university boundaries to reshape professional learning and research practice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36(3): 491-509.

王湘玲, 杨艳霞. (2019a). 「国内60年机器翻译研究探索——基于外语类核心期刊的分析」.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33(4): 90-96.

遠山仁美, 松原茂樹. (2007). 「英日同時通訳者発話におけるフィラーの出現と聴きやすさとの関係」. 『通訳翻訳研究』 7: 39-50.

2. 저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저서명은 겹낫표(『』)를 사용한다. 영어, 불어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처리하고 모든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향. (2008). 『번역이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출판사.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Gile, D. (2010).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2nd ed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Hale, S. B. (2007). *Community Interpret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nette, G. (1982). *P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Paris: Seuil.

王华树. (2009). 『翻译技术实践』北京: 外文出版社.

原子郎. (2013). 『定本宮澤賢治語彙辭典』筑摩書房.

3. 편저: 한국어로 된 편저의 경우, 편자(엮은이)명 뒤에 ‘(편저)’를 적는다. 영어 편저의 경우, 편저명은 이탤릭체로 처리하고 모든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단일저자 편저는 ‘ed.’를, 복수저자 편저는 ‘eds.’를 표기한다. 복수저자 편저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첫 편자명은 ‘성(last name) + 이름(이니셜)’ 순으로 작성하고 두 번째 편자명부터는 ‘이름(이니셜) + 성’ 순으로 한다.

김홍규. (편저). (2002).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Albin, L. and Bae, S. H. (근간). 「Our own Kim Hyesoon: Collaborative translation of A Drink of Red Mirror」.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를 묻다(미확정 도서명)』(조의연과 이상빈 편저). 파주: 김영사.
- Hale, S., Ozolins, U. and Stern, L. (eds.) (2009). *The Critical Link 5: Quality in Interpreting- A Shared Responsibil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le, D. (1994). Methodological aspect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research. In Lambert, S. and B. Moser-Merc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9-56.

4. 학위논문:

- 최효은. (2016). 한영 특허 번역 품질 평가 연구: KPA와 MT의 특징과 기능에 따른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Saldanha, G. (2005). *Style of Translation: An Exploration of Stylistic Patterns in the Translations of Margaret Jull Costa and Peter Bush*. PhD dissertation, Durbish City University.
- 朴恩淑. (2012). 中韩语篇对比与翻译研究. 复旦大学博士论文.

5.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 김문형·장하연·조유미·신효필. (2013, 6월). KOSAC (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한국어 감정 및 의견 분석 코퍼스.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발표논문.
- Anderson, V. (1991, April). Training teachers to foster active reading strategies in reading-disabled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 응웬티히엔. (2009). 한국 ‘구인회’와 베트남 ‘자력문단’의 시인 비교. 한국현대문학회 학술 발표회 자료집, 110-127.
- Aranberri, N., Labaka, G., Diaz de Ilarraza, A. and Sarasola, K. (2014). Comparison of post-editing productivity between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lay users. In O’Brien, S., M. Simard, and L. Specia (eds.),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20-33.

6. 번역서: 원저가 한국 문헌인 경우, 참고문헌 정보를 한국 문헌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원저가 외국 문헌인 경우, 참고문헌 정보를 외국 문헌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외국 역자명은 모두 ‘이름(이니셜) + 성’ 순으로 작성한다.

박지원. (2019). 『호질(La remontrance du tigre)』 (S. Bois, and E. Cho, Trans.). Decrescenzo éditeur.

Verschueren, Jef. (2003). 『화용론 이해』 (김영순, 지인영, 이정화 역). 서울: 동인.

Freud, S. (197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J. Strachey, Trans.). New York: Norton.

Baigorry-Jalón, J. (2014). *From Paris to Nuremberg: The Birth of Conference Interpreting* (H. Mikkelsen, and B. S. Olsen, Trans.). Amsterdam/Philadephia: John Benjamins.

7.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EUATC. (2017). 2017 Language Industry Survey -Expectations and Concerns of the European Language Industry. Retrieved from http://www.digiling.eu/wp-content/uploads/2017/06/2017-Language-Industry-Survey-Report_6April2017.pdf on date month yyyy.

8. 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중서림 편집국. (2006). 『옛센스 국어사전』(제6판). 서울: 민중서림.

Law, J. (2022). *A dictionary of law*.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Merriam-Webster. (n.d.).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 on date month yyyy.

9.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는 모두 출처와 검색 날짜를 표기한다.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기관명을 적는다.

동아일보. (2020). 코로나가 바꾼 영화 산업 지형도... 넷플릭스 VS OTT 경쟁 본격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12/104409885/1\(20](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12/104409885/1(20)

21.9.25.검색).

씨네21. (200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7616(2021.9.28.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2021.9.2.검색).

Deseret News. (2016). A history of ‘Pride and Prejudice’ on TV and film. <https://www.deseret.com/2016/2/5/20581914/a-history-of-pride-and-prejudice-on-tv-and-film#laurence-olivier-as-mr-darcy-and-greer-garson-as-elizabeth-bennet-in-the-1940-version-of-pride-and-prejudice>(2021.9.28.검색).

AUSIT. (n.d.). AUSIT Guidelines for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with Interpreters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ausit.org/pics/HealthGuide08.pdf> on date month yyyy.

10. 영화, DVD, 방송, 유튜브:

오만과 편견. 넷플릭스. 2020년 9월 출시.

Langton, S., Austen, J., Firth, C. and Ehle, J. (Directors). (2006).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DVD]. 서울: KBS Media.

JTBC. (2017). JTBC 잡스. 웹툰 작가 편. 2017년 6월 1일 방영분. <https://tv.jtbc.joins.com/replay/pr10010459/pm10041803/ep10034107/view>.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_GSTI EWHA. (2022.12.8.). <https://www.youtube.com/watch?v=0wtpyudynZk>.

11. 신문, 잡지:

Delaney, K. J., Karnitschnig, M., and Guth, R. A. (2008, May 5). Microsoft ends pursuit of Yahoo, reassesses its online op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pp. A1, A12.

Guidelines for Contributors

1. Manuscript format: Microsoft Word
2. Languages: English, Korean, Chinese, French, and Japanese
3. Length: Approximately 7,000 words (15 pages, not exceeding 25 pages). Abstracts should be approx. 150 words in English. Five keywords in English should be provided.
4. Font: English Times New Roman 12pt, Korean 한컴바탕 10pt, Chinese SimSun 10 pt, Japanese MS Mincho 10 pt
5. Justification: Title, section headings, including references and appendix, should be center-aligned.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which should be placed between the title and the abstract, must be right-aligned. Abstract, keywords, and the text must be aligned at both the left and right margins (full justification). All new paragraphs must be indented 10 pt.
6. Spacing: Single line spacing throughout. Use a single space following a period or colon.
7. Title: 14pt bold, one line space below.
8. Articles should be divided into sections and subsections as necessary. Please mark the hierarchy of subheadings as follows:
Heading A = bold, center-aligned, two lines space above and below.
Heading B = Italics, bold, left-aligned, one line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Heading C = Italics, bold, left-aligned, one line space above, text on new line, no line space below.
Abstract = Italics, first paragraph must be indented 10pt, one line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9. Quotations over 40 words should be indented (left and right 1cm) and italicized without quotation marks. Short quotations in the text itself should be marked with quotation marks.
10. Spelling conventions should be consistent (either American English or British English). Proofreading is required before submission.
11. The fir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include the title,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position, abstract, and text.
12. The la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include a brief biographical sketch of the author or authors. Email addresses for each author should also be provided.
13.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provided with brief captions.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referred to in the main text. All illustrations, figures, and tables should be placed within the text rather than at the end of it. Titles for tables should precede the tables and the titles for figures should be placed below the figures. One line spacing is required between the table or figure and the following paragraph.

14. Footnot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should be kept to a minimum.
15. Referencing style: APA (see examples in “Referencing style” section below). References should list all references cited in the article. All references must be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except for unpublished items such as correspondence.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lphabetically and chronologically.
16. The author should obtain any necessary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s and/or ethical clearance necessary for the publication of their papers. The author(s) retains copyright of articles but grants T&I Review right of first print and electronic publication.
17. The manuscript should no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nor be under review by another journal. However, a revised version of a previous publication will be considered if accompanied with proper acknowledgment.
18. All contributions will be subjected to a double blind peer-review process. Reviewers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anuscript is ready for publication with/without revisions. Comment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s, if needed, will be sent to the author and the author will be requested to provide a final draft of the manuscript by the due date.
19. Manuscripts and all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electronically to:
erits@ewha.ac.kr

Referencing Style

[In-text references]

Work by a single author

Gile's (1995) effort model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Goffman (1981: 8) states that...

According to Kiraly (1995: 7), ...

Work by two authors

Stern and Liu (2019) found that...

According to Gran and Dodds (1989)

Work by three or more authors

Gonzalez et al. (1991: 100) demonstrate that...

Provide page references where necessary and provide citation in a chronological order.

(Stern 2012; Lee 2019; Pym 2023)

[End-text referencing]

English references followed by non-English references.

Hanging indent (1cm): The first line of each reference is fully left justified while subsequent lines are indented to the right. The width of the hanging indent should be 1cm.

Journal articles:

Chang, C. and Schallert, D. L. (2007). The impact of directionality on Chinese/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9(2): 137-176.

Lee, J. (2009a).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interpreters. *Interpreting* 11(1): 35-56.

Lee, J. (2009b). Interpreting inexplicit language during courtroom examination. *Applied Linguistics* 30(1): 93-114.

Mitchell, J., Hayes, D. and Mills, M. (2009). Crossing school and university boundaries to reshape professional learning and research practice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36(3): 491-509.

邱懋如. (2001). 可译性及零翻译. 中国翻译 22(1): 24-27.

遠山仁美, 松原茂樹. (2007). 英日同時通訳者発話におけるフィラーの出現と聴きやすさとの関係. 通訳翻訳研究 7: 39-50.

Books:

Hale, S. B. (2007). *Community Interpret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nette, G. (1982). *P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Paris: Seuil.
王华树. (2009). *翻译技术实践*. 北京：外文出版社.

Edited volume:

Hale, S., Ozolins, U. and Stern, L. (eds.) (2009). *The Critical Link 5: Quality in Interpreting- A Shared Responsibil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A chapter in an edited volume:

LeBlanc, M. (2017). 'I can't get no satisfaction!' Should we blame translation technologies or shifting business practices?. In Kenny, D. (ed.), *Human Issues in Translation Technology*. London & New York: Routledge, 45-62.

Svoboda, T. and Sosoni, V. (2023). Institutional translator training in language and translation technologies. In Svoboda, T., L. Biel, and V. Sosoni (eds.), *Institutional Translator Training*. London: Routledge, 73-91.

The second and third editors' first name initials precede last names.

Translated books:

Freud, S. (197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J. Strachey, Trans.). New York: Norton.

Baigorri-Jalón, J. (2014). *From Paris to Nuremberg: The Birth of Conference Interpreting* (H. Mikkelsen, and B. S. Olsen, Tran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Unpublished dissertations:

Saldanha, G. (2005). *Style of Translation: An Exploration of Stylistic Patterns in the Translations of Margaret Jull Costa and Peter Bush*. PhD dissertation, Dublish City University.

朴恩淑. (2012). *中韩语篇对比与翻译研究*. 复旦大学博士论文.

Conference papers:

Anderson, V. (1991, April). Training teachers to foster active reading strategies in reading-disabled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Conference proceedings:

Aranberri, N., Labaka, G., Diaz de Ilaraza, A. and Sarasola, K. (2014). Comparison of post-editing productivity between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lay users. In O'Brien, S., M. Simard, and L. Specia (eds.),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20-33.

Electronic sources:

AUSIT. (n.d.). AUSIT Guidelines for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with Interpreters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ausit.org/pics/HealthGuide08.pdf> on date month yyyy.

CCHI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Healthcare Interpreters]. (2020). Requirements for Continuing Education (online) Retrieved from <http://cchicertification.org/renew-certification/requirements/continuing-education/> on 4 February 2023.

Articles in newspapers & magazines:

Delaney, K. J., Karnitschnig, M., and Guth, R. A. (2008, May 5). Microsoft ends pursuit of Yahoo, reassesses its online op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pp. A1, A12.

Non-English references in English manuscripts should be presented in English.

Lactorin-Inoue, K. (1991). Kokuzaikajidai no tsuyakukyouiku - totaaru komiyunikeeshion no susume (Interpreter training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 Towards total communication). *Kiyō* 25: 23-61.

Lee, W. (2000). *Discourse Analysis*. Seoul: Hankukmunhwasa.

Lee, H. (1999). Efficient methods for vocabulary teaching. In Lee, H. (eds.),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eoul: Hankukmunhwasa, 185-204.

Won, J. (2010). Directionality in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strategi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12(1): 131-156.

Yang, C. (2007). *Interpreting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J. Son, Y. Kim, and H. Ahn, Trans.). Seoul: Hankukmunhwasa.

T&I Review is a refereed journal published by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ERITS), which seek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effective T&I education and excellence in professional practice by sharing the results of systemic and innovative research.

Published on June 30, 2025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3760

Tel: +82 2 3277 3704 or 3705 or 4087 Fax: +82 2 3277 4017

E-mail: erits@ewha.ac.kr

Website: <https://erits.ewha.ac.kr>

Submission

erits@ewha.ac.kr

tnirvw@kakao.com

<https://erits.jams.or.kr>

Subject: Contribution to T&I Review

Photocopying and reprint permission

Photocopies of extracts from this journal may be made without charge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provided that full acknowledgment is made of the source. Reprints in any form of publications should obtai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T&I Review는 통번역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올바른 통번역을 실천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Tel: 02-3277-3704, 3705, 4087 Fax: 02-3277-4017

이메일: erits@ewha.ac.kr

홈페이지: <https://erits.ewha.ac.kr>

투고:

<https://erits.jams.or.kr>에 회원가입 후 투고하거나 erits@ewha.ac.kr로 이메일을 통해 투고한다. 이메일 제목은 [T&I Review 투고]라고 명기한다.

저작권 및 재출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학술지 일부를 복사할 경우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무료로 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재출판은 발행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SSN 2233-9221

Copyright© 2025 by ERITS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by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Designed by **Dahae Publish**